

국립국어원 2019-01-3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82-01

#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명  
조 재 윤



국립국어원 2019-01-3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82-01

#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명  
조 재 윤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9년 3월 ~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연구 책임자: 조재윤(목원대학교)

연구 기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조재윤(목원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대희(원광대학교)

서수현(광주교육대학교)

방상호(고려대학교)

류보라(목원대학교)

보조 연구원 정혜현(고려대학교)

노하늘(고려대학교)

조은영(한국교육방송)

보조원 김아영(목원대학교)



## 국문 초록

###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기 개발한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실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관련,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사례 관련, 인성 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관련 내용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및 요구에 기반한 실제적 자료, 학교급별 중점을 구분한 맞춤형 자료, 현장 적합도를 제고한 모듈형 자료, 기 개발한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 정합성 높은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생용 10차시, 중등학생용 10차시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중등학생용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인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은 교육부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 2019년 교육부 인성 교육 프로그램 자격을 취득하였다(2019년 9월 10일).

셋째, 총 15개교 1,011명(연인원 3,65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학기 및 2학기에 걸쳐 총 154차시(학교 자체 비용 14차시 포함) 동안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15개교 이외에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국외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Thornhill Secondary School 9학년 26명을 대상으로 2차시를 운영하였다.

넷째, 학생 만족도 검사와 인성검사, 학생 및 강사 인터뷰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6차시 이상 참여한 총 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검사는 평균 4.25점(5점 만점)이 산출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은 만족도(평균값=4.49)를 보이고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낮은 만족도(평균값=4.04)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학년 간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6차시 이상 참여한 총 193명을 대상으로 KEDI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전 검사의 합산점 평균값이 272.55점이고 사후 검사의 합산점 평균값

은 276.93점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KEDI 인성검사의 사전·사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KEDI 인성검사 각 하위 영역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인성 점수가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배려·소통’ 점수가 가장 많이 신장되었다(31.02 점에서 39.73점). ‘배려·소통’ 영역은 타인이해 및 공감, 친절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이 프로그램이 특히 ‘배려·소통’ 영역에서의 인성발달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각 시도 및 지역 내 활성화, 강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향상, 학생의 실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향상 및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지향점 및 목표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10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강사 수급 및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 프로그램을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아 청소년의 언어문화 교육과 청소년의 인성 교육을 연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국제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도 작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 Abstract

###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for Youth

This study aimed to revise and supplement a program, which has already been developed and named “Care of Youth Language,” based on the criteria for character education. Accordingly, the study aimed for the program to obtain certification from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to operate the updated program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the activation plan.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first theoretically explored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studies on youth language culture and character education, particularly the case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updated programs, which consisted of ten hours of lesson plan, became available for both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These programs were redesign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local schools and provided customized classes tailored to their situations. The programs adopted a module structure in which schools could choose what they needed and when they needed it.

Second, the program for secondary students was renamed “With Warm Words, We are Happy, the World Becomes Beautiful” and was officially certifi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on September 10, 2019 as the program that builds students’ character.

Third, a management team composed of experts in the fields of language, culture, youth, and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order to run the programs as an outreach service. A total number of 1,011 students from 15 schools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A total number of 154 lessons were operated. Fourteen lessons were operated at the schools’ own expense. Particularly, two lesson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implemented for 26 ninth-graders at Thornhill Secondary School in Toronto, Canada.

Fourth, we investigated students’ satisfaction. A pre and a post character test developed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entire program.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identify if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both students and

instructors to qualitative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Overal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quite satisfied with their programs, with an average score of 4.25 on a scale of 1 to 5. Sixth-graders reported the highest level (mean = 4.49), whereas first graders reported the lowest (mean = 4.04).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verage score on the KEDI pretest was 272.55, whereas the average score of the posttest was 276.93, showing that there was a slight increase despite the difference being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l scores of the participants generally improved in all eight subfields of the KEDI test. In particular, scores increased the most in the domain of “care and communication” (from 31.02 to 39.73). The “care and communication” area consisted of items that measure understanding of others, such as empathy, kindnes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skills. As an activation plan, this study suggested professional developments for instructors, strengthening ties between the developers and the local school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rogram operations tailored to their situation and needs.

This project contributed to the field by establishing an outreach program for youth language cult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when it was publically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dditionally, this project set the initial groundwork for internationalization with a pilot study in a Canadian middle school.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goals of the program should be more explicit as to whether it is for character education or culture crea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more flexible formats of the program rather than operating a fixed program. Last, for the dissemination of programs, it was necessary to provide quality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ructors and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program.

# 차 례

I. 서론 .....	1
II.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	4
III.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	21
IV.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	53
V.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70
VI.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	78
VII. 결론 및 제언 .....	82
참고 문헌 .....	85
<부록> .....	91

## 표 차례

<표 1> 선도 교실 운영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내용 .....	9
<표 2> 인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	11
<표 3> 교육부 개발/인증 인성 교육 프로그램 .....	14
<표 4> 초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 .....	25
<표 5> 중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 .....	39
<표 6> 2018년과 2019년 개발 프로그램의 비교·대조표 .....	51
<표 7> 1차 연수회 일정 .....	55
<표 8> 2차 연수회 일정 .....	55
<표 9> 2019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56
<표 10> 만족도 전체 평균 .....	63
<표 11> 문항별 만족도 평균 .....	63
<표 12> KEDI 인성검사 합산점 .....	65
<표 13> 교육부 인증 취득 인성 교육 프로그램(2016~2019) .....	72
<표 14>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	73
<표 15> 녹양중 인성 교육 실시 과정 .....	73
<표 16>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인증 과정 .....	76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과업 내용 .....	3
[그림 2] 초등학교 학생 활동지 예시 .....	58
[그림 3] 중학교 학생 활동지 예시 .....	59
[그림 4] Thornhill Secondary School 학생 활동지 예시 .....	62
[그림 5] 학년별 만족도 평균값 .....	64
[그림 6] 학년별 인성검사 평균값 변화(사전-사후) .....	65
[그림 7] 영역별 인성검사 .....	66
[그림 8] 남녀 차별 인식 학습지 기록 .....	74
[그림 9] 온라인 댓글 학습지 기록 .....	74
[그림 10] 녹양중 KEDI 인성검사 사전·사후 결과 .....	76
[그림 11] 인증 프로그램 온라인 탑재 내용 예시 .....	77
[그림 12] 국어문화원 제14회 강사 연수회 강의 자료 일부 .....	78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기 개발한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고, 동시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2018년 개발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다. 초·중등 구별이 없이 전체 6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램인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를 수정하여 초등 학교용 10차시, 중등학교용 10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청소년의 인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성 교육진흥법(법률 제15233호)에 근거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따라 청소년 언어문화를 개선하면서도 청소년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및 각 차시의 흐름을 모듈 형으로 실행한다.

셋째, 2018년에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및 학교 밖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교육을 확산시키고 2019년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한다.

넷째, 새롭게 개발한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운영한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운영 개선 및 보완점을 도출하고, 사전-사후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이 프로그램이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되었는지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및 강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한다.

다섯째,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2.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기 개발된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제반 사항 준비,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네 가지 연구 범위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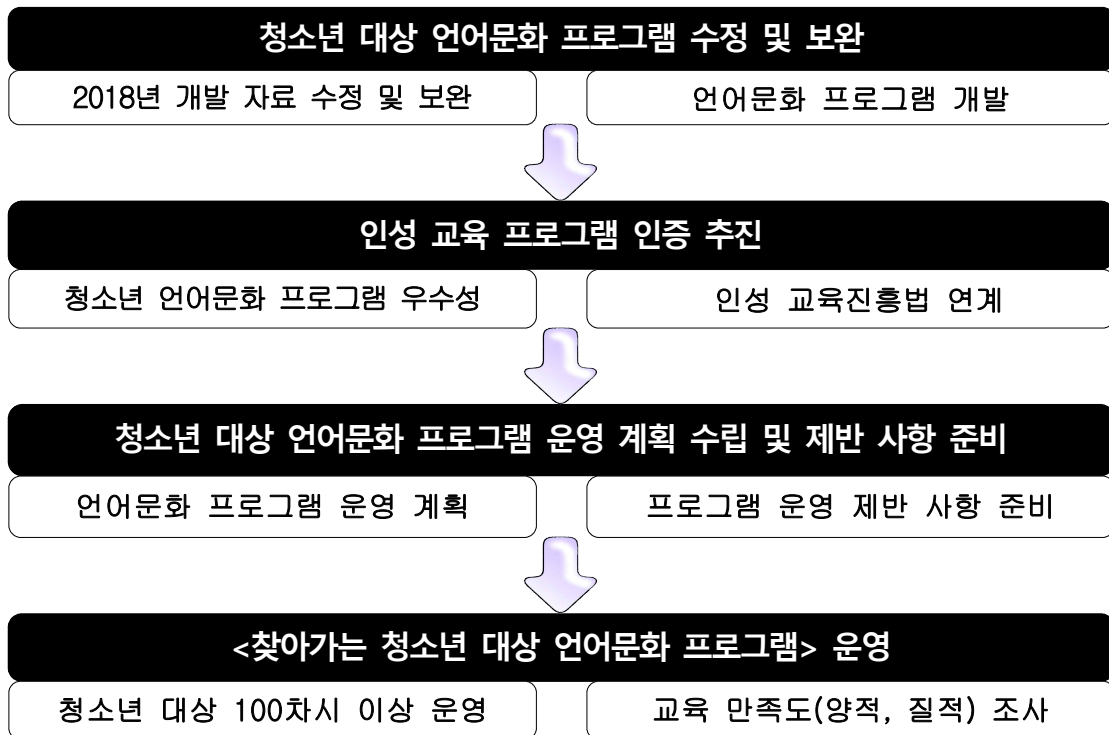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다. 2018년 개발된 초·중등이 통합된 6차시의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되, 초등과 중등을 구별하여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인 학교급별 10차시 이상의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초등과 중등을 별도로 10차시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때에는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의 요구와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영화, 드라마, 광고, 만화, 사진, 그림, 그래프 등)를 활용한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 또한 청소년의 실제 담화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구성 설계를 마친 후에는 청소년 언어문화 전문가 및 교사가 초안을 집필하고 해당 초안은 국어교육학 전공자로 이루어진 전문 검토진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학생용 교재 이외에 강사용(교육용) 강의 자료 및 교안(교사용 지도안), 강의 자료(ppt 등), 교재 지도서를 보강하는 학습 자료를 추가로 함께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인성 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한다. 2018년에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기반 조성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으로 인증 조건을 충족한 후에 인증을 추진한다. 단, 2019년에 교육부의 인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9년에 인증을 완료한다.

셋째,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찾아가야 할 섭외 기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한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생용/강사용 교재 배포, 강사비 운영 집행 등 예산을 운영하고, 수강생(학생) 관리 방안(교육 운영팀 구성) 등 교육 실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며, 교육을 위한 강사를 모집하여 강사 연수회(연 2회) 개최를 준비한다.

넷째,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중등 학교(13개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수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학생 및 강사에 대해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양적 조사(만족도 조사, 인성 검사(사전 및 사후)와 질적 조사(학생 인터뷰 및 강사 인터뷰 실시)를 병행한다. 이러한 양적·질적 조사의 내용은 환류한다.

이러한 네 가지 연구 과업 내용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과업 내용

## II.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 1. 청소년 언어문화 관련 연구

#### 가.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실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국립국어원의 연구(민병곤 외, 2015; 민병곤 외, 2016, 정혜승 외, 2017)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민병곤 외(2015)는 청소년 언어문화의 개념과 하위 범주를 규정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구성된 361명의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와 질적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말하기·듣기 활동과 의식’, ‘청소년의 언어 표현 사용과 의식’, ‘개인적·환경적 변인’을 탐색하고 실태 원인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은 사적 대화에 있어 ‘친구·부모와의 대화 내용과 시간’, ‘질문과 발표의 효능감’, ‘채팅 시간과 즐거움’ 등에서 남녀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줄고, 대화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며, 언어 사용의 규범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집단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놀림의 언어 또한 집단적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대화로서 수업 담화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질문·발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며, 친구와의 사적 대화와는 달리 질문과 발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따른 언어문화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병곤 외(2016)는 민병곤 외(2015)를 바탕으로 학교 안 청소년 3,429명과 학교 밖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였다. ‘언어생활’의 측면에서 ‘구어 의사소통’, ‘온라인 의사소통’, ‘언어 규범’ 실태를, ‘언어 의식’의 측면에서 ‘언어활동 및 사용에 대한 인식’, ‘구어 의사소통 태도’의 실태를 조사한 뒤 면담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삶에서 친구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안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공감, 칭찬, 유머 등 긍정적인 말을 명령, 비교, 비난 등의 부정적인 말보다 더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말에 대해 보이는 관심은 관심의 양과 질에 있어서 개인 편차가 큰 것으로 보고된다. 셋째, 학교 안 청소년들의 수업 대화 참여는 질문, 발표, 토의 순으로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대도시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 안 청소년들은 대체로 말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친구를 사귀는 때에도 친구의 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민감성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안 청소년의 67% 정도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일상적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욕설이나 비속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 청소년들은 또래 동조성으로 인해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욕설에 대해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교사나 부모님 앞 또는 공적 의사소통 상황 등에서는 그 사용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적인 언어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 안 청소년들은 높임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보다 높임말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고, 높임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온라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학교 밖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학교 안 청소년과 유사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감적 대화 태도와 일상적 삶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이 부족하였으며, 언어적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어 적절한 대화를 수행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결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혜승 외(2017)는 민병곤 외(2016)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하위 집단의 언어문화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청소년 하위 집단의 언어문화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공적 언어활동 참여에는 교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중심, 정답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이 청소년의 공적 언어활동 참여를 단순한 방식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하거나 공동의 지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 제한된 공적 영역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나, 이는 목표 중심, 정답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부분적으로 극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청소년의 사적 언어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서열화에 기반을 둔 평가적인 언어 사용, 또래 동조에 기반을 둔 유희적 언어 사용, 수업 내용을 통한 성적 담화의 연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탐구하는 언어 표현 사용 등이 보고된다. 한편, 청소년의 온라인 언어 사용 양상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동체 내부와 외부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언어를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청소년들이 언어 규범에 대해 균형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규범에 어긋나거나 은어, 유행어, 비속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정혜승(2018)은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과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으로 성인 언어와의 차별화와 성인다움의 차용, 공적 의사소통 참여와 경험 부족, 언어에 대한 생각과 실천 사이의 간극, 성인 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말하기 본보기의 부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언어문화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언어 및 언어생활에 대한 바른 가치와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년 언어문화 형성의 3요소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청소년이 언어문화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

키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부적인 방식의 계도보다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발하고 이를 실천으로 연계하는 데 실제 도움이 되는 ‘능력’과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자는 모델이다.

김대희 외(2017)는 다양한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청소년이 겪는 소통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소통 주체 간 관계 개선 등 다양한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김대희 외(2018)는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 검토와 더불어 청소년 언어 관련 정책 사례와 법령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3개년에 걸쳐 시행한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6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언어문화 현상에 기반을 둔 실제적 자료로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이 효율적 의사소통 전략 사용하며 청소년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는 청소년의 언어문화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이들 언어문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방안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 나.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사례 검토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사례는, 청소년의 언어 사용을 하나의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세대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언어문화가 가져야 할 전통성과 세대 간 소통성 측면에서 개선의 요소도 지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청소년 개인의 언어 사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욕설 사용에 대한 연구와 가정에서의 언어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차별적 언어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욕설 사용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 욕설 사용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언어문화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상을 욕설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모색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박인기(2012)는 청소년 욕설 언어 현상을 ‘언어문화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심리적 처방, 사회적 처방, 문화적 처방 등이 함께 적용되는 욕설 언어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평원(2012)에서는 3년간의 실행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욕설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태도 교육법’, 토론과 논술 기반의 ‘통합 교육법’, 비속어 말뭉치(코퍼스) 구축 ‘프로젝트 수행법’의 3가지 수업 방법 중 ‘프로젝트 수행법’이 장기적인 지속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선영(2012)은 욕설 사용을 줄이고 건전한 언어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언어문화개선’ 선도 학교 9곳과 선도 교실 27곳의 캠페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참여 주체와 이론적 배경, 캠페인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김성율·이종연(2013)은 온라인 게임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주목한 연구로, 욕설 사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게임 사용 예절 교육 실시를 제안하였다. 신재한·전현규(2013)는 창의·인성 교육 차원에서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김평원·이선영(2014)은 학교 언어폭력 정책 마련을 위해 언어문화 개선 선도 학교 및 선도 교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태도 개선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욕설 어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욕설 행위 감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예방 교육 차원의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이, 저학년 이후에는 치료 교육 차원의 언어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2) 가정 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가정 내 의사소통에 주목하여 청소년 언어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현석(2013)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 내 가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말 문화 형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혜정·조병은(2011)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제 상황적 수행평가를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로, 부모와 자녀 간 실제 대화 손수 제작물(UCC) 동영상의 대화 분석을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 3) 차별적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차별적 언어문화 역시 개선해야 할 청소년 언어문화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안주호(2003)는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성차별적 인식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

는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을 구안하였다. 이관희·조진수·박재현(2016)은 현행 검인정 국어 교과서들에서 장애 차별 표현을 표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다양한 장애 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의 차별성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표현의 다층적 인식을 위한 사례의 계열화 및 차별 표현에 내재된 언어적 단서 교육 내용화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민경·박진희·박재현(2016)은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언중의 의식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언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내용을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차별 표현과 함께 혐오 표현까지 함께 다룬 연구로는 이정복(2017), 박지원(2017), 김수아(2017), 제민경(2017) 등이 있다.

이상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는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정 양상을 포착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청소년 언어문화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교육적 처치를 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 2.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동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은 공공언어, 방송 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의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청소년 언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관내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내에서 직접 체험하는 활동은 ‘우리말 꿈터’ 프로그램으로 관내에 갖추어진 시설에서 방문한 학생들이 사전, 다양한 우리말, 언어 예절, 소중한 우리말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또는 단체로 신청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은 120분 동안 전담 강사 2명이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2가지가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장소도 신청 학교이다. 단, 서울 지역 학교에 한해 진행되는 제한이 있다. 찾아가는 언어 인성 프로그램 ‘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는 3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 2차시, 총 6차시로 진행된다. 대상은 중학생이며, 교육 내용은 언어로 드러나는 인성 언어로 형성되는 인성, 내가 쓰는 언어 나를 만드는 언어, 관계를 형성하는 언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인 ‘함께 가꾸는 우리말’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회 총 4차시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공감하고 배려해요(사적 의사소통 문화, 2차시), 매체로 소통

해요(매체 의사소통 문화, 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국어문화원에서 진행되는데,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과 연계하여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우리말 가꿈이’이 있고,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의 ‘통통 국어 지킴이단’,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가 있다(강미영·정혜경, 2017).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우리말 지킴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과정으로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주간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품격 있는 우리말, 정확한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을 바른 언어 사용을 이끌어내는 도우미인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로 양성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되었고, 단위 학교 차원의 선도 학교 프로그램과 교실 차원의 선도 교실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이선영·김평원(2014)에서는 2011년 시행된 선도 학교와 선도 교실의 프로그램을 종합, 정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미영·정혜경(2017)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유학기제에 주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도 교실 운영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교실 수	
		초등	중등
동영상 시청 후 소감문 작성하기	청소년 욕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함. 개선 의지를 갖도록 함.	8	12
한글 관련 교육	한글 창제, 순우리말, 맞춤법 등 바르고 고운 우리말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진행함.	8	11
외부 강사 초청 강연	언어 예절, 언어문화, 매체 언어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함.	7	12
언어생활 일지 작성하기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함. 그 과정에서 반성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8	-
표어 및 포스터 제작하기	표어나 포스터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바른말 사용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함.	7	
실험	양파 실험,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실험, 기억력 실험 등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함.	3	

언어문화 관련 논술 활동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한 소재나 지문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반 성적, 비판적 작문 활동을 수행함.	-	10
언어문화 관련 토의 활동	청소년 욕설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함.	-	8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또래 집단의 언어 사용이나 방송 언어 등을 대상으로 규범에 어 긋나거나 저속한 표현 사례를 조사함.	-	5
선플 달기 운동	인터넷 공간에서 선플 다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방식을 수행함.	-	5

이선영·김평원(2014)에서는 초등과 중등, 선도 학교와 선도 교실 단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프로그램들은 개별 학생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년별 위계가 발견되지는 않는 특성이 있었다. 중등 프로그램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욕설 사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국어 교과와 연계한 언어 순화 성격의 프로그램이 많은 특징이 있었다.

학교와 교실 단위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도 학교 단위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주로 캠페인 활동이나 공모전 형식의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운 말 상점 제도와 생활 평점 제도와 같은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많다. 한글날 행사와 같은 사회적 행사 성격의 프로그램과 우리말 순화나 우리말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다. 선도 교실 단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내용은 위에 제시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교 단위에 비교해볼 때에 교실 단위 프로그램은 학급 경영 차원에서 보다 섬세한 프로그램을 시도되는 장점이 있다.

## 가. 인성 교육의 개념 및 최근 동향

### 1) 인성 교육의 개념

인성은 ‘인(人)’과 ‘성(性)’이 합쳐진 단어로,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표준국어대사전)’, ‘자신만의 생활 스타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특수교육학 용어사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인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맥락이나 그것이 가지는 가치 범주의 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조난심 외(2004)에서는 의도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으로, 미 교육부(2007)에서는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13)에서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현주 외(2013)에서는 인성에 대한 개념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바람직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품성과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인성의 의미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와 자질, 성질과 성품, 그리고 덕성이라는 뜻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정창우, 2014:69). 이와 같이 연구 주체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성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

연구 목록	인성의 개념
황응연(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이근철(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고,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
한국교육학회(1998)	사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남궁달화(1999)	인간의 성품으로, 성품은 인간의 성질(性質)과 품격(品格)으로 구성됨. 여기서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임.
조난심 외 (2004)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의 아니라, 의도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
미 교육부(2007)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
강선보 외(2008)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성품, 인간 본연의 모습
박성미·허승희(2012)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
교육과학기술부(2012)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
현주 외(2013)	바람직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품성과 역량

인성의 개념이 연구 주체에 따라 이렇듯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인성을 교육으로 확장한 ‘인성 교육’의 개념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인성 교육의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인성교육진흥법」(2019.6.19. 시행) 제2조에서는 ‘인성 교육’과 그에

관련된 ‘핵심 가치·덕목’,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 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인성과 인성 교육의 개념적 범주와 문식적 정의가 다양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성품 및 그러한 성품의 계발과 신장에 관련된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때, 인성 및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로 인성 교육을 규정할 경우, 인성 교육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 예컨대 ‘민주시민의식’, ‘세계 시민성’과 같이 법제상에 제시되지 않은 가치나 덕목 등을 간과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정광희 외, 2015:1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 교육을 가리키는 맥락과 범주의 통일성을 위해 인성 교육의 개념은 법률적 정의에 따르기로 하되, 인성 교육에 대한 각 관점별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확대된 관점도 함께 수용하고자 한다.

## 2) 인성 교육의 최근 동향(지은림 외, 2013:20-23)

### ① 인성 교육의 효과 강조

최근의 인성 교육은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Berkowitz와 Bier(2005)는 과거 24년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인성 교육 연구를 종합·정리함으로써 인성 교육에 포함해야 할 다양한 측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는 과거 24년간 미국의 인성 교육은 CEP(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CC(Character Counts) 등의 인성 교육 기관의 설립,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인성 교육 협의회 개최, 대학 시설 내 인성 교육 교과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인성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1)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는 인성 교육은 과연 효과적인가? (2) 만약 효과적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효과는 무엇인가? (3) 효과적

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지녀야 할 특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현주 외, 2009:27). 분석한 결과, 인성 교육의 효과는 크게 위험 행동의 감소 여부, 친사회적 능력의 증진 여부, 학교 기반 효과 여부, 사회적·정서적 증진 여부의 네 가지 영역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구체적 전략’의 강조

Lockwood(2009)는 인성 교육에 있어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았으며 특히 발달 이론 중 Erikson과 Kohlberg의 발달 이론이 인성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다.

첫째, 각각의 학년 수준에서 어떤 주제와 쟁점들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어떤 주제가 학생들을 더욱 깊이 관여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발달 과정의 각각의 시기에서 학생들이 어떤 인지적 능력을 지녔는지를 알게 해 준다. 즉,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 학생들의 능력을 능가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도전감을 심어주는 과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각 발달 단계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혹은 기타 가치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태도를 예측하는 데 방향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현주, 2012:12에서 재인용).

## ③ 교사와 부모의 역할 강조

인성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Creasy(2008)는 통합적 인성 교육에 있어 가장 간과되는 측면은 인성 교육을 시행할 교사에게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긍정적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맥락에서 도덕적 쟁점을 반영할 기회를 설정해야 하고, 도덕적인 교실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며,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봉사 활동이나 모임, 동료 간 상호지도 등을 통해 좋은 인성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인성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현주 외, 2009:24-25에서 재인용). 교사의 행동이나 학교장의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교 자체를 인성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성 교육에서의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협력도 매우 중요

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부모 변인이 학생의 사회적, 도덕적, 학문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Berkowitz와 Bier(2005)에 의하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학생에 대한 1차적 영향력은 부모의 관여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높은 관여수준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 증진, 결석률의 감소, 학교 행동 개선, 보다 높은 학문적 동기, 낮은 중도탈락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연계로 학생들의 인성발달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 1) 국내 사례

국내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는 교육부 주도의 개발 또는 인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교육부가 개발하거나 인증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육부 개발/인증 인성 교육 프로그램

연도	구분	기관	자료명	학교급	내용
2018	개발	교육부	교과에서 인성 인권을 만나다	초·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교육을 통한 인성/인권 교육 수업 구현 (고16, 중15, 초15 차시)</li> <li>9개의 인권 교육 주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교육 전반, 이민자, 사회적 약자, 양성평등,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 문화권</li> <li>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성취기준과 인성, 인권 교육을 연계하여 인권 교육 주제와 인성 역량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현</li> </ul> </li> </ul>
2018	개발	교육부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총 17차시)</li> <li>7개 주제영역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공감, 소통, 연대, 민주시민</li> <li>책임, 협력, 배려, 참여의 인성 요소 반영</li> </ul> </li> </ul>
2018	인증	전인교육 학회	스스로 깨닫는 마음빼기 명상교실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단법인 전인교육학회 개발(총 34회차)</li> <li>자기발견, 자기 이해, 관계&amp;소통, 미래&amp;행복 영역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단명료한 명상 방법 제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인성역량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도움</li> </ul> </li> </ul>
2018	인증	청소년 교육전략 21	New 3R 인성 교육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 개발(9개 모듈 66차시)</li> <li>믿음, 존중, 책임이라는 새로운 3R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인권과 시민교육의 적합한 가치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중심, 활동 중심, 사고력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통한 인성 역량 함양</li> <li>- 교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방법 및 소재와 관점에서 접근</li> </ul>
2019	인증	화성시 농식품 유통과	어린이 친환경 논 산책 프로젝트 "논에서 놀자"	유치원 (만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마을에 찾아가 벼가 씨앗에서 쌀이 되는 과정을 주제로 직접 체험 학습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 탐구력, 인성 교육을 기본생활습관으로 생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li> <li>- 매회 연령별 통합, 모둠을 이루어 산책, 체험, 자연관찰 등을 하며 배려와 존중 등 통합된 능력과 태도를 기름</li> </ul>
2019	인증	국립축산 과학원	동물과 마음을 나누는 동물교감교육 - 학교꼬꼬, 학교깡충, 학교멍멍, 학교음매 -	초등학교 (4~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닭, 토끼, 개, 소 등 동물과 함께 놀면서 인성을 배우는 프로그램</li> <li>- 동물 돌보기 활동과 동물 중심 통합적 접근 수업을 구성</li> <li>- 학교 안에 동물과 교감하는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여 수업과 연계된 동물 교감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줌</li> </ul>
2019	인증	진주교육 대학교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3.0 - 다문화가정 학생 세계무대로 GOGO -	초등학교 (2~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학생의 글로벌 리더 역량을 길러 자아를 실현토록 하고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li> <li>- 인지적 역량: 이중언어, 아이티(IT) 언어(Coding), 생명의 근원, 세계자연유산</li> <li>- 정의적 역량: 나를 찾아서, 가족의 소중함, 대한민국 국가관, 세계시민정신</li> <li>- 실천적 역량: 엔지오(NGO) 리포터, 엔지오(NGO) 후원하기, 다문화 입법 청원, 이야기 들려 주기(Storytelling)형 김밥 만들기 체험활동</li> </ul>
2019	인증	법무부 보호정책과	법 친구! 행복한 우리	초등학교 (4~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덕성을 증진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 단위에서 법질서 준수 등 민주시민의식 제고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li> <li>- 법 이해하기: 법의 필요성, 헌법에 대한 이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형사 소송 관련 법률, 경제 관련 법률, 상소 제도에 대한 이해</li> <li>- 법 실천하기: 학교폭력, 학교 안전, 준법정신, 학급 헌법, 학급 헌법 손수 제작물(UCC) 제작 및 발표</li> </ul>
2019	인증	법무부 보호정책과	인성아! 놀자	초등학교 (3~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의 사회 정서 역량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li> </ul>

					<p>위한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감정 표현: 감정에 대한 이해 및 실천</li> <li>- 올바른 언어 사용: 바른 언어 이해 및 실천</li> <li>- 따뜻한 관계 형성: 여러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실천</li> </ul>
2019	인증	국립국어원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중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탐구해 보고, 언어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li> <li>- 서열 의식이 담긴 언어, 성차별적 언어, 부모님과의 대화, 타인과의 대화,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 공감과 배려의 언어 사용</li> </ul>
2019	인증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올바름」	중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키워, 건강하고 멋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li> <li>-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 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등 10개의 인성 요인별로 활동을 구성</li> </ul>
2019	인증	법무부 보호정책과	마음 모아 톡톡 프로그램	중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증진하고, 도덕성 사회성 감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갈등과 폭력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li> <li>- 마음 모으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들로 구성</li> <li>- 행동 바꾸기: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게 하는 '역할극', 학습한 내용을 복습, 심화할 수 있는 놀이 형식의 '활동과 실천'으로 구성</li> </ul>

## 2) 외국의 사례1)

① 인성 교육을 틀 마련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 영국 버밍엄대학 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 School)

버밍엄대학 학교는 영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11~16세 학생들(7~11학년)이 다니는 버밍엄대학 부설 중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육 비전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하여 자신의 잠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특히 기본 역량으로서 인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버밍엄대학 학교의 인성 교육 운영 방안은 부설학교의 특성을 살려 버밍엄대학과 연계되어 있다. 이 학교는 버밍엄대학의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 센터와의 연계를

1)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0>에서 인용

통해, 교사-학생 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버밍엄대학 학교에서 정의하는 인성 교육이란 ‘덕’이라 불리는 긍정적인 개인의 힘을 개발하기 위한 외면적이고 내면적인 교육 활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여러 상황에서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으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버밍엄대학 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영국 민주주의의 가치, 법 적용, 개인의 자유, 상호존중과 타인에 대한 관용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이성(Good Sense)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현명함(Practical Wisdom)과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여 윤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 학교는 인성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버밍엄대학의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에서 만든 독특한 인성 교육 틀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도덕(Moral Virtues), 시민의식(Civic Virtues), 행실(Performance Virtues), 지덕(Intellectual Virtues)이라는 네 가지의 덕을 중심으로 동정심, 겸손, 세심함, 창의성, 호기심, 결단력, 회복력과 같은 가치들을 학생들이 습득하고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덕들은 교과 외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거듭 강조되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습득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네 가지 덕을 통한 최종 목표는 바로 개인과 사회의 번영에 있다. 개인의 번영은 인간이 달성해야 할 삶의 목표로, 행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② 인성 교육 목표 설정 및 학교에서의 실천: 캐나다 더럼 지구 교육위원회(Durham District School Board)

캐나다 더럼 지구 교육위원회(DDSB)는 Uxbridge, Brock, Scugog Townships 등의 농촌 지역과 Ajax, Whitby, Pickering, Oshawa 등의 도시지역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에는 131개의 초·중학교가 속해 있다. 위원회의 교육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참살이를 향상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성 교육은 학생들의 참살이와 리더십 등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속한 온타리오(Ontario)주와 캐나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인성 교육 지침을 따르고 있다.

더럼 지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온타리오 주와 캐나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성 교육의 개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모든 인간이 갖기를 바라는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학교를 통해 퍼지며, 사람들 간의 관계와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인성발달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기반이 된다(The Ministry of Education Canada, 2008). 구체적으로 인성발달의 목표를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 인간관계(Interpersonal)의 발전, 존중, 돌봄, 안전, 수용적인 학교 문화

형성, 행동 문제 감소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에 제시한 외국의 두 가지 사례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인성을 하나의 역량으로 규정하고, 역량이 갖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표를 가진 인성 교육 틀을 마련하거나(영국 사례), 단위 지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열 가지 핵심 인성을 개념으로 정립해 학교 현장에 제시하고 있다(캐나다 사례).

영국 버밍엄대학 학교는 이를 대학 부속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캐나다 더럼 지구는 교육부와 주 단위에서 제시한 인성 교육의 개념을 지구 단위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학교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원 활동이다. 학습 역량은 기본적으로 교육 목표와 연계된 거시적 관점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정립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체계로 보면 총론에 해당한다. 총론과 각론의 세부 요소까지 제안하는 현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체계(Maximum Curriculum)를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육 목표와 성취 수준을 제공(Minimum Curriculum)하고, 구체적인 목표나 기준은 단위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정립하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처럼 연구기관이든 지구 단위(교육청 단위)이든 구체적인 역량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면 학교는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버밍엄대학 학교의 경우 교과 수업시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인성 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숙지하고, 학생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학 교과 수업에서 과학 원리와 과학자에 대한 관심을 호기심과 존경 등의 인성 가치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한 것이 한 사례이다. 또한 인성 교육의 특성상 프로젝트나 교과 외 시간을 활용한 활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인 캠페인성 활동이 아니라 지속해서 교과 수업 목표를 인성 교육 활동과 연계시키기 위한 교수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10대 노숙 관련 인성 교육 프로젝트 활동을 영어 교과 내 관련 내용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지속가능성과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제공이다. 영국 버밍엄대학 학교에서 추진하는 매주, 매일 이루어지는 학습 성찰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캐나다 더럼 지구 내 인성 교육 활동은 경험 중심의 학생 참여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하는 사례로써 의미를 가진다.

### 3. 청소년의 언어문화와 인성 교육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데에 있

다. 청소년 언어문화 현상을 조사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왜곡된 청소년 언어문화가 청소년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가운데 사이버 폭력이 34.9%, 성적 모독이 20.7% 등으로 나타나 언어와 관련된 폭력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인성 교육 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천세영 외, 2012: 29-30).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점차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 따돌림(17.2%)과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 폭행(10.0%) 등이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은 2016년과 2017년 대비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교육부, 2018). 이는 청소년의 왜곡된 언어문화가 청소년의 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왜곡된 언어문화가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청소년의 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언어문화와 인성의 이와 같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언어문화와 인성 교육을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물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기존의 인성 교육이 가치 중심의 당위론의 차원에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데에 기인한다. 기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대개 ‘위협 소구(fear appeal)’ 전략을 사용한다. 욕설이 일상화된 학교 문화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욕설이 학생들의 심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험과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후 학생의 행동 변화를 일어나도록 설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김평원, 2017: 12). 그러나 인성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 언어문화를 대상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인 실천의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어 교과는 청소년의 인성 교육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의 언어를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탐색할 때 이는 교육적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독자성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간접적으로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되기(최영환, 2003) 때문이다.

청소년의 언어문화와 인성 교육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박인기 외(2012)가 대표적이다. 박인기 외(2012)에서는 욕설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불량언어’ 사용 현상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심리적 기제 충위, 언어 사용 환경상의 원인, 사회문화적 충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억압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 낮은 자존감, 좌절의 상처와 불신, 영웅심과 공격심 등의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구어 중심의 언어, 시각 중심의 텍스트, 어법 이탈의 언어생활, 소통 환경의 변화와 감성 지향의 텍스트 환경, 편견의 문화 등 언어 사용 환경상의 원인으로 인해 소위 ‘불량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이와 같은 언

어문화에는 대중 미디어, 가정 해체와 소외, 폭력 문화, 또래 집단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소년의 언어문화가 이와 같이 다양한 기제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박인기 외(2012)에서는 제도 및 체제 개선 면에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언어문화 관련주요 지표를 개발하며, 청소년 언어폭력 상담 시스템 구축을, 가정·사회·학교의 연계 연대 정책으로, 불량언어를 생성하고 습득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연대 활동을 강화하며,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청소년 언어 교육 및 의식 개선을 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교 교육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언어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적 파급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언어문화 개선 우수 사례의 개발과 전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제안은 청소년 언어문화 정책이 일회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튼실한 법과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 청소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때에 인성 교육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한편, 박영민 외(2012)에서는 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훈화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성 교육을 태도와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제하에,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인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 결과로,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과 인성 교육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자 한 시도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의 언어문화에 대한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아 청소년 언어문화의 실태 및 청소년의 언어적 요구에 기반하여 인성 교육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모색한 결과물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언어문화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과 인성 함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구성된 이 연구의 결과물은 청소년의 실제 언어문화에 기반한 인성 교육에 대한 접근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 Ⅲ.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 1.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 및 수정, 보완

##### 가.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및 요구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 자료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청소년의 언어문화 실태가 무엇이고 언어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의사소통 대상, 의사소통 목적,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개별 하위 집단에 따라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민병곤 외, 2015; 민병곤 외, 2016; 정혜승 외, 2017).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 외모, 운동 실력 등에 따른 서열 의식이 담긴 언어, 성차별적 언어 등 차별적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서열 의식의 해소
- 부모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 및 갈등에 대한 탐색 및 해결 방안 모색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탐색
- 언어의 기능 및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있는 언어생활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러한 내용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 서열 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 갈등을 해결하는 언어, 공감과 배려의 언어,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한 성찰을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주된 의사소통 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하되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규 교과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 수업, 학교 밖 청소년 체험 학습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흥미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흥미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편견이 담긴 언어, 타인에 대한 공격적 인식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청

소년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제적 상황 이외에도 언어의 영향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례, 누군가의 말이 위로가 되었던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언어가 갖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 또는 친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안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상황,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 등 학교 밖 어른들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상 텍스트에 친숙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자료의 차원에서 문어 텍스트, 구어 텍스트, 영상 텍스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 나. 학교급별 중점을 구분한 맞춤형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언어문화와 중등학생의 언어문화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동시에 학교급별로 중점을 달리 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친구를 얹잡아 보는 생각이 담긴 말’, ‘엇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한마디 말의 힘’을, 중등에서는 ‘남자, 여자 혹은 나’, ‘사람의 높고 낮음’, ‘지금, 마음을 담아’,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성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는 말이나 사람에 대한 서열 의식을 담고 있는 말은 청소년의 언어문화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적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음(민병곤 외, 2015; 민병곤 외, 2016; 정혜승 외, 2017)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의 공통적인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차별적 언어와 서열 의식을 담은 언어가 학교급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청소년의 언어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부모님과의 대화나 온라인 대화도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언어문화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학교급에 따라 학생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위계화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컨대 서열 의식을 담은 말을 다루는 경우, 서열 의식에 대한 학생의 경험과 이해가 학교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초등에서는 ‘친구를 얹잡아 보는 생각이 담긴 말’로 중등에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으로 차별화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대화는 초등에서는 ‘엇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중등에서는 ‘지금, 마음을 담아’로, 온라인 대화는 초등에서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중등에서는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로 차별화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학교급을 고려하여 특정 학교급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중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학교 밖 어른들과 의사소통하는 상황이 빈번함을 고려하여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중등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대화 태도가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언어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 다. 현장 적합도를 제고한 모듈형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청소년의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시수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0분, 중등학교 45분 분량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각 차시를 학습 요소별로 구분하여 모듈형으로 제시하여 현장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차시는 대주제(big idea)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지식체계의 이해를 통해 지식 간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 차시는 차시별로 선정된 대주제(big idea)를 바탕으로 모듈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모듈은 개별 수업에서 학생이 인지 영역과 수행 영역 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모듈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구성 요인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서로 그 내용에 있어 연계성을 가지는 동시에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는 독립성을 확보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주제를 통해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실 상황에 따라 각 모듈을 조합하여 교육 내용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을 기본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교사에게는 워크북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교사가 참조할 수 있는 수업 활동에 대한 해설을 함께 제공하였다. 수업 활동에 대한 해설은 활동 구성의 의도, 학생 활동에 대해 예상되는 답안, 학생 활동의 예시, 학생이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교정 예시, 지도시의 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학생에게 낯선 개념을 제시하여 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구체적인 개념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교사의 설명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는 교사가 그대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문을 그대로 실거나 연결 주소를 제시하였다.

#### 라. 2018년 개발한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한 정합성 높은 자료

이 연구에서는 김대희 외(2018)에서 개발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인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를 재구성 및 수정·보완하여 다양한 차시 및 주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재구성 및 수정·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수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청소년의 실제 요구와 언어사용 양상에 기반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청소년의 언어문화와 인성 교육의 연계를 모색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올바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전이 가능성을 제고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우선 청소년의 언어 사용 양상 파악을 위하여 기존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요구 및 실제 요구를 고려하여 지식 중심이 아닌 학생의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언어적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과 함께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실제 언어 체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게 되며 이는 인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학교 안팎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전이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집필진으로 초·중등 교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교수 및 교사 또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 2.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에 관한 연구(민병곤 외 2016; 정혜승 외 2017)에서 드러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언어문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언어 사용에 관한 각종 연구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때 주입식 활동이나 태도 전환 교육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언어문화 향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고안하였다.

## 가. 초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조사(민병곤 외 2016; 정혜승 외 2017)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나이에 기반을 두어 상대를 서열적으로 평가하고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열 의식이 담긴 언어’와 ‘성차별적 언어’를 다룸으로써 차별적 언어 사용에 내재한 나이, 외모, 성별 등에 대한 의식을 해소하고 잘못된 고정 관념을 짚어주고자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가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매체가 청소년의 삶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폭력의 사례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 영역을 만들어 가고 친구들과 관계적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감과 배려의 언어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대화를 통해 친구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의사소통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과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초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

차시	수업 내용	주요 내용	진행 방법 및 과정	준비물	유의 사항
1-2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 의식 인식하기</li> <li>• 서열 의식에 담긴 문제점 이해하기</li> <li>• 서열 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활동] 서열 의식의 의미 이해하기</li> <li>2. [모둠 활동] 서열 의식 점검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 의식 인식하기</li> <li>3. [모둠 활동] 서열 의식이 담긴 대화 상황에서 서열 의식이 담긴 말을 찾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4. [전체 활동] 내가 가진 서열 의식을 나에게 적용해 보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필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나머지 활동을 진행</li> <li>• 서열 의식이 가진 폭력성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옴을 인식으로 나아가도록 지도</li> </ul>
2-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표현을 일상 대화 상황 속에서 찾기</li> <li>•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 이해하기</li> <li>• 성차별적 표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둠 활동] ‘몸으로 말해요’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성차별적 편견 인식하기</li> <li>2. [모둠 활동]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담긴 텍스트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필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성과 여성에 골고루 초점을 맞추어 진행</li> <li>•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에 대한 강요가 칭찬하는 방식의 온정적 방식으로 나타남을 이해하도록 지도</li> </ul>

		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3. [모둠 활동] 칭찬하는 방식으로 성별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말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4. [전체 활동] 성차별에 맞서는 한 마디 쓰기		
3-4	영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과 대화에서 발생하는 갈등 인식하기</li> <li>부모님과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이해하기</li> <li>부모님의 고마움과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 전달하기</li> </ul>	1. [전체 활동] 동영상 보고 부모님과의 대화 방식에서 잘못된 점 생각해 보기 2. [모둠 활동] 부모님께 상처받은 말, 부모님께 상처 준 말, 부모님께 감동받은 말을 순서대로 붙임 쪽지에 적어 그 내용을 나누기 3. [전체 활동] 비슷한 사연을 모아 정리하고 가장 공감 가는 말, 가장 감동받은 말 선정하기 4. [전체 활동]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사랑의 한마디를 적고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li> <li>필기구</li> <li>붙임 쪽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에게서 들은 부정적인 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부모님께 한 말과 함께 부모님께 들었던 긍정적인 말들을 균형 있게 다루며 진행</li> </ul>
5-6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 점검하기</li> <li>잘못된 온라인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기</li> <li>올바른 온라인 언어 사용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li> </ul>	1. [전체 활동] 동영상을 시청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전염병의 정체를 생각하기 2. [모둠 활동]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를 찾아 증상을 써 보고, 피해자 카드를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해 보기 3. [모둠 활동]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쓰기 4. [전체 활동] 최고의 답변 골라 백신으로 바이러스 치료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li> <li>필기구</li> <li>바이러스 카드</li> <li>피해자 카드</li> <li>붙임 쪽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는 수업 시작 전에 바이러스 카드를 교실 곳곳에 숨겨 두고 수업을 진행</li> <li>바이러스와 백신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면 '병원'이나 '치료약'과 같은 말을 사용</li> </ul>
7-8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기</li> <li>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li> <li>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말하기</li> </ul>	1. [개인 활동] 수필 '언어의 온도' 서문 감상하고 내용 파악하기 2. [전체 활동] 모두 동그렇게 둘러앉아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 나누기 3. [전체 활동] 친구의 경험을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 4. [전체 활동]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li> <li>필기구</li> <li>사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급 구성원 전체가 동그렇게 둘러앉도록 하여 대화적 분위기를 형성</li> <li>상대의 경험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진심을 담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li> </ul>

초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일부 교재와 지도안이다.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을 다룬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모둠 활동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학습 목표

-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준비 활동** 영상을 보고, 다음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해 봅시다.



- (1) 영상에서 말하는 '전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2) 이 '전염병'은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 또는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 (3) 청소년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 학생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1) 여러분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는 과학자입니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언어문화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 곳곳에 숨겨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2) 다음의 분석 카드를 순서대로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어 봅시다.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1) 여러분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는 과학자입니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언어문화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 곳곳에 숨겨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2) 다음의 분석 카드를 순서대로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어 봅시다.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았으니 이제 백신(치료약)을 만들어 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백신을 만들어 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과 글이 바이러스로 퍼져 전염병이 되었듯이

고운 말, 용기 있는 글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퇴치! 백신(치료약) 만들기

- ❶ 모둠에서 퇴치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하나 선택합니다.
- ❷ 친구들과 상의하여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합니다.
- ❸ 바이러스에 걸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각자 적습니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요?

❖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

###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퇴치! 백신(치료약) 만들기

- ❶ 모둠에서 퇴치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다시 선택합니다.
- ❷ 친구들과 상의하여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합니다.
- ❸ 바이러스에 걸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각자 적습니다.

☐  


☐  


☐  


☐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요?

❖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3) 모둠원과 답변을 공유한 뒤, '최고의 답변'을 고르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이름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곳

❖ 최고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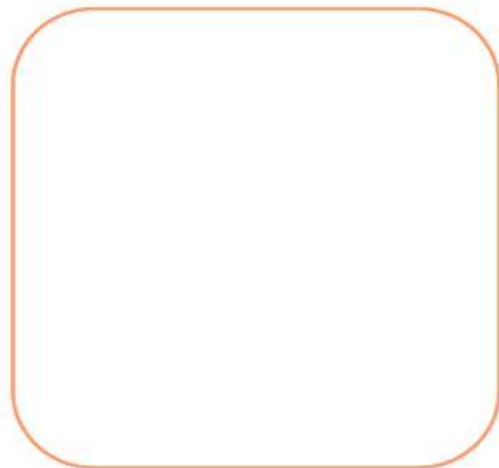
❖ 최고의 답변으로 선택한 이유

**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



**(1)** 바이러스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2)** 이러한 말을 떠올린 이유, 또는 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가치·덕목: 정직, 책임】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폭력의 사례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속성을 지닌다. 영상을 통해 언어폭력이 온라인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그 특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심각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교사가 전달해 주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언어폭력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구하고 올바른 온라인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 학습 목표

-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차시
도입 [인식]	<b>【준비 활동】 전염병 발생! 병의 정체를 밝혀라</b> <b>【학습 목표 확인하기】</b>	1차시
전개 [실제]	<b>【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b> <b>【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b>	
정리 [성찰]	<b>【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b>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2차시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준비 활동】** 전염병 발생! 병의 정체를 밝혀라

① 온라인 언어폭력에 관한 공익 광고(34초)를 시청한다.

- <사이버 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URL: [https://youtu.be/jDhdm\\_5oilw](https://youtu.be/jDhdm_5oilw)

**활동 해설** 이 영상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죄의식 없이 욕설, 인신공격, 저주, 비방 같은 언어폭력을 하는 현상을 ‘전염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단체 대화방,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이메일, 개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한다.

공익 광고의 대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 **다양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항상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손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손 씻으세요. 당신의 깨끗한 손으로 사이버 폭력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 ② 교사는 영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전염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온라인 언어폭력을 표현한 것임을 알려준다.
- ③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 또는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④ 청소년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온라인 언어폭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피해 학생의 심정은 어떠할지 간단히 의견을 나눈다.

**활동 해설** 이 활동에서는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내가 당한 적은 없는지, 반대로 내가 그러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했는지 등 학생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듣도록 한다. 이 활동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피해 유형 중 1위(34.5%)를 차지한 것이 ‘언어폭력’이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 비율이 더욱 증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초등학생들은 ‘재미있어서(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싫어서)’, ‘그냥 이유 없이’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다고 답하였다. 영상 속의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지 함께 논의하면서, 가해 학생들의 대수롭지 않은 행동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을 깨닫고 온라인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만든다.

❖ **【학습 목표 확인하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2) 전개

❖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 ① 교사는 미리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를 교실에 숨긴다.
- ② 4~6개의 모둠을 만든 후, 교실 속에 숨어 있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게 한다.

**활동 해설** 교실을 온라인 세상이라고 가정하고 교실 곳곳에 숨겨진 언어 바이러스를 찾는 활동이다. 수업 전 교사는 미리 모둠 수에 맞춰 언어 바이러스 카드를 복사하여 교실에 숨겨 놓는다.

교사는 “여러분, 영상 속에 나왔던 전염병을 일으키는 언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교실에 퍼져 있어요. 교실 곳곳에 숨겨진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모둠별로 한 장씩 나눠 봅시다.”라고 말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게 한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5개의 모둠이라면, 한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숨긴 장소에 5개 카드를 모두 두어 카드를 찾은 학생이 다른 모둠과 나누어 갖도록 만든다.

- ③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 활동지 ①을 채운다.

**활동 해설** 네 개의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는 각각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을 의미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
- 사이버 모욕: 사이버 공간에서 남에게 모욕을 주는 말이나 욕설을 남기는 것
- 사이버 따돌림: 전자 매체를 통해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 괴롭힘을 가하는 것(떼카, 방폭, 카톡 감옥, 카톡 유령, 페따)
-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 ④ 교사는 모둠별로 각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피해자 카드를 나누어 준다.
- ⑤ 피해자 카드를 모두 받으면,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지 활동지 ②번을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의논하여 적는다.

**활동 해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가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재미있어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 속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처럼,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이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 입을 것이라 쉽게 예상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전달한다. 예를 들어 학교 앞 핫도그 가게가 벌레로 핫도그를 만든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그 가게가 결국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 ⑥ 모둠 대표를 선정한 뒤,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 ❖ 【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

- ① 온라인 언어폭력을 방관했던 주인공이 용기를 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2분 25초)을 시청한다.
-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URL: <https://youtu.be/inTtUuhDjrQ>
- ② 교사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한 뒤, 활동지 (1)의 내용을 큰 목소리로 읽게 한다.
- ③ 모둠 대표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순서에 따라 교사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두 개씩 나누어 배정하여 모둠끼리 겹치지 않게 한다. 한 모둠당 총 두 개의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활동 해설**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바이러스’와 ‘백신’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병원’과 ‘치료약’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총 네 개이므로 수업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남을 경우 네 가지 백신을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한다.

[활동 2]에서 ‘단체 대화방,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하여 적게 하는 것은 상황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 유발]과 [활동 1]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본인 또는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답변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배정받은 바이러스 중 하나를 활동지에 표시한다.
- ⑤ 모둠원과 상의하여 단체 대화방,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한다.
- ⑥ 바이러스에 걸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각자 적는다.
- ⑦ ④~⑥의 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하여 총 두 개의 백신을 만든다.
- ⑧ 모둠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최고의 답변’을 고른다. ‘최고의 답변’으로 고른 이유와 함께 각 모둠별로 해당 내용을 발표한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

- ① 교사는 <사랑의 백신 판>을 칠판에 붙이고 학생들에게 붙임쪽지를 두 장씩 나누어 준다.
- ② 【활동 2】에서 모둠별로 배정받은 바이러스와 해당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다시 떠올린다.
- ③ 바이러스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붙임쪽지에 적고, 그러한 말을 전하고 싶은 이유를 활동지에 적는다.
- ④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언어 표현을 모아 분류한 뒤, 인상 깊은 것을 중심으로 읽어주고 해당 학생이 그러한 말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7-8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언어 바이러스 카드 (모둠 당 1장씩)
2. 피해자 카드 (모둠 당 1장씩)
3. 사랑의 백신 판 (1장)
4. 사랑의 백신 쪽지 (인당 1장)



나는 거짓말을 좋아해.  
내가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학교 앞 핫도그 가게가 밀레로 핫도그를 만든다고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된단다.  
물론 밀레가 아니고 김은혜였지만 알게 뭐야? 하하하!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이랑 여행가서  
있던 캐릭터 볼펜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해.



나는 욕하는 게 재밌어.  
내가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예인 SNS에 들어가서 욕설이나 막말을 쏟아붓지.  
악플을 텐데 욕 좀 들었다고 힘들어 하겠어?  
인터넷 개인을 할 때도 심한 욕설을 하지.  
요즘엔 브이로그에서 실시간으로 악플을 달기도 해.  
어차피 네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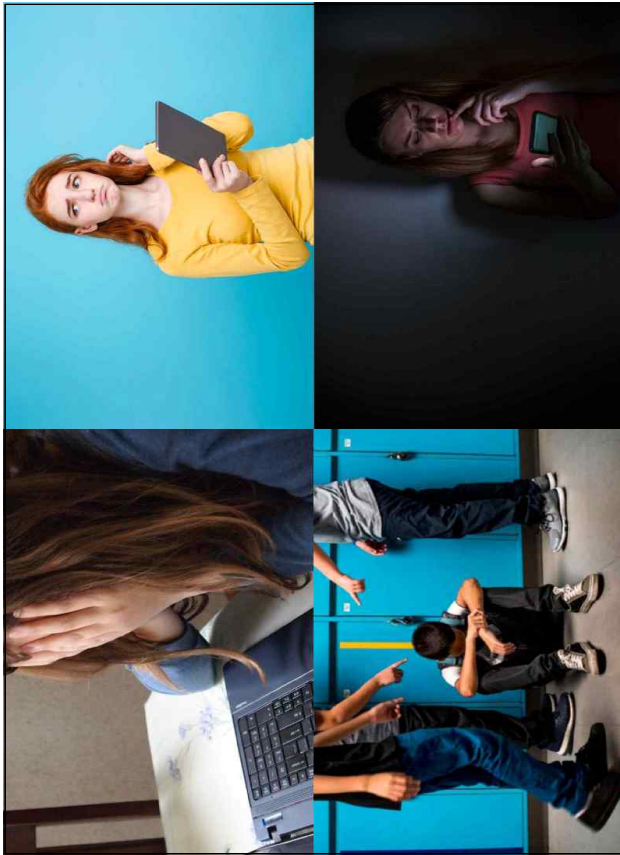
나는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내가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괴롭히고 싶은 친구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갈욕을 만들고 한꺼번에 욕을 하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고 놀리기도 해.  
어쨌든 한 명을 괴롭히면 괜히 우물쭈물해서  
더 심한 말을 하게 된다니까? 해해해!



나는 무섭게 위협하는 걸 좋아.  
내가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예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일반인까지 않고  
관심이 생기면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을 걸어  
같이 먹겠다고 하면서 무서운 사진도 보내.  
자단해도 소용없어, 계속해서 보낼 거니까.  
뭐 어때? 참나친 건데. 흐흐흐~



잘 쓰면 약이 됩니다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변화가 육체 아닌 마음을 만들고 아름다운 SNS 공간을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kobac

[1]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1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화색 점선 박스가 있는 11면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화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간에 넣어 [2]면을 인쇄합니다.

[2]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1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화색 점선 박스가 있는 11면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화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간에 넣어 [2]면을 인쇄합니다.

## 나. 중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

중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서열 의식이 담긴 언어’, ‘성차별적 언어’, ‘부모님과 대화’, ‘타인과의 대화’, ‘온라인에서의 언어 사용’, ‘공감과 배려의 언어 사용’이라는 여섯 가지의 주제를 다룬다.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에 관한 연구(민병곤 외 2016; 정혜승 외 2017)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성적에 기반을 두고 자기 자신 또는 상대를 평가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성세대나 미디어로부터 구성된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중등학생용 프로그램에서도 ‘서열 의식이 담긴 언어’와 ‘성차별적 언어’를 동일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등학생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적고 공부 또는 생활 습관에 관한 대화가 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모님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낯선 사람과 마주할 때 예의와 배려가 담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과의 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온라인 매체 사용 시간이 많고, 온라인 매체에 사용되는 언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공격적 언어를 사용을 지양하고 온라인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배려의 언어 사용’에 관한 활동을 구성하여 말의 힘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언어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표 5>는 중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과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중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

차시	수업 내용	주요 내용	진행 방법 및 과정	준비물	유의사항
1-2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 의식 인식하기</li> <li>서열 의식에 담긴 문제점 이해하기</li> <li>서열 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활동] 서열 의식의 의미 이해하기</li> <li>[모둠 활동] 서열 의식 점검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 의식 인식하기</li> <li>[모둠 활동] 서열 의식이 담긴 대화 상황에서 서열 의식이 담긴 말을 찾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전체 활동] 내가 가진 서열 의식을 나에게 적용해 보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li> <li>필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열 의식이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추동하는 의식이라는 문제의식 강조</li> <li>서열 의식의 폭력성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옴을 인식으로 나아가도록 지도</li> </ul>
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차별적 표현을 일상 대화 상황 속에서 찾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 활동] 상처 빙고를 통해 마음에 상처로 남은 성차별적</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li> <li>필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에 초점을 맞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 이해하기</li> <li>• 성차별적 표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li> </ul>	표현 나누기 2. [모둠 활동] 성차별적 표현을 들었던 상황을 대본으로 써보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 3. [전체 활동] 동영상 시청 후,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써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카드</li> </ul>	지 않고 남성과 여성에 골고루 초점을 맞추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차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지도</li> </ul>
4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와 태도 인식하기</li> <li>•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기</li> <li>• 부모님께 고마움과 사랑 표현하기</li> </ul>	1. [전체 활동] 부모님과 갈등 경험 떠올리고 대화 방식의 문제 찾기 2. [전체 활동] 부모님께 상처받은 말, 후회하는 말을 붙임 쪽지에 적어 붙이고 부모님의 심정 생각해 보기 3. [전체 활동] 부모님께 들었던 감동적이고 따뜻한 말 붙임 쪽지에 적어 나누기 4. [전체 활동]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사랑의 한마디를 적고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필기구</li> <li>• 붙임 쪽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에게서 들은 부정적인 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부모님께 한 말과 함께 부모님께 들었던 긍정적인 말들을 균형 있게 다루며 진행</li> </ul>
5-6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및 대화 상황 인식하기</li> <li>•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해하기</li> <li>•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언어 표현 사용하기</li> </ul>	1. [모둠 활동]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대화 상황 속에 나타난 관계 파악하기 2. [모둠 활동]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이해하기 3. [모둠 활동] 소통 카드 게임을 통해 대화 상대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협의하는 언어적 전략 마련하기 4. [모둠 활동] 소통 게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양한 언어적 전략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예방 대화법 설명서</li> <li>• 교재</li> <li>• 필기구</li> <li>• 소통 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대화 상대방과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도록 지도</li> <li>• 소통 카드 게임 진행 방법을 헛갈릴 수 있으므로 게임 진행 방법을 상세히 설명</li> </ul>
7-8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언어 활동의 파급력과 영향력 이해하기</li> <li>• 댓글의 다양한 목적과 기능 인식하기</li> <li>• 바람직한 온라인 언어 활동 실천하기</li> </ul>	1. [전체 활동]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싫어요'와 댓글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기 2. [모둠 활동]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예측하고, 댓글의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기준 인식하기 3. [모둠/전체 활동] 댓글 도전판에 직접 댓글을 달아 댓글왕 선별하기 4. [모둠 활동] 온라인 언어 지침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필기구</li> <li>• 댓글 도전판</li> <li>• 스티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li> <li>• 인터넷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li> </ul>

9-10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기</li> <li>•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li> <li>•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말하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 활동] 수필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감상하기</li> <li>2. [전체 활동] 모두 등그렇게 둘러앉아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말 나누기</li> <li>3. [전체 활동] 친구의 경험을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기</li> <li>4. [전체 활동]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li> <li>• 필기구</li> <li>• 사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구성원 전체가 동그랗게 둘러앉도록 하여 대화적 분위기를 형성</li> <li>• 상대의 경험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진심을 담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li> </ul>
------	-----------------	--	--	--	--

다음은 중등학생용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일부 교재와 지도안이다. 공감과 배려의 언어 사용을 다룬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힘을 얻었던 경험을 나누며 말의 힘을 인식하고 언어적 주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활동이다.

##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학습 목표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모두 둥그렇게 둘러 앉아,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 활동 1

앞서 추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며 아래의 글을 감상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 문장 정도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버릇이 있다. “뜨거운 물 좀 떠와라”는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때 만났던 청요릿집에서 보세”는 평소 좋아하던 원로 소설가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죄송스럽게도 두 분의 임종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들은 두 분이 내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

먼저 죽은 이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기억해두고 있는 말이 많다. “다음 만날 때에는 네가 좋아하는 종로에서 보자”라는 말은 분당의 어느 거리에서 헤어진 오래전 애인의 말이었고 “요즘 충무로에는 영화가 없어”는 이제는 연이 다해 자연스레 멀어진 전 직장 동료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 거리에서 스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짧은 눈빛으로 인사 정도를 하며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들 역시 그들의 유언이 된 셈이다.

역으로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날 하더라도 아침 업무회의 시간에 ‘전략’ ‘전멸’ 같이 알고 보면 끔찍한 뜻의 전쟁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검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인 유서처럼 그 수많은 유언들을 가득 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 박준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과 관련된 자신의 사연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 (1) 사연지 위 왼쪽에 자신의 닉네임을 쓴다. 자신의 사연인 게 공개되어도 좋다면 실명을 쓴다.
- (2) 사연지 위 오른쪽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이 아래 중에서 “어떤”말인지 적는다.
 

❶ 어떤 말은 두렵고: 두려운 말	❷ 어떤 말은 반갑고: 반가운 말
❸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아픈 말	❹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 있을 것: 설레는 말
❺ 기타: _____	
- (3)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자신의 사연을 적는다. 그 아래 상자는 비워 둔다.
- (4) 사연을 적을 때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적는다.
- (5) 사연을 다 작성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사연함에 넣는다.
- (6) 모두가 사연지를 사연함에 넣은 후, 동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연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 (7) 사연함을 받은 사람은 사연함에서 하나의 사연을 뽑고 사연자는 누구인지, 사연은 어떤 말에 대한 것인지, 사연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 (8) 사연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 (9) 자신이 뽑은 사연지를 챙겨 두고 다음 사람에게 사연함을 넘긴다.
- (10) 이런 방식으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을 하나씩 뽑아 소개한다.



## 활동 3

사연의 주인공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을 적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답글을 사연지 아래쪽 상자 안에 적는다.
- (2) 다 적은 후에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답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3) 답글 발표가 끝나면 사연지는 다시 접어 사연함에 넣고 사연함을 옆 친구에게 넘긴다.
- (4)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에 대한 답글을 나눈다.
- (5) 수업 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연지를 찾아 간다.





사연사:

‘어떤’ 말: \_\_\_\_\_ 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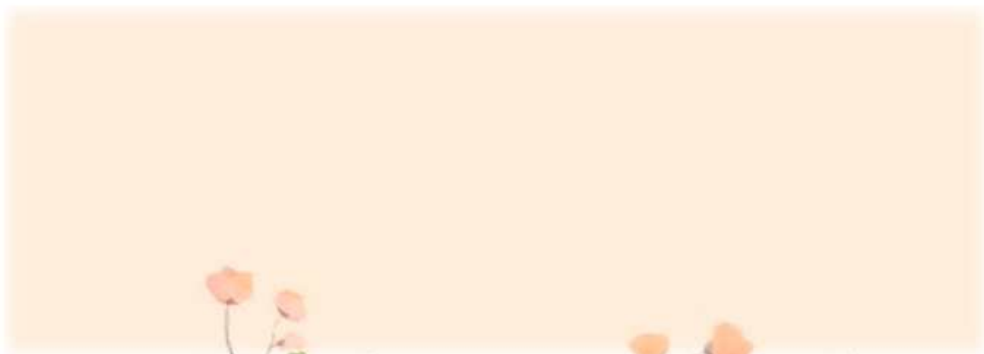
---

---

---

---

---





정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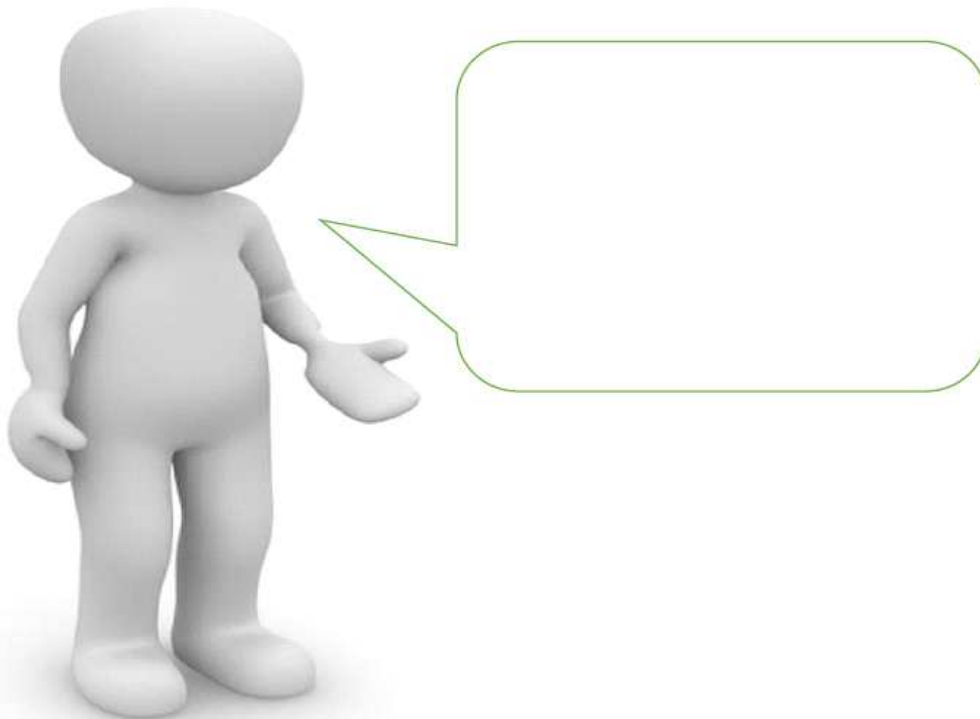
아래의 영상을 보고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5~74살에게 물었다〉

- (1) 먼 훗날 어른이 되어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적은 후, 아래 사람 모양 그림 위에 덧그려 표현해 봅시다.

- (2) 오늘 말에 대한 기억을 소개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내가 한 어떤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나요? 아래 말풍선 속에 적어 봅시다.



【핵심 가치·덕목: 공감, 책임】

#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 차시 개관

무심코 하는 사소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 이 차시에서는 책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글쓴이 박준)에 수록된 글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를 읽고,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말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자신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마디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한다. 말의 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며, 말에 대한 책임감은 언어적 주체성 형성의 기반이다.

## ■ 학습 목표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사연함(학년 전체 인원의 사연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10분)	<b>【학습 목표 확인】</b>  <b>【준비 활동】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해 보기</b> ① 말이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하기 ② ‘어떤’ 말이 죽지 않는지 추측하기	전체 활동	1차시
[실제] 전개 (60분)	<b>【활동 1】 &lt;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gt; 감상하기</b>	개인 활동	
	<b>【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 나누기</b> ①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사연 작성하여 사연함에 넣기 ② 동그렇게 둘러앉아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사연함에서 한 가지 사연을 뽑아 소개하고 사연에 대한 느낌 이야기하기	전체 활동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b>【활동 3】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말</b>	전체 활동	2차시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b>전내기</b> ①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 쓰기 ② 둥그렇게 둘러앉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자신이 적은 답글을 발표하고 사연함에 사연지 다시 넣기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b>[성찰]</b> <b>정리</b> (20분)	<b>【정리 활동】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나요?</b> 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영상 보고,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쓰기 ②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③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④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전체 활동</b> ① 개인 활동 ②-④: 전체 활동	

#### 학습지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작 활동



모둠 내 활동



모둠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해 보기

① 우선 이 시간 활동을 위해 반 전체가 둥그렇게 둘러 앉는다.

**활동 해설** 【활동 1】까지는 둥그렇게 앉지 않은 상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활동 1】을 마친 이후에 둥그렇게 앉을 수도 있다. 다만 【활동 1】을 마치는 시점이 수업 중반부이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준비 활동 전에 해 두는 것이 좋다. 책상을 가운데로 모아 책상을 둘러싸고 앉거나 혹은 책상을 모두 치우고 바닥에 둥그렇게 앉아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평소 교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던 교실의 분위기를 대화적 공간으로 전환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둥그렇게 앉는 것이 불가능한 교실 구조가 아니라면 반드시 둥그렇게 둘러앉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박준의 의 책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에 수록된 글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를 읽기 전에, 언어에 온도가 있다면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해 본다.

(1) 말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상 답안 1) 잊을 수 없다, 감동적이다, 상처이다 등

(2) ‘어떤’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 답안 2) 감동적인, 충격적인, 뜻밖의 등

### (2) 전개

❖ **【활동 1】**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읽고 내용 파악하기

❖ 【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 나누기

**활동 해설** 학습자들이 사연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후 있을 학습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한다. 익명으로 작성하기는 하지만 사연지에 적을 사연이 학급 전체에 소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수업의 성공과 실패는 대화적 분위기 형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수필을 읽는 동안 차분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 두고, 사연을 나누는 동안에도 잔잔한 음악이 들리도록 하는 것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① 교재 4쪽의 사연지를 나누어 갖고 사연지 가장 위쪽에 자신의 별명(닉네임)을 쓴다. 이때 자신의 사연인 게 공개되어도 좋다면 실명을 쓸 수도 있다.

**활동 해설** 사연자의 이름을 별칭으로 적으면 사연을 소개하는 발표자도 사연자를 호칭하기 쉽고, 해당 사연을 적은 사연의 주인도 자신의 사연이 뽑혔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별칭을 지어 부르는 과정 자체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된다.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사연을 다시 찾아갈 때도 자신의 사연지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며, 학급 구성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며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사연지 위 오른쪽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이 아래 중에서 “어떤” 말인지 적는다.

- ① 어떤 말은 두렵고:두려운 말
- ② 어떤 말은 반갑고:반가운 말
- ③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아픈 말
- ④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 있을 것
- ⑤ 기타: \_\_\_\_\_

- ③ 줄이 그어져 있는 공간에 자신의 사연을 적는다. 그 아래의 상자는 비워 둔다.

- ④ 사연을 적을 때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적는다.

**활동 해설** 누구나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뿐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떠올리기는 막막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말에 대한 경험을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사연을 작성하게 한다.

- ⑤ 사연을 다 작성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사연함에 넣는다.
- ⑥ 사연이 다 모이면 등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연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 ⑦ 사연함을 받은 사람은 사연함에서 하나의 사연을 뽑고 사연자는 누구인지, 사연은 어떤 말에 대한 것인지, 사연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활동 해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의 입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은 통해 경험을 나누는 대화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어 준다. 또한, 학습자는 타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신이 소개할 사연 주인공의 입장에 더 진지하게 공감할 수 있다.

사연을 직접 뽑는 활동을 자신이 뽑은 사연은 주인공이 누구인 줄 모르는 상황은 평소라면 대화하지 않았을 반 친구들과의 소통을 시작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매번 사연을 뽑을 때마다 자기의 사연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자칫 피상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험 나누기에 재미를 더해 주고자 하였다.

- ⑧ 사연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 ⑨ 사연 소개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사연지를 챙겨 두고 다음 사람에게 사연함을 넘긴다.
- ⑩ 이런 방식으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하나씩 사연을 뽑아 소개한다

❖ 【활동 3】

- ①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을 사연지 아래쪽 상자 안에 적는다.
- ② 적은 후에는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답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③ 답글 발표가 끝나면 사연지는 다시 접어 사연함에 넣고 사연함을 옆 친구에게 넘긴다.
- ④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에 대한 답글을 나눈다.
- ⑤ 수업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연지를 찾아간다.

(3) 정리

❖ 【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만들기

- ① 다 함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영상을 시청한다.
  - 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ACrsYKfkpI>
- ②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 지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적은 후 학습지의 사람 모양 그림 위에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본다.
- ③ 오늘 말에 대한 기억을 소개했던 것처럼 친구가 내가 한 어떤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말풍선 속에 적어 넣는다.
- ④ (1)~(2)의 답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지 발표한다.

**활동 해설** 【활동 2】, 【활동 3】이 본 차시의 중심 활동이므로, 앞선 두 활동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활동 4】의 내용을 발표하는 단계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다만 앞선 활동이 비교적 빨리 끝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활동 4】에서 작성한 내용도 돌아가며 한 사람씩 발표해 보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책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다음 <표 6>은 2018년 개발한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와 2019년 이 연구에서 개발한 ‘바르게 곱게 함께’와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을 비교·대조한 표이다.

<표 6> 2018년과 2019년 개발 프로그램의 비교·대조표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2018)		바르게 곱게 함께 (2019)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2019)		주요 수정 보완 사항
초등학교	<p>[1 주제] 나는 그냥 나다울 뿐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유발】 ‘~답게’, ‘~처럼’, ‘~같이’ 품으로 말해요!</li> <li>【활동 1】 ‘여자다움/남자다움’에 대한 강요 및 비하가 담긴 텍스트 비판적으로 분석하기</li> <li>【활동 2】 성차별적인 말에 맞서는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활동 3】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li> </ul>	초등학교	<p>[2 주제]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유발】 ‘~답게’, ‘~처럼’, ‘~같이’ 품으로 말해요!</li> <li>【활동 1】 ‘여자다움/남자다움’에 대한 강요 및 비하가 담긴 텍스트를 비판적 분석 후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활동 2】 칭찬·공정하는 방식으로 ‘여자다움/남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고쳐보기</li> <li>【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li> </ul>	중학교	<p>[2 주제] 남자, 여자 혹은 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유발】 상처 빙고! 내게 상처를 준 성차별적 표현들</li> <li>【활동 1】 성차별적 표현에 맞설 수 있는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li> </ul>	<p>✓ 초등 차시 확대, 남성 에 대한 차별을 담은 동영상, 온 정적 차별에 대 한 내용 추가</p> <p>✓ 중등 자기 경험 중심 활동으로 수정, 남성에 대한 차 별을 담은 동영상 추가</p>
	<p>[2 주제] 영킨 대화를 푸는 한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1】 TV 속 장면 보기: 부모님과 소통, 잘하고 있나요?</li> <li>【활동 2】 부모님과 영킨 대화 적기</li> <li>【활동 3】 부모님에게 전하는 한마디</li> </ul>		<p>[3 주제] 영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엄마·아빠와의 소통, 잘하고 있나요?</li> <li>【활동 1】 엄마, 아빠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li> <li>【활동 2】 엄마, 아빠 내 말에 상처받았어요?</li> <li>【활동 3】 엄마, 아빠 말에 감동 받았어요!</li> <li>【활동 4】 엄마·아빠에게 전하지 못한 말</li> <li>【정리 활동】 엄마·아빠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li> </ul>		<p>[3 주제]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엄마·아빠와의 영킨 대화</li> <li>【활동 1】 안과 밖이 다른 가족</li> <li>【활동 2】 가장 상처받은 말, 가장 후회되는 말</li> <li>【활동 3】 가장 감동적인 말</li> <li>【정리 활동】 엄마·아빠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li> </ul>	<p>✓ 초등 차시 확대, 초등 학교 학생들이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 로 텍스트 교체</p> <p>✓ 중등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 판이 담긴 영상 텍스트 추가</p>
중학교	<p>[3 주제] 똑똑똑, 서열 의식 점점 나왔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1】 서열 의식 점검표로 자신의 서열 의식 점검하기</li> <li>【활동 2】 다양한 서열 의식이 나타나는 대화 상황 비판적으로 분석하기</li> <li>【활동 3】 서열 의식이 담긴 폭력적 언어 표현에 맞서기</li> <li>【활동 4】 내가 가진 서열 의식을 나에게 적용해 보기</li> </ul>	중학교	<p>[1 주제]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유발】 서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 찾아 보기</li> <li>【활동 1】 서열 의식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서열 의식 인식하기</li> <li>【활동 2】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대화 상황을 비판적 분석 후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정리 활동】 내가 가진 서열 의식을 내게 적용하기</li> </ul>	중학교	<p>[1 주제] 사람을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서열 의식의 의미 이해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 찾아 보기</li> <li>【활동 1】 서열 의식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서열 의식 인식하기</li> <li>【활동 2】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대화 상황을 비판적 분석 후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li> <li>【정리 활동】 내가 가진 서열 의식을 내게 적용하기</li> </ul>	<p>✓ 초등 차시 확대, 초등 학교급에 맞추 어 텍스트 난이 도 하향 조정 및 추가</p> <p>✓ 중등 차시 확대, 텍스 트 추가</p>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2018)		바르게 곱게 함께 (2019)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2019)	주요 수정 보완 사항
중 학 교	<p>[4 주제]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1】 “폐북 ‘좋아요’ 늘렸다고 명예훼손이냐?”</li> <li>【활동 2】 왜 ‘좋아요’? 왜 ‘싫어요’?</li> <li>【활동 3】 베댓이 제일 쉬웠어요</li> <li>【활동 4】 내가 정하는 인터넷 언어 사용법</li> </ul>	초 등 학 교	<p>[4 주제]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전염병 발생! 병의 정체를 밝혀라</li> <li>【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li> <li>【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li> <li>【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li> </ul>	<p>[4 주제]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좋아요’ 늘렸다고 명예훼손이냐?</li> <li>【활동 1】 최고의 댓글을 찾아라</li> <li>【활동 2】 왜 ‘좋아요’? 왜 ‘싫어요’?</li> <li>【활동 3】 댓글왕 선발 대회: 우리가 만드는 최고의 댓글, 최악의 댓글</li> <li>【정리 활동】 내가 정하는 온라인 언어 사용법</li> </ul>	<p>✓ 초등 차시 확대, 초등학교 학습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형식으로 차시 신설</p> <p>✓ 중등 차시 확대</p>
	<p>[5 주제]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유발】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하기</li> <li>【활동 1】 &lt;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gt;를 읽고, ‘마음속에 살아남은 말’ 나누기</li> <li>【활동 2】 위로와 공감의 말 건네기</li> </ul>		<p>[5 주제]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 유발】 언어의 온도에 대해 상상해 보기</li> <li>【활동 1】 &lt;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gt; 읽고 내용 파악하기</li> <li>【활동 2】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 나누기</li> <li>【활동 3】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에 공감과 위로의 말 건네기</li> <li>【활동 4】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나요?</li> </ul>	<p>[5 주제]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해 보기</li> <li>【활동 1】 &lt;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gt; 감상하기</li> <li>【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 나누기</li> <li>【활동 3】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말 건네기</li> <li>【정리 활동】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나요?</li> </ul>	<p>✓ 초등 차시 확대, 초등 학교급에 맞추어 텍스트 난이도 하향 조정, 성찰 및 내면화를 위한 활동 추가</p> <p>✓ 중등 차시 확대, 성찰 및 내면화를 위한 활동 추가</p>
고 등 학 교	<p>[6 주제]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1】 타인과의 의사소통 살피기</li> <li>【활동 2】 소통 카드 만들기: 나의 의도 전달하기</li> <li>【활동 3】 소통 카드 게임 시작: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말은?</li> <li>【활동 4】 소통 카드 살피기</li> </ul>	초 등 학 교		<p>[6 주제]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 활동】 당신의 ‘대하다’에 배려를 더해 주세요.</li> <li>【활동 1】 낯선 사람과의 다양한 대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li> <li>【활동 2】 소통 카드 게임 준비! 게임 방법 파악하기</li> <li>【활동 3】 1차 소통 카드 게임 진행하기</li> <li>【활동 4】 2차 소통 카드 게임 진행하기</li> <li>【정리 활동】 게임 분석 보고서 만들기</li> </ul>	<p>✓ 초등 아르바이트나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 등 초등학교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유리되는 주제로 판단하여 삭제.</p> <p>✓ 중등 차시 확대 및 갈등 상황 텍스트 추가 및 구체화</p>

## IV.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 1.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팀, 교육 운영팀, 현장 연구 협력진, 자문위원단, 산학협력단으로 나누어 계획되었다. 프로그램 개발팀과 현장 연구 협력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운영팀에서는 참여 기관 선정, 강사 섭외 및 교육, 행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자문위원단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현장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고, 산학협력단에서는 행정과 연구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였다.

참여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총 15개 기관이 최종 신청하였으며 그 중 서울포이초등학교, 서울성수초등학교, 서울문덕초등학교, 서울강술초등학교, 서울잠실초등학교, 대전문창초등학교, 녹양중학교, 신도림중학교, 가재울중학교가 1학기 실시를 희망하였고 서울도림초등학교, 서울중대초등학교, 서울영림초등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는 2학기 실시를 희망하였다. 2학기 중학교 프로그램은 운영을 위해 대전송촌중학교와 프로그램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캐나다 지역의 한 학교도 섭외되었다. 추후 연구팀이 기관 담당자와 개별 연락하여 희망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다.

강사 선발은 여러 단계로 계획되었다. 먼저 우리말 꿈터 등 국립국어원 주관 여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강사와 연구팀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언어문화교육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 희망자에게 추천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 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 경험, 주요 경력 등을 검토하였다. 추후 개별 인터뷰를 활용하여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강사진이 선발되도록 하였다. 최종 선발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취지를 이해하고 수업 능력을 향상하며, 연구진과 강사 사이의 의견을 교환하는, 두 차례의 강사 연수회를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한 만족도 검사, 인성검사, 참여자(강사, 학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지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만 측정하였다(부록 참고). 인성검사는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목표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한 검사지로 실시하였다. 인성검사에 활용한 KEDI 검사지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도구로 인성과 관련한 모두 7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부록 참고). 참여 학생 인터뷰는 연구진에서 개발한 총 10차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각 학교마다 담당 교사의 추천에 의해 2~3명의

참여 학생을 선발하여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생 인터뷰는 프로그램의 효과, 실행의 어려운 점, 언어 개선의 관련성, 인성 교육과의 관련성,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기반으로 면담자가 질문의 순서, 범위, 속도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참여 학생들의 입장, 느낌, 의견을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 있게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강사 인터뷰는 프로그램 효과(예시,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학습 활동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어려운 점과 해결 방안,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제안, 학생 반응, 인성 교육 효과,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마련하여 모든 강사에게 서면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 2. 교육 운영팀 구성 및 강사 연수회 실시

강사 연수와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연구진 내에서 별도의 교육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다음은 교육 운영팀 구성 현황이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운영팀 사업 총괄: 방상호(공동연구원)</li> <li>■ 교육 운영팀 운영 요원: 조은영(보조연구원)</li> <li style="padding-left: 150px;">정혜현(보조연구원)</li> <li style="padding-left: 150px;">노하늘(보조연구원)</li> </ul> |
|--|

다음은 교육 운영팀을 중심으로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 강사 연수회에 대한 내용이다.

### 가. 1차 연수회

- 목적: 언어문화 프로그램 강사 역량 강화
- 일시: 2019. 5. 11(토) 09:40~16:30
- 참석: 강사 7명, 연구진 6명, 특강 강사 1명, 국립국어원 2명
- 내용: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  
         청소년에 대한 이해(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교육 보조 자료) 활용법  
         프로그램 담당 학교 선정 및 행정 사항 전달 등

<표 7> 1차 연수회 일정

시간	내용	방법	담당	비고
09:50~10:00	등록	서명부	조은영	연수장 내
10:00~10:05	개회		방상호	
10:05~10:10	축사		국립국어원 박병우	
10:10~10:40	연수회 안내 및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법 안내	강의	방상호	
10:40~11:00	프로그램 취지 및 목적, 구성 체계	강의	조재윤	
11:00~12:00	청소년에 대한 이해	특강	이천희	(특강 강사)
12:00~13:00	점심	—	—	인근 식당
13:00~13:30	인성 교육 관련 안내 및 설문 소개	강의	서수현	
13:30~14:40	1, 2, 5주제 프로그램 실습	실습 및 토론	정혜현, 노하늘	연구진 참여
14:40~14:50	휴식	—	—	
14:50~16:00	3, 4주제 프로그램 실습	실습 및 토론	정혜현, 노하늘	연구진 참여
16:00~16:20	담당 학교 선정, 행정 사항 전달	협의	방상호, 조은영	
16:20~16:30	폐회		방상호	
16:30~19:00	연구진 평가회			

## 나. 2차 연수회

- 목적: 언어문화 프로그램 수업 역량 강화
- 일시: 2019. 8. 21(수) 09:40~14:00
- 참석: 강사 5명, 연구진 8명, 특강 강사 1명, 국어국어원 1명
- 내용: 언어문화와 인성 교육의 관련성 이해  
언어문화 프로그램 수업 능력(질문 능력) 향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성찰

<표 8> 2차 연수회 일정

시간	내용	방법	담당	비고
09:30~09:55	등록	서명부	김아영	연수장 내
09:55~10:00	개회		방상호	
10:00~10:05	축사		국립국어원 이윤미	
10:00~10:20	2학기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의	방상호	
10:20~11:30	학생이 질문하는 수업	특강	정혜승(경인교대)	(특강 강사)
11:30~12:30	1학기 수업 성찰 및 2학기 수업 계획	간담회	서수현, 정혜현, 노하늘	
12:30~12:50	담당 학교 선정, 행정 사항 전달	협의	방상호, 조은영	
12:50~13:50	점심	—	김아영	인근 식당
13:50~14:00	폐회		방상호	

### 3.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다음은 2019년에 실시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2019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년	참여인원	연 인원	기간	운영차시	비고
1-1	서울	초등	서울포이초등학교	6	70	140	5.16-5.23	6	2차시 × 3개 반
1-2	서울	초등	서울성수초등학교	6	72	216	6.4-6.27	12	3차시 × 4개 반
1-3	서울	초등	서울문덕초등학교	5	22	220	7.3-7.11	10	10차시 × 1개 반 (인증 신청)
1-4	서울	초등	서울강술초등학교	6	19	190	5.24-6.21	10	10차시 × 1개 반
1-5	서울	초등	서울잠실초등학교	5	28	280	5.20-6.3	10	10차시 × 1개 반 (인증 신청)
1-6	경기	중등	녹양중학교	1	30	300	5.30-7.11	10	10차시 × 1개 반 (중등 인증)
1-7	서울	중등	서울신도림중학교	2~3	136	272	6.20-6.24	10	2차시 × 5개 반
1-8	대전	초등	대전문창초등학교	6	31	310	5.16-5.27	10	10차시 × 1개 반 (인증 신청)
1-9	서울	중등	가재울중학교	1	210	420	6.3-6.5	14	2차시 × 7개 반 (학교 자체 비용)
2-1	서울	초등	서울중대초등학교	6	192	384	10.21-10.25	16	2차시×8개 반
2-2	서울	고등	동일여자고등학교	1-3	21	105	8.26-10.25	10	5차시×2개 반
2-3	서울	초등	서울영림초등학교	6	50	300	9.6-9.27	12	6차시×2개 반
2-4	서울	초등	서울도림초등학교	6	89	178	9.30-10.2	10	2차시×5개 반
2-5	대전	중등	송촌중학교	1	29	290	10.30-11.27	10	10차시×1개 반
2-6	서울	중등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4~6	12	48	9.4, 9.11	4	4차시×1개 반
					1,011	3,653		140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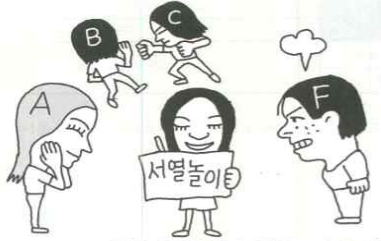
다음 [그림 2]와 [그림 3]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활동지의 예시이다.

##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학습 목표

- 자신이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준비 활동** 아래 그림을 보고, 이 수업의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네 앞줄은 C급, 너네 집안은 B급", 조선일보, 2017년 7월 11일자

(1) 아래 '서열'의 의미를 토대로, 서열의식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 서열(序列)

차례 세, 앞뒤 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또는 그 순서.

➡ "서열의식"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

(2)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1)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세요.

교우, 여운, 만리

(2) 서열의식이 담겨 있는 표현을 골라 밑줄을 그어 보세요.

(3) 서열의식이 담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앞잡아 보고 있나요?

교우를 지하는가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3)에서 답한 '기준'을 아래 그림의 맨 위 칸에 적어 넣은 후,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5) 우리 모둠에서 맡은 대화 상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앞선 활동에 어떻게 답하였는지 반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1) 성별 다른 편견이 담겨 있는 말들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밑줄 그은 말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남자가 우는 것이 여자라고 합니다.

(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성차별적인 말을 들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안파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4)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차별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5)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동원과 함께 상의하여 대화의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말"을 써 봅시다.

모동원 이름	제안한 표현
도윤지	남자가 우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며, 그러 말 하지만
도윤지	남자도 울 수 있어,
윤원	너희는 태어날 때 안팎이 다? 귀동 주머니 속에서 태어날 때 섹스
김도현	아, 남자가 울면 하되라는 법 뭐야?

◆ 우리 모둠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말:

너희는 태어날 때 안팎이 다? 귀동 주머니 속에서 태어날 때 섹스도 못함은 왜 안돼?

◆ 이 말을 선택한 이유:

공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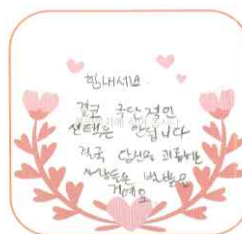
### 장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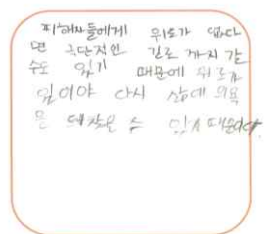


잘 쓰면 약이 됩니다

(1) 바이러스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2) 이러한 말을 떠올린 이유, 또는 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학습 목표

-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온비 활동** 영상을 보고, 다음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해 봅시다.



(1) 영상에서 말하는 '전염병'이란 무엇인가요?

비난하는 글이 점점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전염병'은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 또는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욕을 쓰는 사람을 보적이 있습니다.

(3) 청소년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 학생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20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1) 여러분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는 과학자입니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언어문화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 곳곳에 숨겨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2) 다음의 분석 카드를 순서대로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어 봅시다.

①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②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상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①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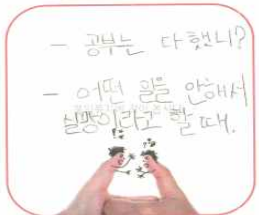
무섭게 남을 헐뜯게 됩니다.

②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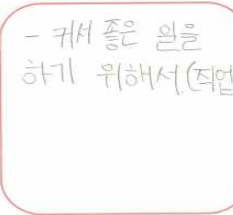
감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무서울 것 같습니다.

**활동 1** 다음의 질문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 엄마-아빠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엄마-아빠에게 상처받은 말은 무엇인가요?



(2) 엄마-아빠가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를 고르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 엄마-아빠가 그러한 말을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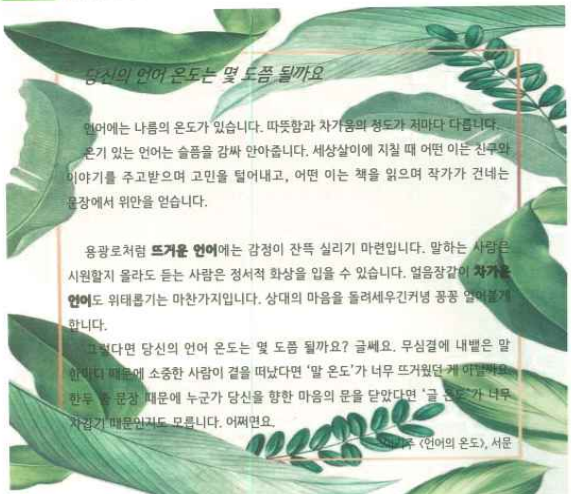
· 서훈: 숙제해! 미루지 말고!

· 준성: 공강 가고요니?

· 동현: 학교에서 무슨일 있었어?

15

**활동 1** 언어의 온도를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아래의 글을 읽어 봅시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제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든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견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긴커녕 공공 일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썽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 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두 통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가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 주 〈언어의 온도〉, 서문

(1) 글 속에서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의 의미를 찾아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

· 차가운 언어: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하고 공공 일터하게 하는 등

· 뜨거운 언어: 듣는 사람이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언어.

(2)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따뜻한 언어의 의미를 만들어 봅시다.

· 따뜻한 언어: 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

[그림 2] 초등학교 학생 활동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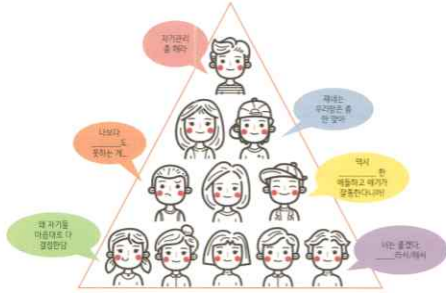
##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학습 목표

- 자신이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준비 활동** 아래 그림을 보고, 이 수업의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 '서열'의 사전 의미를 토대로, 서열의식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 서열(序列)

원래서, 뒤로 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또는 그 순서.

→ "서열의식"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

(2)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적, 외모, 능력, 인맥, 가정환경, 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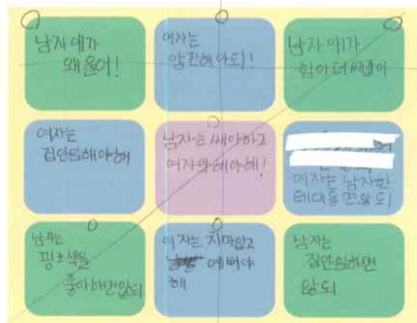
## 남자, 여자 혹은 나

### 학습 목표

- 성차별적 표현을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성차별적 표현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준비 활동** 상처 받고 놀이 내가 들어 본 성차별적 말들에는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 ① 모둠원과 자신이 직접 들었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② 초록색 칸에는 '남자'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을, 파란색 칸에는 '여자'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을 적습니다.
- ③ 가운데 보라색 칸에는 남자에 대한 표현이든, 여자에 대한 표현이든 가장 흔하게 들어 보았을 법한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 적습니다. 어떤 표현을 적어야 좋을지 모둠원과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적어 보세요.
- ④ 빙고판이 완성되면 모둠별로 순서대로 돌아가며 사례를 소개하며, 빙고 놀이를 합니다.
- ⑤ 먼저 3줄 빙고를 완성한 모둠이 놀이에서 승리합니다.



**활동 1** 나는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의 점검표를 통해 알아 봅시다.

(1) 다음 문장을 읽고, 해당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흰색 칸에 1~5점으로 표시해 봅시다.  
· 5점: 정말 그렇다. · 4점: 조금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 1점: 정말 그렇지 않다.

1)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이 나의 외모를 자라하면 화를 내기 어렵다.	2
2) 무엇이든 물어 다지는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힘들다.	3
3) 아는 언니, 누나, 오빠, 형들이 많고, 인기있는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	3
4) 나보다 덩치가 작은 친구가 나를 놀리던 덩치가 큰 친구가 놀렸을 때 보다 더 화가 난다.	1
5)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딘지 모르게 생각이 더 깊고 논리적이다.	3
6)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경기 중에 내가 한 실수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면 짜증이 난다.	1
7)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
8) 학급 임원, 동아리 회장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 반대하기 어렵다.	2
9)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네 집이 우리집보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살펴볼게 된다.	1
10)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과 같이 더 잘통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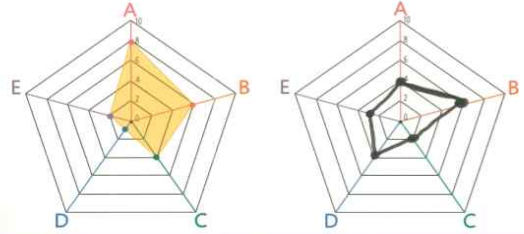
세로 칸 합계 점수

4	6	2	4	3
A	B	C	D	E

(2) A-E에 해당하는 질문은 각각 어떤 기준의 서열의식에 대한 질문일까요?

- ☒ A(1번, 7번): 외모, 재력    
 ☒ B(2번, 3번): 외모, 성격    
 ☒ C(4번, 6번): 운동, 힘, 성격  
☒ D(5번, 10번): 성적    
 ☒ E(8번, 9번): 권위, 계급

(3) A부터 E까지에 점수를 오각형 선 위에 점을 찍어 표시한 후 왼쪽의 그림과 같이 5개의 점을 연결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둠원들과 비교하여 봅시다.



**정의 활동** 내가 정하는 온라인 언어 사용법

(1) 댓글을 볼 때 유의하면 좋을 지침을 모듬별로 만들어 봅시다.

### 바람직한 온라인 언어문화를 위한 댓글 달기 지침서

\* 예시: 친절하게 비판하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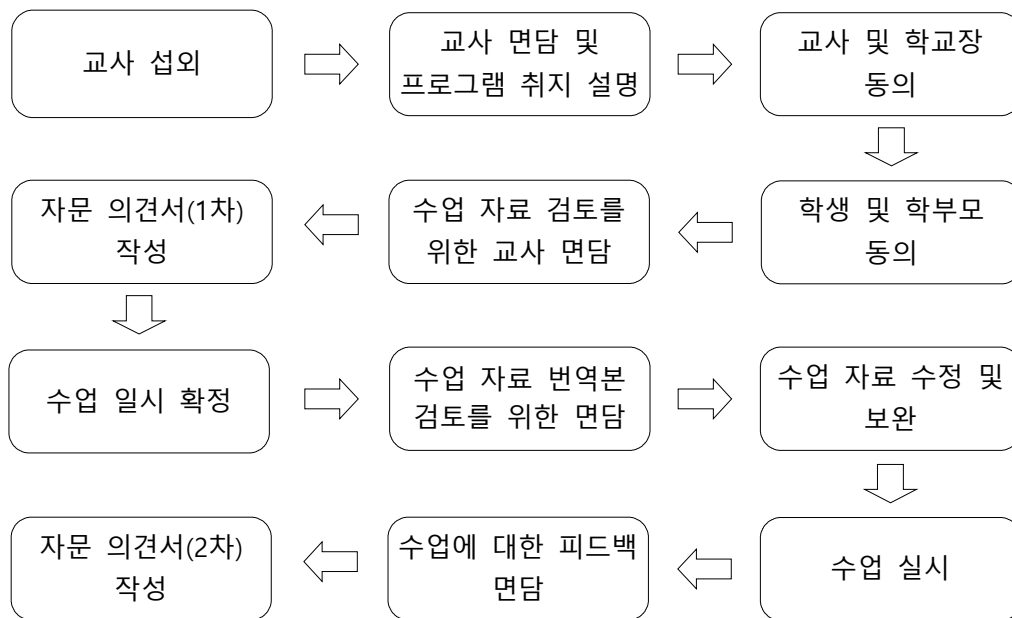
1. 상대의 생각도 이해해 준다.
2. 대도록 심한말은 쓰지 않는다.
3. 거절을 달지 않는다.
4. 상대를 놀리는 말 쓰지 않는다.
5. 성과 관련된 댓글을 쓰지 않는다.
6. 오타로 신고 내댈음을 누르지 않는다.
7. 종아리와 상체를 할 때 잘생각한다.
8. 존중한다.
9.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다.
10.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



[그림 3] 중학교 학생 활동지 예시

다음은 이 프로그램이 국외에도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한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중학교의 사례이다.

- 프로그램 운영 학교: Thornhill Secondary School
- 수업 및 자문 교사: 이선경(Emily Lee)
- 수업 대상: 9학년 1학급 26명
- 수업일시: 2019. 9. 27(금) 1:45-3:25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절차



- 수업 내용: 중등 프로그램 9, 10차시 - 말의 힘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자문 및 수업 의견서의 핵심 내용
  -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의견서: 프로그램의 흐름은 매우 간단하지만 학생들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느낌이다. 인용한 책의 내용도 매우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이 선택한 이야기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를 적는 학생들의 활동도 매우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 수업 의견서: 이 수업을 준비할 때 York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 중이었다. 실습 교생은 보조 교사로 그 수업을 도왔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교생에게 수업이 어떠냐고 물었다. 교생은 “소통의 성격을 이해하는 수업이었다. 내용이 정말 훌륭하다.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나는 콘텐츠의 학습 활동이 매우 참신하다고 느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워낙 활발해서 기대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장

기적 교육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학생 활동 결과물

Youth Language Improvement Program

### The power of a word

**Learning Objectives**

- Sharing other people's feelings, listening to them, and saying words of sympathy and consolation.
-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you say and leading a language life that cares about others.

**Activity 1** Guess the meaning of the title of the article 'Some words do not die' that we're going to study today.



(1) What does 'Words do not die' mean?  
Words do not die means that words will be heard in someone's heart and their minds.

(2) What is the appropriate word in 'some'?  
Some appropriate words in some are encouraging, caring, love, kind or helpful.

Youth Language Improvement Program

**Activity 3** Choose one of the living words in your heart, and write down your story and put it in a story box. You can write anonymously on the postcard on the next page.

☐ A word that made me afraid  
☐ A word that made me glad  
☐ A word that made me sick  
☐ A word that made me excited  
☐ Other: \_\_\_\_\_

**\*\*** Write the story around when, where (or under what circumstances), who, what you heard, and what you felt at the time.

**Activity 4** Write words of consolation or sympathy to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in the box below your selected postcard.

**Activity 5** Watch the video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1)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people?  
I want to be remembered as a person who is very positive.

(2) What 'word'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people?  
Bright

Youth Language Improvement Program

**Activity 2** Read the following article in taking note of the underlined part.

**SOME WORDS DO NOT DIE**

I have a habit of trying to remember a sentence when I talk to someone. "Get some hot water" was the last speech my grandfather said to me, and "See you at the Chinese restaurant we met" was the last word of my favorite senior novelist. I am sorry that I have not seen their death, and those words have become the will they have left.

I have a lot of words to remember, even if it's not the words of those who died first. "Let's meet in Jongno where you like next time" was the last word of an ex-girlfriend who broke up on a street in Bundang, and "There are no movies in Chungmu-ro in these days" was the last word from a former co-worker who no longer meets.

Now I won't meet them and even if I skimp on the street, I'll probably go away with a short look of greeting. So these words have become their will, too.

On the contrary, I believe that what I give to others thoughtlessly can be my will to them. So I try to say something warm and pretty even if it's the same.

But it's not an easy job. Even today, I used horrible words like 'strategies' and 'annihilation' during the business meeting in the morning, and said a staled word "Let's have a meal someday" to an acquaintance who met by accident at a restaurant at noon. I had no chance to speak to anyone because I was alone in the evening.


Words are born in a man's mouth and die in a man's ear. However, some words do not die, but enter a person's heart and survive.

Even if someone doesn't have the habit of remembering other people's words like me, most people have quite lots of words in their minds. Some words will be afraid, some will be glad, some will still make someone sick, and others will make someone excited.


It's a night of thinking about your mind, which will fill you with countless wills, like a wilful will of black letters.

- Jun Park, (Some words do not die)

Youth Language Improvement Program



When my friends told me and was talking around my back, I was then saying that I'm very childish and a bit. I was very cool and so because they were the first friends that I made in my new school. When I came back home, I was very sad and sad about it so I told her to apologise, but they didn't. From that day, I blocked them out and never talked to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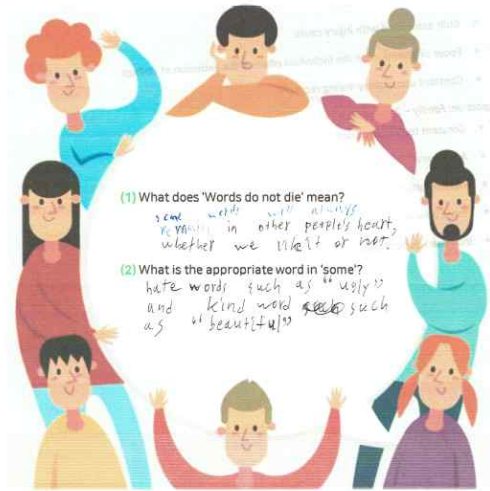


## The power of a word

### Learning Objectives:

- Sharing other people's feelings, listening to them, and saying words of sympathy and consolation.
-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you say and leading a language life that cares about others.

**Activity 1:** Guess the meaning of the title of the article 'Some words do not die' that we're going to study today.



- (1) What does 'Words do not die' mean?  
 some words remain in other people's heart, whether we like it or not.
- (2) What is the appropriate word in 'some'?  
 hate words such as "ugly" and "beautiful" as kind words such as "beautiful".

**Activity 3:** Choose one of the living words in your heart, and write down your story and put it in a story box. You can write anonymously on the postcard on the next page.

- ☐ A word that made me afraid  
☒ A word that made me glad  
☐ A word that made me sick  
☐ A word that made me excited  
☐ Others: \_\_\_\_\_

**\*\*** Write the story around when, where (or under what circumstances), who, what you heard, and what you felt at the time.

I was in a bus and it was the day after I tried to stop a passenger arguing with the bus driver, and the bus driver said, "You are a good young man!" I felt so glad that I was a good young man.

**Activity 4:** Write words of consolation or sympathy to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in the box below your selected postcard.

Watch the video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1)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people?

someone they can rely on when they are going through hard time, and someone who loves everyone.

2) What 'word'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people?

Love.

### Activity

Read the following article in taking note of the underlined part.

I have a habit of trying to remember a sentence when I talk to someone. "Get some hot water" was the last speech my grandfather said to me, and "See you at the Chinese restaurant we met" was the last word of my favorite senior novelist. I am sorry that I have not seen their death, and those words have become the will they have left.

I have a lot of words to remember, even if it's not the words of those who died first. "Let's meet in Jongno where you like next time" was the last word of an ex-girlfriend who broke up on a street in Bundang, and "There are no movies in Chungmu-ro in these days" was the last word from a former co-worker who no longer meets.

Now I won't meet them and even if I skip on the street, I'll probably go away with a short look of greeting. So these words have become their will, too.

On the contrary, I believe that what I give to others thoughtlessly can be my will to them. So I try to say something warm and pretty even if it's the same.

But it's not an easy job. Even today, I used horrible words like 'strategies' and 'annihilation' during the business meeting in the morning, and said a stated word "Let's have a meal someday" to an acquaintance who met by accident at a restaurant at noon. I had no chance to speak to anyone because I was alone in the ev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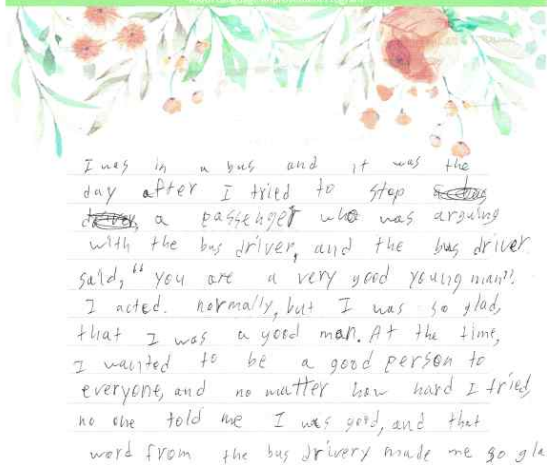
Words are born in a man's mouth and die in a man's ear. However, some words do not die, but enter a person's heart and survive.

Even if someone doesn't have the habit of remembering other people's words like me, most people have quite lots of words in their minds. Some words will be afraid, some will be glad, some will still make someone sick, and others will make someone excited.

It's a night of thinking about your mind, which will fill you with countless wills, like a willful will of black letters.

- Jun Park, 'Some words do not die'

- Jun Park, 'Some words do not die'



[그림 4] Thornhill Secondary School 학생 활동지 예시

#### 4.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검증

##### 가. 만족도 조사

총 7개 학교에서 192명의 학생이 만족도 검사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그 평균값이 4.25점이었다. 만족도 검사에 사용된 문항의 척도(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만족하지 않는다, 3점= 그냥 그렇다. 4점 = 만족한다. 5점=매우 만족한다)를 고려할 때,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 <표 10>은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평균값이다.

<표 10> 만족도 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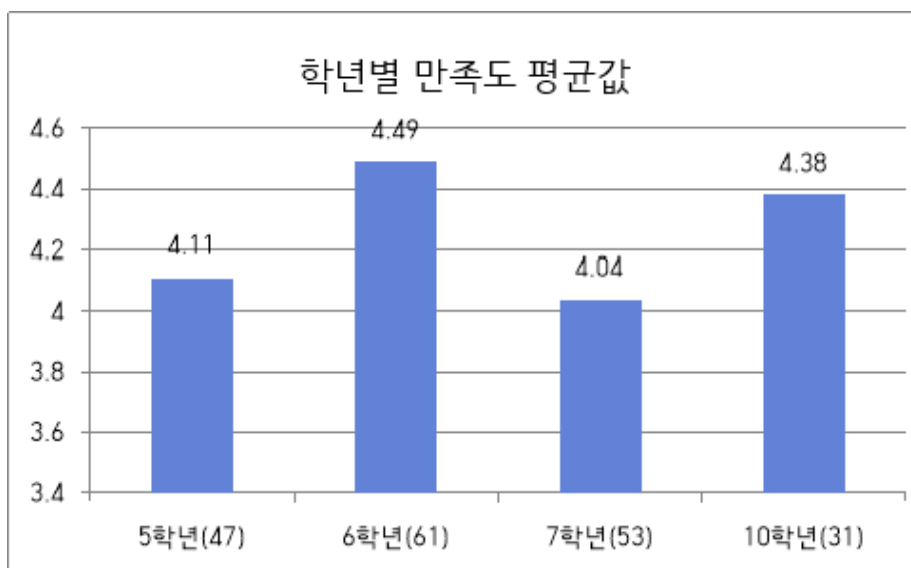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 학생 수	평균값
	192	4.25

각 문항별 만족도 평균값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문항별 만족도 평균

만족도 문항	평균값
이 수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4.51
이 수업은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을 다루고 있다.	4.45
이 수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41
이 수업을 통해 현재의 나와 친구들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26
이 수업은 내가 바른 마음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4.22
이 수업의 내용을 나의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0
이 수업을 통해 앞으로 더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17
이 수업은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4.15
다른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4.14
이 수업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4.04

높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이 수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수업은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 수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순으로 각각 4.51점, 4.45점, 4.41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낮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수업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수업은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순으로 각각 4.04점, 4.14점, 4.15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대체로 프로그램 내용, 구성, 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하거나 추천 여부에 대해서 낮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학년별로 만족도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학년별 만족도 평균값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은 만족도(평균값=4.49)를 보이고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낮은 만족도(평균값=4.04)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간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3, 191) = 4.07, p < 0.01$ , 사후 검증(Tukey) 결과, 중1 학년 집단이 초등학교 6학년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p = .012$ ). 참여 집단을 무선 표집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중학생 집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학생들은 “성차별과 서열 의식에 대한 부분이 정말 도움이 된 것 같고, 여러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언어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려면 '나'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서술형 응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자신의 인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에 이 프로그램은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모두 만족시키는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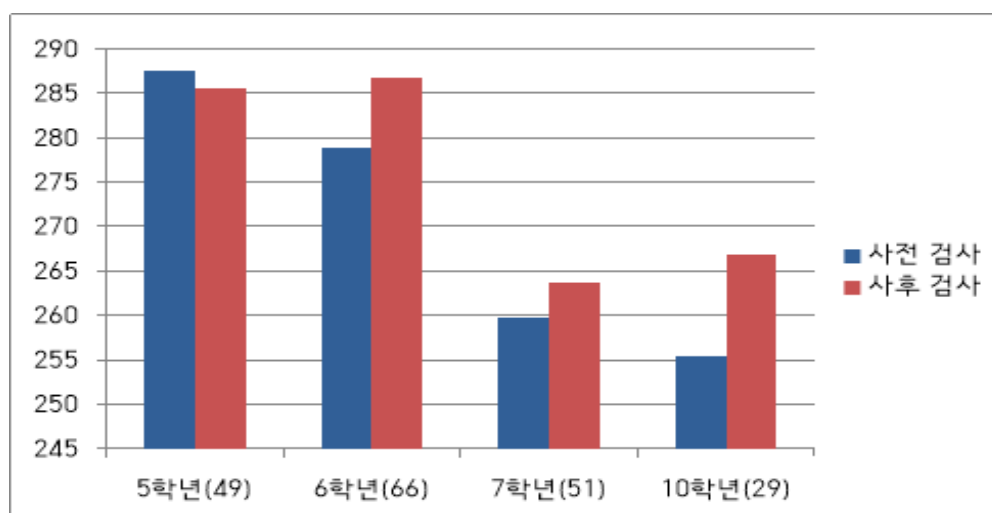
## 나. 인성검사

KEDI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전 검사의 합산점 평균값이 272.55점이고 사후 검사의 합산점 평균값은 276.93점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KEDI 인성검사의 사전-사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1.02$ ,  $p=.3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6차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까지 인성검사에 참여하여 전체 10차시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참여하지 않은 후에 인성검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인성검사 사전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성을 과대하여 점수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12> KEDI 인성검사 합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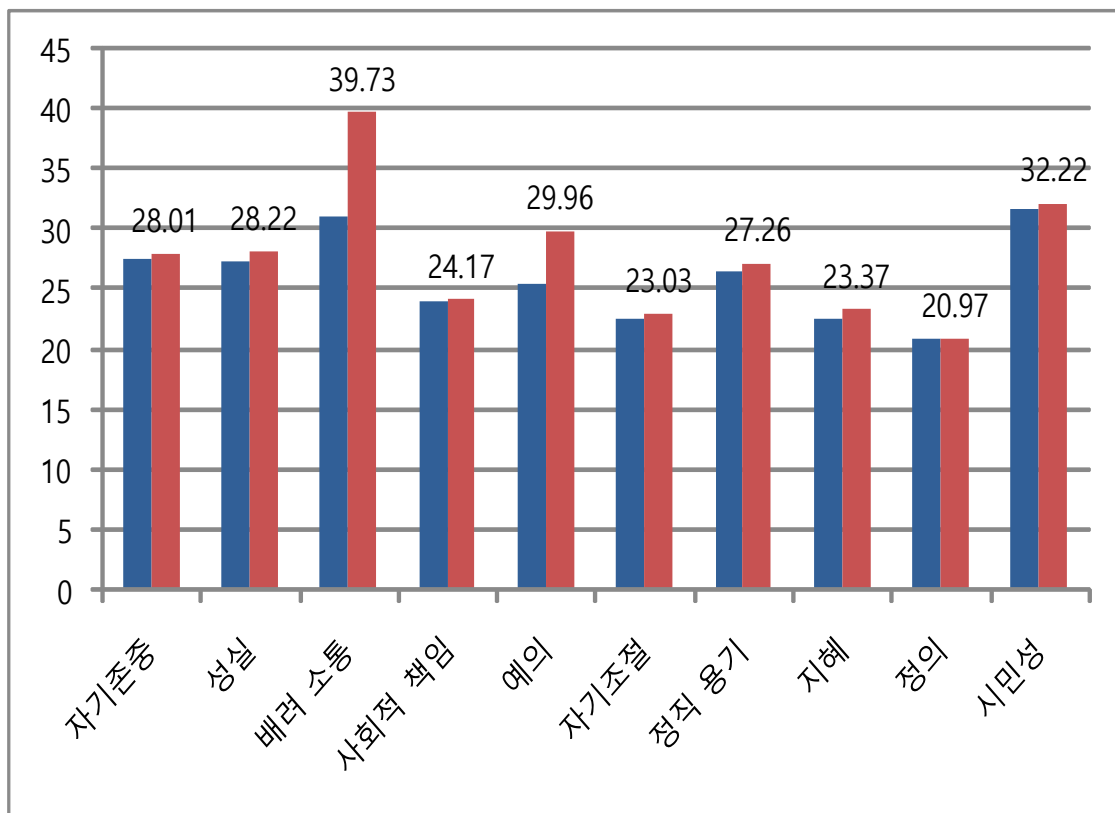
인성검사	사전 합산점(n=195) 평균	사후 합산점(n=193) 평균
	272.55	276.93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의 인성검사 점수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학년별 인성검사 평균값 변화(사전-사후)

학년별로 사전 사후 인성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성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고학년의 인성 점수가 다소 향상되어 학년 간 차이와 이러한 경향성이 다소 완화된 사실이 사후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다소 점수가 낮아진 5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6, 7, 10학년 학생들의 인성 점수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인성검사 점수를 KEDI 인성검사의 하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영역별 인성검사

정의 영역을 제외하고 KEDI 인성검사 하위 영역 모두에서 참여 학생들의 인성 점수가 향상되었다. 특히 ‘배려·소통’ 점수가 가장 많이 신장되었다(31.02점에서 39.73점). ‘배려·소통’ 영역은 타인이해 및 공감, 친절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이 프로그램이 특히 배려·소통 영역에서의 인성발달과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에 이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다. 학생 인터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실제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내용 구성에 대한 만족을 들 수 있다.

학생 A: 저는 교재에서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라는 단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게 되게 공감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벌써 그런가?

학생 A: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욕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좀 어렵진 않았나? 실제 집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이럴 때도 적용이 잘 되나?

학생 A: 네 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할 때도 채팅 같은 거 칠 때 많이 보는 편이고 조심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걸 배우고 나서.

연구자: 잘 몰랐던 것을 배운 점이 있었을까?

학생 A: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한마디를 하는 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0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7월 11일]

초등학생 A는 자신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통해 경험하는 문제와 직접 연관된 수업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꼽으며,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언어생활에 개선이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만족도 드러났다.

학생 B: 어 그 언어나 그런 거 약간 쯤 언어나 그런 거 약간 험한 말이나 그런 거 없애거나 그런 생각을 낼 수 있어 가지구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연구자: 언어가 험하고 막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긴 됐었구나.

학생 B: 네, 그래서 학교에서 막 욕설 없는 주간으로 욕 안 하기로도 하는데, 이걸로 하면 뭐 그래서 뭐 수업할 때 욕을 하거나 그 뒤로 막 험한 말을 하는 건 못 들었어요.

연구자: 아, 그 뒤로, 아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나 봐, 뭐 그런 기회가 됐었나

봐?)

학생 B: 네 보통 언어문화 뭐 이런 교육은 되게 딱딱해 가지고 선생님이 언어문화를 왜 안 하는지 동영상 보여주고 그 동영상 내용도 되게 심각하고 한데 이거는 약간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되게 약간 그냥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주제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깊어 가지구.

연구자: 그랬구나. 너무 딱딱하고 교훈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활동 같은 거 해 가지구 좋았을 수 있겠구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6월 3일]

위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B는 프로그램이 욕설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적 내용의 전달보다는 실제 활동으로 이루어져 언어생활 개선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성발달의 개선에 대한 인식을 직접 드러낸 학생도 있었다.

학생 C: 저는 자기혐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생각보다 나는 되게 이런 점에서 부족했구나, 왜 내가 남들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와 이거 가르친 선생님이나 이거 교재 만드신 분 좋아하겠다. 이 이야기 들으며는.

학생 C: 조금 완벽하게 치유됐다고는 못하겠는데, 확실하게 쯤 내가 나를 그렇게 싫어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가지구.

학생 C: 자기혐오가 좀 심하게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7월 11일]

학생 C는 인성, 특히 자기 존중감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주로 활동 시간 부족이나 특정 활동 시간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D: 그 활동적인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성에 관련된 보드게임 이런 거나 아니면 역할극 같은 거나 인형극 이런 거를 앞에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모둠별로 게임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지금 게임도 충분히 약간 그러니까 바 이러스 종이 나눠주고 이름 짓고 하는 게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약간 일어서서나

약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뭐 이런 이름 못 짓잖아. 이거는 우리 의견으로 하자 말구 이런 다같이 협동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드게임이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6월 3일]

학생 E: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활동을 되게 추천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거의 욕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욕이 막 나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줄이는 습관을 지니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언어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제 욕 같은 거나 비속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연구자: 그러니까 중학교 시점에서 필요한 게 있나 보다.

학생 E: 네, 성차별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현재도 막 아무래도 중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가족들과 멀어지는, 대화도 많이 안 하게 되고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다룰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7월 11일]

건의 사항으로는 더 많은 차시에 대한 요구, 다른 교육 내용(예시, 장애인 비하 등)에 대한 요구 등이 있었다.

학생 F: 부족했던 점은 일단 언어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업이 더 많아져야지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데, 이것(10차시 수업)보다 더 못 늘리면 웬지 사람들이 줄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서 욕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9월 27일]

학생 G: 네 그 장애인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저희 학교 저희 또래 중에서도 장애인이 쯤 몇 명 있는데, 애들이 또 차별 안 한다 하면서도 괜히 피하고 안 꺼주고 약간 뒤에서 욕하고 하니까. 여기 성차별로 한 주제로 나왔었고 하니까 그것도 한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인터뷰, 2019년 6월 3일]

## V.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 인성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공고 내용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 교육 지원 등)<sup>2)</sup>에 근거하여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인성 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성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엄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우수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인성 교육지원센터가 교육부 위탁 사업으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회씩 정기적으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이 진행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인성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목적

- 우수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운영을 장려하여 인성 교육의 활성화 및 인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우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가 평가 인정하여 인성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 증대

#### (2) 주요 내용

- 인증 분야: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인성 교육 프로그램
- 인증대상: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
- 인증방법: 공모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및 인증실무위원회를 구성·심사하여 인증 대상 프로그램 선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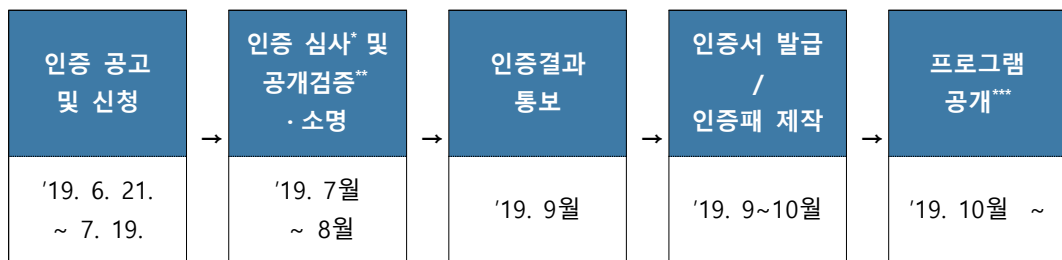
#### 2)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6.20.]]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 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 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2019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다음은 2019년 6월에 공지된 2019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내용이다.

### (3) 2019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 신청 자격: 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 프로그램 기본 조건
  - 가) 인성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 나)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
  - 다)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신청 제외 대상
  -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나)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다)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라)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 마)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 교육 프로그램
  -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 추진 일정



\* 발표 심사 포함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인증 후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 인증된 프로그램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됨

이러한 절차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인증받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5개이며, 올해 8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인증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13개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sup>3)</sup>. 세부적으로는 유아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2개, 초·중·고등학생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이 6개, 중학생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5개이다.

<표 13> 교육부 인증 취득 인성 교육 프로그램(2016~2019)

인증 연도	인증 영역	신청 기관	프로그램명
2016	초등학생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나, 너, 우리
2017	유아	효성유치원	도(道)시(時)락(樂)처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초등학생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까치서당(까치서당에서 군자되다)
2018	중학생	전인교육학회	‘스스로 깨닫는 인성 교육’ 마음빼기 명상교실
	중학생	청소년교육전략21	New 3R 인성 교육
2019	유아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어린이 친환경 논 산책 프로젝트 “논에서 놀자”
	초등학생	국립축산과학원	동물과 마음을 나누는 동물교감교육 - 학교꼬꼬, 학교깡충, 학교멍멍, 학교음매 -
	초등학생	진주교육대학교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3.0 - 다문화가정 학생 세계무대로 GOGO -
	초등학생	법무부 보호정책과	법 친구! 행복한 우리
	초등학생	법무부 보호정책과	인성아! 놀자
	중학생	국립국어원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중학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올바름」
	중학생	법무부 보호정책과	마음모아 톡톡 프로그램

2013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별 인성 실태 조사 결과(정창우 외, 2014)에 따르면, 학교 급별로 인성 지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학교의 인성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사회성’, ‘정체성’, ‘규칙의 도덕’, ‘관습의 도덕’ 등 모든 인성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인증받은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은 언어문화와 관련된 첫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학생들이 언어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3)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9편의 프로그램이 인증 심사에 참여했으나 그중 5편만이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응모 기준을 완화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였다.

## 2. 중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용

중학교 대상 인성 교육 프로그램인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은 총 10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시에 따른 교육 내용과 강의 시간 및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4>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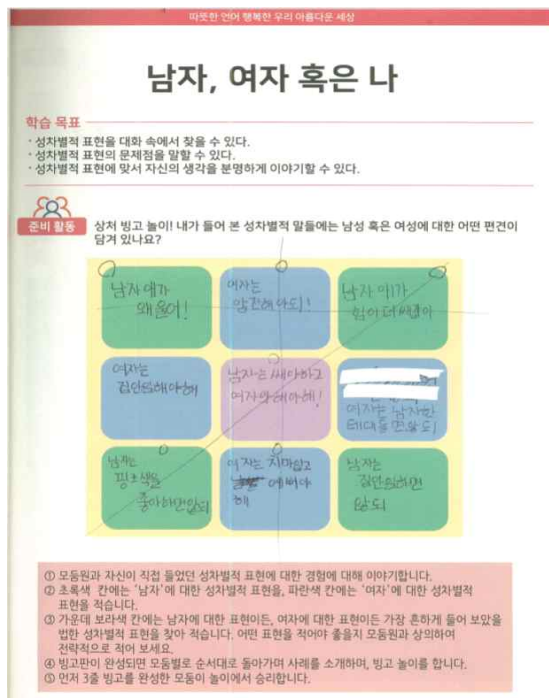
차시	교육 내용	강의/실습	수업 지도안	학습 자료
1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1개 학급	교사용 지도안	PPT, 교재
2		2차시		
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1개 학급 1차시	교사용 지도안	PPT, 교재, 역할 카드
4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1개 학급 1차시	교사용 지도안	PPT, 교재, 붙임쪽지
5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1개 학급	교사용 지도안	PPT, 교재, 소통 카드, 갈등 예방 대화법 설명서
6		2차시		
7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1개 학급	교사용 지도안	PPT, 교재, 댓글 도전판, 스티커
8		2차시		
9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1개 학급	교사용 지도안	PPT, 교재, 사연지
10		2차시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 소재의 녹양중학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과정과 녹양중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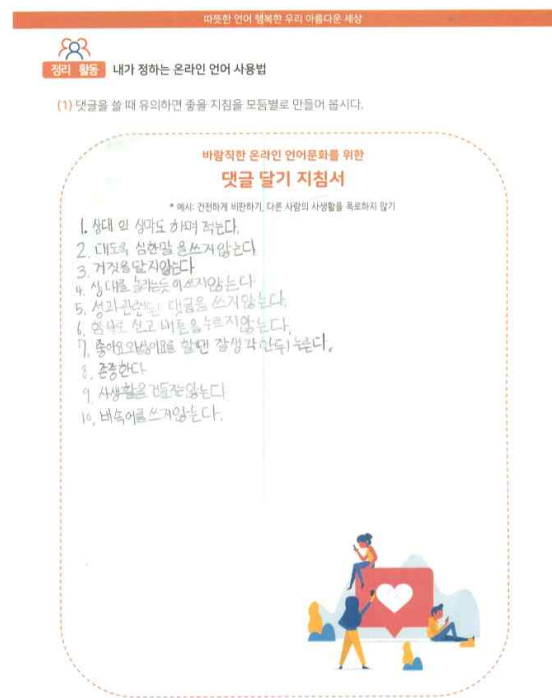
<표 15> 녹양중 인성 교육 실시 과정

날짜	수업 주제	담당 강사	비고
1 5.30 (2H)	<b>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b> • 서열 의식에 대한 자기 점검 활동 •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서열 의식 파악 및 문제점 인식 • 내가 가진 서열 의식을 나에게 적용해보기	정*람 (국립국어원)	아이스 브레이크 활동
2 6.13 (1H)	<b>남자, 여자 혹은 나</b> • 경험했던 성차별 표현 떠올리기 •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말 적어보기	정*람 (국립국어원)	학습지 활용

3	6.13 (1H)	<b>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구들과 함께 부모님과의 대화 경험 나누기</li> <li>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 적어보기</li> </ul>	정*람 (국립국어원)	학습지 활용 동영상 활용
4	6.20 (2H)	<b>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 카드 게임을 통해 예의를 갖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 경험</li> <li>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생각해 보기</li> </ul>	정*람 (국립국어원)	동영상 활용
5	6.27 (2H)	<b>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읽고 최고의 댓글, 최악의 댓글 생각해 보기</li> <li>댓글을 쓸 때 유의하면 좋을 지침 만들어 보기</li> </ul>	정*람 (국립국어원)	학습지 활용 동영상 활용
6	7.11 (2H)	<b>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준 &lt;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gt;를 읽고 친구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연 나누기</li> <li>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사연을 읽고 위로와 공감의 답글을 적어 나누기</li> </ul>	정*람 (국립국어원)	학습지 활용 인성검사지



[그림 8] 남녀 차별 인식 학습지 기록



[그림 9] 온라인 댓글 학습지 기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학생 및 강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 내용 및 방

법에 대한 환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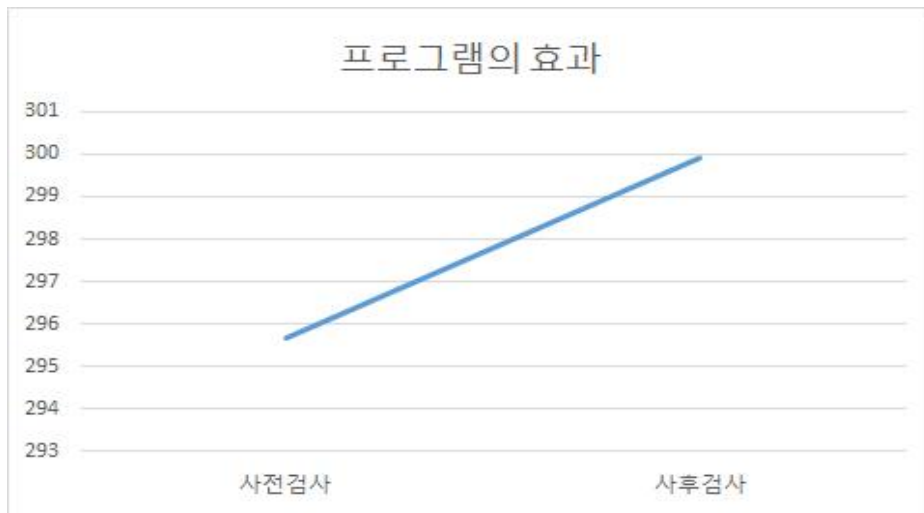
#### (4)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성과 관리 노력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지 작성: 프로그램 참여 학생 전원
-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 면담 실시: 녹양중 학생 2명 심층 인터뷰 실시
- 프로그램 실시 후 강사 면담 실시: 녹양중 강사(정보람) 심층 인터뷰 실시
- 만족도 조사, 학생 및 강사 면담 실시 후 학습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환류 실시
- 1학기 프로그램 진행 후 강사 및 개발진 간담회 실시
- 수업 전 수업 계획서 작성-수업 후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성찰 시간 갖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녹양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평균 4.07점으로 확인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이 수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로 4.43점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말을 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대화 상황들을 더 배운 것 같아 좋았다.’ 등의 서술형 응답을 통해 본 프로그램이 자신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생활 및 마음가짐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은 중학생 수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학생의 언어 개선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EDI 인성검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전 검사의 총점이 295.66점인데 비해 사후 검사의 총점은 299.90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녹양중학교 학생들의 인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KEDI 인성검사 하위 요인의 하나인 ‘배려·소통’ 영역의 사후 점수는 평균 3.9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소통’은 타인이해 및 공감, 친절성,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KEDI에서 제시한 중학생 2학년 ‘배려·소통’ 영역의 평균 점수는 3.70점이다. 전체 평균과 대비하여 볼 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의 ‘배려·소통’ 능력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0]은 녹양중 KEDI 인성검사 결과이다.



[그림 10] 녹양중 KEDI 인성검사 사전·사후 결과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언어생활의 개선을 통해 인성의 함양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중학교 프로그램 인증 과정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 인증받은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의 인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인증 과정

일시	내용
2019. 6. 21.	2019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2019. 7. 19.	2019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류 제출
2019. 8. 12.	KEDI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심사 실시
2019. 8. 14. ~ 2019. 8. 27.	공개 검증 실시: 프로그램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인성 교육 인증 관련 적합성 등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수렴
2019. 9. 10.	2019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결과 통보
2019. 9. 26.	KEDI 2019 인성 교육 프로그램 공개

인증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사가 손쉽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에 관련 자

료 탑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인성 교육지원센터, 에듀넷-티클리어, 인디스쿨(초등교사커뮤니티), 크레존(창의인성 교육넷), 꿈끼(자유학기제 통합포털) 등을 통해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인증 프로그램 온라인 탑재 내용 예시

## VI.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 시·도 및 지역 내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운영 지역 안배를 위한 프로그램 신청 방안, 프로그램 강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 방안,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 학생의 실제 상황이나 필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확산 가능성을 위한 방안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각 시·도 및 지역 내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각 시·도의 국어문화원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도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언어문화 프로그램 전임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한다.

다음은 각 시·도의 국어문화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제14회 강사 연수회(2019. 6. 26.)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한 자료의 일부분이다.

**[연수회]**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9. 6. 26(수) 16:00

조재윤(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차 례**

1. 2019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2. 2018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3. 2017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4.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청소년 말살이 가꾸기**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및 목표

등급	초급	중급	고급
주제	“나는 그대 다들 좋아하!”	“정리 대회를 무슨 일이?”	“유혹과, 서열화 정리 대회를 무슨 일이?”
주제	차별과 언어	루트-가네 언어	서열화 언어
학습 목표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및 목표

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단기별 전력	“나는 그대 다들 좋아하!”	“정리 대회를 무슨 일이?”	“유혹과, 서열화 정리 대회를 무슨 일이?”	“유혹과, 서열화 정리 대회를 무슨 일이?”	“유혹과, 서열화 정리 대회를 무슨 일이?”
학습 목표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 언어문화 개선

국립국어원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및 목표

[그림 12] 국어문화원 제14회 강사 연수회 강의 자료 일부

이와 같은 국어문화학교 강사들과의 인적 교류와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에 시·도 지역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신청 시·도 지역 할당제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골고루 이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면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교육의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 운영한 학교별 현황을 보면 총 14개교(캐나나 토론토 소재 1개교와 지역아동복지센터 1개 제외) 중에서 서울 소재 학교는 총 11개교, 경기도(의정부) 소재 학교는 1개교, 대전 소재 학교는 2개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확정된 학교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 대상 학교의 수가 정해지면 한 지역에서 최대한 신청할 수 있는 학교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강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프로그램 강사를 위한 연수(워크숍)나 사례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업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언어문화 프로그램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강사의 질 관리 방안과 함께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게 운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수 외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새로운 신입 강사들과 멘토-멘티 역할을 하게 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 중·고등학생에 대한 이해 등의 학생 발달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갖도록 한다. 강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 방법 및 전략, 국어과 등의 각 교과 교육의 흐름, 교육 공학 기기의 활용, 학생들과의 효율적인 소통 방법, 수업 관리 방법 등을 적절하게 연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수업 과정(정규 교과 과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부의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점을 살려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또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사실에 대한 홍보(각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지원청 공문 등)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학교 또는 학년, 학급, 교과 교육과정 설계하는 단계에서 ‘언어문화 프로그램’, ‘인성 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학년 초에 홍보하기보다는 학년 말에 협조 및 안내 공문 등을 시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컨설팅 장학위원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관련 장학위원 연수 시 이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의 컨설팅 장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매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장학의 일환으로 개인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표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때 청소년 언어문화 교육을 주제로 연구하거나 자기 장학의 내용으로 활용하도록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실행하는 연수에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의 발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 학습’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프로그램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생성하도록 한다.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과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임시 명찰을 다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 선생님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또는 자유학년제) 등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사들과 공유하여 강사들이 전체적인 학교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선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와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특별하게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교실이나 특별실의 특성에 대하여 강사들이 미리 파악하거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 언어문화 프로그램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실(강의실) 환경, 수업 활용 기기의 여부 등은 강사들이 미리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업 강화가 중요하다. 인성과 소통의 덕목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인성과 소통 교육 중심 수업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의·토론학습, 협동 학습, 액션 러닝 등 새로운 협력형 학습 방법 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실천 중심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상황을 포함하여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협력형 수업 모형과 결합하여 교실 환경에 맞게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생들의 실제 언어문화 및 학생들의 언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각 학교급에 따라 학생의 언어문화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언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요구 및 필요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언어문화에 매체 언어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여 중등학교 이상에서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 매체 언어와 자신의 언어문화를 연결하여 점검할

수 있는 메타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또래 친구가 언어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또래 친구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실제 언어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급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실제 자신이 경험할 법한 의사소통 상황,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활동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학습 활동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고려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확산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은 중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확산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청소년 언어문화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개발할 프로그램은 감성, 공감, 배려 등 인성 요소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 속 언어문화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교사 및 예비 교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교대 및 사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언어문화를 점검하고 향후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VI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고, 교육부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실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관련,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사례 관련, 인성 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관련 내용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용 10차시, 중등학생용 10차시로 개발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수 운영팀을 구성하고 강사 연수회를 실시한 후,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총 15개교 1,011명(연인원 3,653명)을 대상으로 154차시(학교 자체 비용 14차시 포함) 운영하였다. 특별히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국외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Thornhill Secondary School’ 9학년 26명을 대상으로 2차시를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검증으로 만족도 조사는 평균 4.25점(5점 만점)이 산출되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DI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전 검사의 합산점 평균값이 272.55점, 사후 검사의 합산점 평균값은 276.93점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KEDI 인성검사 하위 영역 중 ‘배려·소통’ 점수가 가장 많이 신장되었다(31.02점에서 39.73점).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각 시도 및 지역 내 활성화, 강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향상, 학생의 실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향상 및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언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였고, 효율적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이해 및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소통 주체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언어 계승의 중간자로서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하였고,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능력이 신장되었다.

둘째, ‘찾아가는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언어문화 프로그램 수업

을 담당할 전문 강사 요원을 양성하였고, 향후 지역 단위 프로그램 및 상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교육부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학교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인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이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언어문화 관련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이자, 국립국어원의 이름으로 받게 된 최초의 사례이다.

넷째,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의 국제화 기초를 마련하였다. 캐나다 토론토 중학교 프로그램으로 2차시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이번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확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제언

이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지향점 및 목표에 대하여 명시화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인성 교육 중심인지, 청소년 언어문화 조성 중심인지, 또는 인성 교육과 청소년 언어문화 조성의 융합인지에 대한 지향점 및 목표를 명시적으로 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유연성 및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여건이나 교육 상황에 맞게 일부 내용만으로도 차시 구성이 되도록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성 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게 되면 10차시 운영이 필수인데, 각 학교 상황상 10차시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 여건과 교육 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운영 차시를 선택할 수 있는 신청 서식(예: 2차시 운영, 4차시 운영, 6차시 운영, 10차시 운영 등)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및 유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학생용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주도적 활동과 성찰을 위한 내용을 프로그램 운영 중에 추가할 수 있는 교재 재구성 권한을 강사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강사 수급 및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사 파견 및 강사 교육을 통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신청을 하여도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찾아가는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시·도 국어문화원에 소속된 강사들을 이 프로그램의 연수 강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하여 각 지역별로 강사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강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강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신규반(처음 강사를 하는 학급)과 기존반(2019년에 강사를 했던 학급), 현직 교사반(현재 초중고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로 구성된 학급)과 국어문화원 강사반(현재 각 시·도 국어문화원에 소속된 강사로 구성된 학급), 초등 프로

그램 운영반(초등학교 전문 운영 강사 학급)과 중등 프로그램 운영반(중·고등학교 전문 운영 강사 학급)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강사의 요구와 필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라 신규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각 대학의 현장 교사를 위한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현장 교사 중심의 학회 또는 모임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교 교사들을 위한 언어문화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언어문화 프로그램 교사 직무연수’를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립국어원 차원의 프로그램이므로 각 학교별 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 지원 전담 체계(프로그램 신청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에서 사전에 할 업무, 프로그램 진행 중 해야 할 업무, 프로그램 운영 사후 처리 업무 등 안내, 각 학교별 언어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지정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팀원과의 연계성 확보 등)를 구축하도록 한다.

## \* 참고 문헌

- 강미영·정혜경 (2017).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방안 연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6).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강선보·박의수·김귀성·송순재·정윤경·김영래·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강영배(2018). 급식제를 통해 본 청소년의 언어문화. 청소년문화포럼(2018.1).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교육과학기술부(2013). 교직 적성 인성 검사도구 표준안 개발 보급.
- 교육과학기술부(2012. 9. 3.). 대한민국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 개최. 동정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교생활 욕설 사용 실태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8). 인성 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에 따른 2019년 인성 교육 시행계획.
- 교육부(2018).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8-08-28(화)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 구영산(2011). 국어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국어교육학회.
- 국립국어원(2011).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원.
- 김대회·조재윤·서수현·신희성·노하늘(2017). 언어를 통해 청소년의 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립국어원.
- 김대회·조재윤·서수현·신희성·정혜현·노하늘(2018).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국립국어원.
- 김문오(2017). 국어순화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571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자료집.
- 김미형(2005). 인간과 언어. 박이정.
- 김은성(2015).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 실천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국어교육학회.
- 김정선(2012).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및 바람직한 인성 교육 강화 방안-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언어문화 개선 방안 세미나 발표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진숙 외(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광문각.
- 김평원(2012).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김평원(2017).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욕설 의미 교육의 효과. 교육연구 제70집.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 김한나(2012). 일상화된 청소년 욕설의 원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 발표 자료집. 국립국어원.

-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문음사.
- 노하늘 · 신희성 · 김대희(2018). 상호교섭적 감정 어휘 의미 조정 경험을 통한 사회·감정 문식성 향상 방안 연구: 의미 규범 형성을 통한 감정 인식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2010). 방송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민병곤 · 박현정 · 정혜승 · 정현선 · 김정자 · 권은선 · 이종원 · 최나은(2015).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
- 민병곤 · 박현정 · 정혜승 · 정현선 · 김정자 · 권은선 · 이종원 · 이병하 · 임해량(2016).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박동섭(1995). 대화분석에 의한 또래 협력 과정 이해.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미 · 허승희(2012). 청소년용 통합적 인성 척도 개발. 아동교육 21(3). 한국아동교육학회.
- 박순애(2008). 또래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기(2012). “욕설언어현상”에 대한 교육적 문화적 진단과 대안 모색.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박인기 · 박정진 · 박창균 · 이지영 · 강용철 · 박소영(2012).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 교육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 박영민 · 김혜선 · 장은주 · 정미경 · 박종임 · 최종선(2012). 국어과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교수·학습 모형 및 교재 개발 연구. 2012년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연구 위탁과제 답신 보고. 교육과학기술부.
- 변혜원(2011).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중학생 언어행동의 주요 특성과 변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2009). 또래협력학습 과정에 의한 유추문제수행 향상 아동의 대화 내용 분석. 방과후 아동지도연구 6(2).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 서현석(2005). 학생 소집단 대화의 “협의” 양상: 의사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 서현석(2013). 인성 교육을 위한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초등국어교육 5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서현석(2013). 청소년의 말 문화 개선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22. 한국화법학회.
- 성삼제(2015). 또래조정 프로그램 참여가 중학생의 갈등해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희성 · 조재윤 · 서수현 · 노하늘 · 김대희(2018). 또래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어과와 사회과 융합 교육의 가능성 모색. 화법연구 39. 한국화법학회.
- 양명희 · 강희숙(2011).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 문화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이근철(1996).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과 교육내용의 구조화 방안.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29(2). 인천교육대학교.
- 이동민(2012) 청소년 욕설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이선영(2012). 청소년 말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유형 분석.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 이선영 · 김평원(20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욕설 현상 개선 효과.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윤지(2013).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성교육진흥법(일부 개정). 법률 제15958호. 공포(2018. 1.20.). 시행(2019.06.19.).
- 장경희 외 (2011). 청소년 언어 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원.
- 정광희 · 현주 · 박영숙 · 전종희 · 조덕주 · 임현정(2015). 초·중등 학생 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Ⅲ): 중학생 인성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자료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5-08. 한국교육개발원.
- 정창우(2014). 초등교원 인성 교육 연수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정해연(2012). 매체 자료 독서를 통한 청소년 언어 순화 지도. 국어교과교육연구 20. 국어교과교육학회.
- 제민경 · 박진희 · 박재현(2016).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언어인식 교육 방향 탐색. 국어국문학 175. 국어국문학회.
- 정혜승 · 민병곤 · 이선영 · 유상희 · 박나현 · 여정민 · 이현정 · 노수경 · 전종옥 · 양수연 · 최나은 (2017).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조난심 · 문용린 · 이명준 · 김현수 · 김현지(200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혜승(2018).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과 향상 방안. 한글 79(1). 한글학회.
- 조재윤 · 서수현(2018).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래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식하는 갈등 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지은림 외(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 천세영 · 김왕준 · 성기옥 · 정일화 · 김수아 · 방인자(2012). 인성 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기호 · 김미형 · 임소영(2004).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회의 유쾌한 춤사위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서울: 삼지원.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수탁연구 CR2010-36.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3). 초·중등 학생 인성 교육 활성화방안 연구(I): 인성 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RR 2013-01.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문음사.
- 현주(2012). 학교 인성 교육의 의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5-02.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2013). 인성 교육 실태 및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전라북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편). 교육본질에 충실한 인성중심 교육 강화. CRM 2013-50-4.
- 현주 · 이해영 · 한미영 · 서덕희 · 류덕엽 · 한혜성(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PR 2013-01.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 · 임소현 · 한미영 · 임현정 · 손경원 · 장가람(2014).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 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14-39.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 · 최상근 · 차성현 · 류덕엽 · 이해경(2009). 학교 인성 교육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 한국교육개발원.
- 황응연(1992). 심리학과 생활. 배영사.
- 홍성수(2019).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 Alexander, K. L.(2000).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in work and family life: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Ohio State University.
- Berkowitz, M. W., & Bier, M. C.(2005). Character education: Parents as partners. *Educational Leadership* 63(1).
- Charles, W., & Patricia, K.(2005).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5th ed.). McGraw-Hill Humanities. 이춘재 외 옮김(2011). 발달정신병리학: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박학사.
- Gordon, I. J.(1977). *Parent education and parent involvement: Retrospect and prospect*.

Childhood Education. 54(2).

The Ministry of Education Canada(2008). Finding Common Ground: Character Development in Ontario Schools, K-12.

van Slyck. M., Stern. M., & Zak-Place. J.(1996). *Promoting optimal adolescent developmen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training. and practice: An innovative approach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0>



\* 부록 1 -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물 전체

❶ [초등] 학습자용 교재



# 바르게 곱게 함께 무엇을 배울까요?

---



## 차례

-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1
-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 7
- 엉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 14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20
-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 25

##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학습 목표

- 자신이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아래 그림을 보고, 이 수업의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네 얼굴은 C급, 너네 집안은 B급”, 조선일보, 2017년 7월 11일자

(1) 아래 ‘서열’의 의미를 토대로, 서열의식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 서열(序列)

차례 서. 별릴 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또는 그 순서.



“서열의식”이란, \_\_\_\_\_

(2)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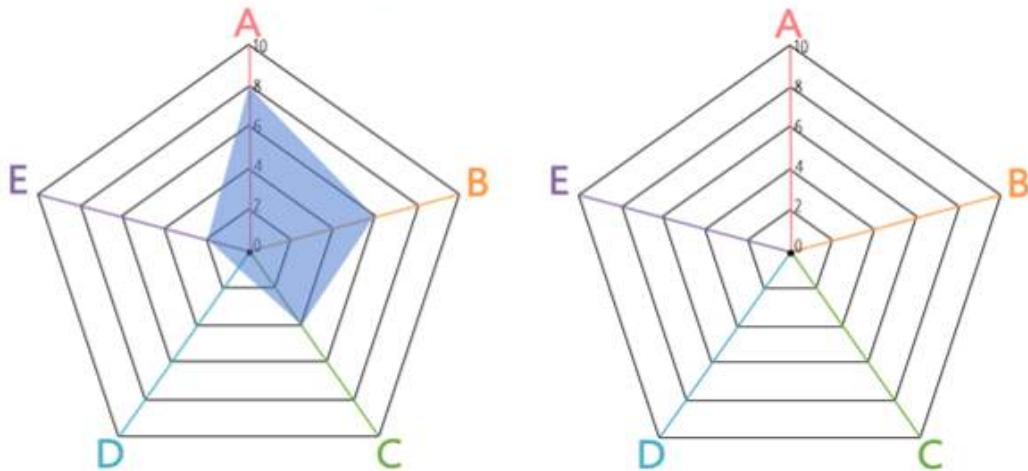
**활동 1** 나는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의 점검표를 통해 알아 봅시다.

(1) 다음 문장을 읽고, 해당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흰색 칸에 1~5점으로 표시해 봅시다.

• 5점: 정말 그렇다. • 4점: 조금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 1점: 정말 그렇지 않다.

1)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이 나의 외모를 지적하면 화를 내기 어렵다.					
2) 여럿이 함께 뭉쳐 다니는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힘들다.					
3) 아는 형이나 누나들이 많고, 인기있는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					
4) 나보다 덩치가 작은 친구가 나를 놀리면 덩치가 큰 친구가 놀렸을 때 보다 더 화가 난다.					
5)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딘지 모르게 생각이 더 깊고 논리적이다.					
6)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경기 중에 내가 한 실수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면 따지기 어렵다.					
7)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를 가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8) 학급 임원, 동아리 회장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 반대하기 어렵다.					
9)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가 우리집보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살펴보게 된다.					
10) 성적이 비슷비슷한 친구들과 말이 더 잘통한다.					
세로 칸 합계 점수					
	A	B	C	D	E

(2) A부터 E까지에 점수를 오각형 선 위에 표시한 후 왼쪽의 예시와 같이 연결하여 그린 후, 결과를 모둠원들과 비교하여 봅시다.



(3) A~E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친구를 평가하는 것일까요?

♦ A :

♦ B :

♦ C :

♦ D :

♦ E :

**활동 2** 6가지 대화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모둠 별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1.** 방과후 연기 수업 교실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남자 주인공이 수현이가 된 것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서진: 수현아~ 주인공 된 거 축하해! 네가 주인공 하고 싶다고 한 거 뭔가 의외였어.

수현: 아, 그래? 남자 주인공 성격이 나랑 비슷해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았어.

태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쩌지. 벌써 걱정된다.

서진: 그러게, 범수가 주인공 했으면 사람 엄청 많이 왔을 텐데. 범수가 아는 형, 누나들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현지: 수현아, 연극 공연 전까지 친구 좀 더 사귀어 봐.

서진: 그래, 맨날 노는 친구들이랑만 놀지 말고,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어야 좋지.

수현: \_\_\_\_\_

**2.** 체육 시간, 반에서 가장 운동을 가장 잘하는 혜석이의 주도 아래 반 대항 피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에서 던진 공을 은호가 잡았다.

혜석: 애들아! 이제 공 잡은 거 무조건 나한테 줘. 내가 던질게! 이러다 우리 지겠어.

그때 상대방에서 던진 공을 은호가 잡았다. 은호는 자신이 바로 던지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 직접 공을 던졌는데, 허무하게 상대가 피해버렸다.

유민: 야, 정은호! 너는 운동도 못하면서, 왜 그래! 무조건 혜석이한테 주라고!

은호: 내가 바로 던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지민: 아, 하여간 운동 못하는 애들은 작전도 이해를 못해요.

은호: \_\_\_\_\_

**3.** 여름 방학이 끝난 개학식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방학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다운: 준하야 너 얼굴 많이 탔다!

준하: 맞아, 방학 때 여기저기 놀러다니다 보니까.

다운: 나도 가족들이랑 서해 바다에 놀러 갔었는데!

채린: 준하네 엄마 의사야~ 준하는 외국 갔다 왔을걸? 맞지?

준하: 응. 나는 스페인 갔다 왔어. 바닷가 햇빛이 정말 강하더라.

다운: 난 부모님이랑 조개 주웠는데! 그리고 그거 같이 구워서 먹었는데 ...

성화: 스페인에서는 조개 안 주워, 다운아. 넌 좀 조용히 해봐. 준하 얘기 좀 듣자. 스페인 어땠어, 준하야?

다운: \_\_\_\_\_

4. 쉬는 시간. 어제 저녁, 단톡방에 진호가 올린 사진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 진호는 정민이의 허락없이 반 친구들이 대부분 초대되어 있는 단톡방에 정민이가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사진을 올렸다.

노을: 어제 단톡방에 진호가 올린 사진 봤어? 정민이 사진 완전 웃기지?

정민: 아... 김진호 진짜. 쉬는 시간에 자고 있는 거 몰래 찍었나봐.

정원: 근데 김현지는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토 나온다니.

노을: 야! 그래도 김현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지, 완전 예쁘잖아. 나머지 애들은 그런 말할 자격 없지만. 하하.

정민: 아무튼 김진호 나도 찍어서 복수할 거야.

정원: 김진호가 며칠 밤 새고 잠든 모습 찍어도 너보다는 나을 거다. 정민이 너 관리 좀 해라. 외모 관리도 다 노력이야, 노력.

정민: \_\_\_\_\_

5. 수학 시간, 모둠 별로 선생님께서 내 주신 문제를 함께 풀고 있다.

연우: 3번 답 2번이야. 다들 2번이라고 써.

우주: 그래? 4번 같은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곱해야 하는 거 아냐?

연우: 아~ 2번이라니까. 우주 너 왜 갑자기 수학에 의욕을 보이고 그래?

여원: 우주야, 너 지금 전교 1등한테 덤비냐? 연우는 이거 유치원 때부터 풀었을걸? 그냥 2번 적어. 다 맞히면 상품 준대.

우주: 나도 다 맞힐려고 말하는 거야. 4번 맞아.

민지: 2번이라고 쓰자. 헛갈릴 땐 연우 답으로 일단 가는 거지.

우주: \_\_\_\_\_

6. 점심 시간. 다음 주에 전학을 가는 혜정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혜정에게 어떤 선물을 할지 회의 중이다.

재원: 애들아, 다음 주에 혜정이가 전학가잖아.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

영주: 케이크 사서 파티해주는 거 어때?

시원: 그거 좋겠다. 그럼 돈을 건어야 겠네. 얼마 건을까, 반장?

재원: 5000원씩 건자. 풍선도 사서 꾸미고, 과자도 좀 사고 그러게.

영주: 5000원씩? 우리 반이 20명인데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냐?

시원: 영주야, 따지지 말고 일단 반장 결정에 따르자. 혜정이 오기 전에 정해야지. 반장이 이런거 결정하는 거야, 원래.

재원: 그래. 내일까지 5000원씩 가져와, 애들아.

영주: \_\_\_\_\_

- (1)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세요.
- (2) 서열의식이 담겨 있는 표현을 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3) 서열의식이 담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알잡아 보고 있나요?
- (4) (3)에서 답한 '기준'을 아래 그림의 맨 위 칸에 적어 넣은 후,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 (5) 우리 모둠에서 말은 대화 상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앞선 활동에 어떻게 답하였는지 반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시다.

**활동 3** 아래 5개의 기준으로 본인을 1~5점으로 평가하여 오각형 선 위에 표시하여 연결한 후,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b>A 외모</b>	1 2 3 4 5	· 5점: 아주 뛰어나다, 아주 많다, 아주 크다, 아주 잘한다, 아주 세다, 아주 높다 등
<b>B 인기, 세력</b>	1 2 3 4 5	· 4점: 괜찮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큰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센 편이다, 높은 편이다 등
<b>C 운동, 힘</b>	1 2 3 4 5	· 3점: 보통이다.
<b>D 성적</b>	1 2 3 4 5	· 2점: 괜찮지 않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작은 편이다, 잘 못하는 편이다, 약한 편이다, 낮은 편이다 등
<b>E 권위, 계층</b>	1 2 3 4 5	· 1점: 전혀 뛰어나지 않다, 매우 적다, 매우 작다, 매우 못한다, 매우 약하다, 매우 낮다 등

(1) 위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2) 다른 친구들이 위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그 결과가 모두 같을까요?

(3) 평소에 위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평가한 적은 없었나요?  
내가 가진 서열의식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 학습 목표

- 성차별적인 말을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성차별적인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성차별적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준비 활동** '~답게', '~처럼', '~같이' 몸으로 말해요!



- ① 모둠 대표를 뽑는다.
- ② 모둠 대표는 앞으로 나와 선생님께 '역할 쪽지'를 받는다.
- ③ 역할 쪽지에는 '~같이', '~처럼'과 같은 역할이 써 있다.
- ④ 모둠 대표는 역할 쪽지에 따라 선생님이 말하는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한다.
- ⑤ 모둠 대표가 몸으로 자신의 역할에 맞게 위의 행동을 설명하면 나머지 모둠원들이 모둠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맞힌다.

**활동 1** 6가지 대화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모둠 별로 논의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 <1>

점심 시간, 급식실. 바로 앞 시간인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해서 무척 배가 고팠던 수진이 빠르게 밥을 먹고 있다.

정훈: 수진아, 씹으면서 먹고 있는거지?

수진: 나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민주: 밥 먹는거 완전 남자같다.

정훈: 그러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수준이네.

수진: \_\_\_\_\_

### <2>

국어 시간. 선생님께서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다. 영화의 내용이 너무 슬퍼서 친구들이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실 민준이도 자꾸만 눈물이 났지만, 친구들이 볼까 조심하며 몰래 눈을 비비는 척하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진호: 야, 김민준! 너 우냐? 하하하하하.

민준: 아니야. 그냥 눈 비빈 거야.

진호: 우네, 울어. 애들이 민준이 운다.

현정: 와하하. 뭐가 슬프다고 우냐, 여자같이.

민준: \_\_\_\_\_

### <3>

쉬는 시간. 교실에 벌 한 마리가 교실로 들어왔다.

정연: 오악! 민규야 네 머리에 벌! 벌 앉았어!

민규: 오아아아아아아아!!!!!!!!!!!!!! 벌! 벌!!!!

지은: 야, 박민규. 왜 남자답지 못하게! 그냥 죽여!

현수: 에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창문으로 나갔어. 이제.

민규: \_\_\_\_\_

< 4 >

쉬는 시간.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경: 나 오늘 늦잠 자서, 완전 민낯이야.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승훈: 죄송한지만 ... 누구신지?

서경: 야! 죽을래? 지현아 너 틴트 없어? 나 틴트 한 번만.

지현: 틴트? 나 틴트 없는데?

승훈: 지현이 너는 어디가서 여자라고 하지 마라.

지현: \_\_\_\_\_

< 5 >

요리 실습 시간. 모듬별로 요리를 완성한 후 나누어 먹고 있다.

채연: 우리 모듬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다.

지훈: 와~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채연: 에이~ 반절이나 남았는데? 그럼, 내가 먹어도 돼?

혁수: 지훈이 너는 어떻게 밥 먹는 양이 여자보다 더 작냐. 와하하하.

지훈: \_\_\_\_\_

< 6 >

쉬는 시간.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우: (핸드폰 화면으로 자신을 비춰 보며) 아, 오늘 머리가 너무 이상하네.

현자: 뭘, 평소랑 똑같은데.

진우: 아냐, 뒷머리가 너무 뒹어.

현자: 나는 오늘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왔는데.

규태: 현지 네가 진우보다 훨씬 남자답다. 야. 하하하하.

현자: \_\_\_\_\_

- (1) 성별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말들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밑줄 그은 말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 (3)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성차별적인 말을 들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4)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 (5)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대화의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말”을 써 봅시다.

모둠원 이름	제안한 표현

◆ 우리 모둠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말:

◆ 이 말을 선택한 이유:



**활동 2** 아래의 글을 읽고, 성차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동그라미하고, 성차별적 생각이 드러난 말에는 밑줄을 그어 봅시다.

겨울 방학 기간, 지현이네 반 친구들 모두 ‘사랑의 도서 나눔’ 봉사활동을 갔다. 책을 받고 기뻐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신이 난 지현이는 하나라도 더 나르고 싶은 마음에 두꺼운 책을 한 번에 여러 권씩 나르고 있었다.

건호: 지현아, 너무 무겁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지현: (부끄러워 하며) 응? 아니야. 내가 들 수 있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건호: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다쳐. 내가 두 권 가져간다!

지현: 정말 괜찮은데, 네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잖아.

건호: 에이~ 지현아, 난 남자잖아. 안 무거워.

건호는 지현이보다 훨씬 많은 책을 들고 있었는데도, 지현이가 나르던 책 두 권을 자기 책 위에 올리면서 방긋 웃고는 지현이를 앞서 갔다. 평소에 건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지현이는 자신을 배려해 주는 건호의 모습이 기분 좋고, 설렘. 그 때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지현이를 빠르게 쫓아 와서 말을 걸었다.

서경: 어머! 지현아, 건호도 너 좋아하나 봐!

지현: 조용히 해!

서경: 원래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보호해 주려고 한대! 널 좋아하는 게 확실해!

승훈: 건호 정말 남자답다. 저렇게 많이 들고도 하나도 무거워 하지 않네. 난 지금도 팔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현: 하하하!

서경: 하하하! 나한테 줘, 내가 들어 줄게.

도서 나눔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현이는 우연히 건호를 다시 만났다.

지현: 건호야, 아까 고마웠어. 너야말로 책 엄청 많이 나르던데 안 무거웠어?

건호: 응! 괜찮아. 나도 책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

지현: 넌 참 남자다운 것 같아.

건호: (얼굴을 붉히며) 와~ 정말?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다. 고마워.

그날 밤, 지현이는 자신을 도와준 건호가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 새벽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

잠들기 어려운 건 진호도 마찬가지였다. 진호도 평소에 지현이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호는 남자답다는 지현이의 말이 자신을 남자로 느낀다는 표현인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 (1) 모둠원들과 답을 비교하며, 각각의 인물이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아래에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성차별적 생각을 한다		성차별적 생각을 하지 않는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p>지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p>건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p>서경</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p>승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1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2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35px;">◆</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5px; top: 45px;">◆</div> </div>

- (2) 다른 모듬의 발표를 듣고, 우리 모듬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견을 추가하여 위에 정리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인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봅시다.

(3) 이 글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앞서 <활동 1>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대화에서 나타났던 성차별적 표현과 비교하여 답해 봅시다.

(4) 이러한 성차별적 표현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5) 앞서 밑줄을 그었던 성차별적 표현을 찾고,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고쳐 보세요.



**정리 활동** 아래의 두 영상을 보고, 성차별적 표현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한 마디를 완성해 보자.



<Always #Like a girl>



<앞으로 저 같은 학생이 체육 시간에 모래만 보고 있는 일은 없길>

나는 그냥 \_\_\_\_\_ 다울 뿐이야!

## 영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 학습 목표

- 부모님과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모님과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나의 마음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준비 활동** 영상을 보고, 다음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해 봅시다.



(1) 엄마는 딸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2) 대화 속에서 딸의 잘못된 말과 태도는 무엇인가요?

(3) 딸은 왜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만약 나라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활동 1** 다음의 질문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 엄마·아빠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엄마·아빠께 상처받은 말은 무엇인가요?

(2) 엄마·아빠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붙임폭지에 적어 봅시다.



(3)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를 고르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 엄마·아빠께서 그러한 말을 하신 이유

◆

◆

◆

**활동 2** 다음의 질문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 내가 엄마·아빠께 가장 많이 하는 말,  
엄마·아빠께 상처 준 말은 무엇인가요?

(2) 엄마·아빠께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붙임쪽지에 적어 봅시다.



(3)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를 고르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 자녀가 그러한 말을 한 이유

◆

◆

◆

**활동 3** 다음의 질문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 엄마·아빠께서 해 주신 따듯한 말,  
엄마·아빠께 위로 받은 말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나요? 배경 상황을 적어 주세요.

붙임폭지에 적어 봅시다.



(3) 가장 감동 받은 말 세 가지를 고르고 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감동 받은 말 세 가지, 감동이 된 이유

◆

◆

◆

**활동 4**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운문>

가장 받고 싶은 상

4덕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아득 거도 하지않아도  
자중/쉬안/독정에도  
어렵잖아 자러 지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 했던  
반찬들만  
한가득 담을 게요.

하루에 세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은 엄마 얼굴 (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못 받았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죽은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놔던 말  
어제는 받기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내어 놓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있어요.



(1) 시에서 '나'가 후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는 엄마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지 못했나요?

**정리 활동** 다음의 문자 메시지를 채워 봅시다.

(1) 연두색 칸에 엄마·아빠께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말을 적어 봅시다.



(3) 엄마·아빠께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말과 함께 보낼 그림말을 그려 봅시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학습 목표

-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준비 활동** 영상을 보고, 다음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해 봅시다.



- (1) 영상에서 말하는 '전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2) 이 '전염병'은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 또는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 (3) 청소년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 학생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1) 여러분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는 과학자입니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언어문화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 곳곳에 숨겨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2) 다음의 분석 카드를 순서대로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어 봅시다.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1) 여러분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는 과학자입니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언어문화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 곳곳에 숨겨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분석해 봅시다.

(2) 다음의 분석 카드를 순서대로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어 봅시다.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❶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나요?

❷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았으니 이제 백신(치료약)을 만들어 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백신을 만들어 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과 글이 바이러스로 퍼져 전염병이 되었듯이

고운 말, 용기 있는 글 한마디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퇴치! 백신(치료약) 만들기

- ❶ 모둠에서 퇴치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하나 선택합니다.
- ❷ 친구들과 상의하여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합니다.
- ❸ 바이러스에 걸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각자 적습니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요?

❖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

###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퇴치! 백신(치료약) 만들기

- ❶ 모둠에서 퇴치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다시 선택합니다.
- ❷ 친구들과 상의하여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등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합니다.
- ❸ 바이러스에 걸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각자 적습니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요?

❖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 (3) 모둠원과 답변을 공유한 뒤, '최고의 답변'을 고르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이름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곳

❖ 최고의 답변

❖ 최고의 답변으로 선택한 이유

**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



**(1)** 바이러스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봅시다.



**(2)** 이러한 말을 떠올린 이유, 또는 전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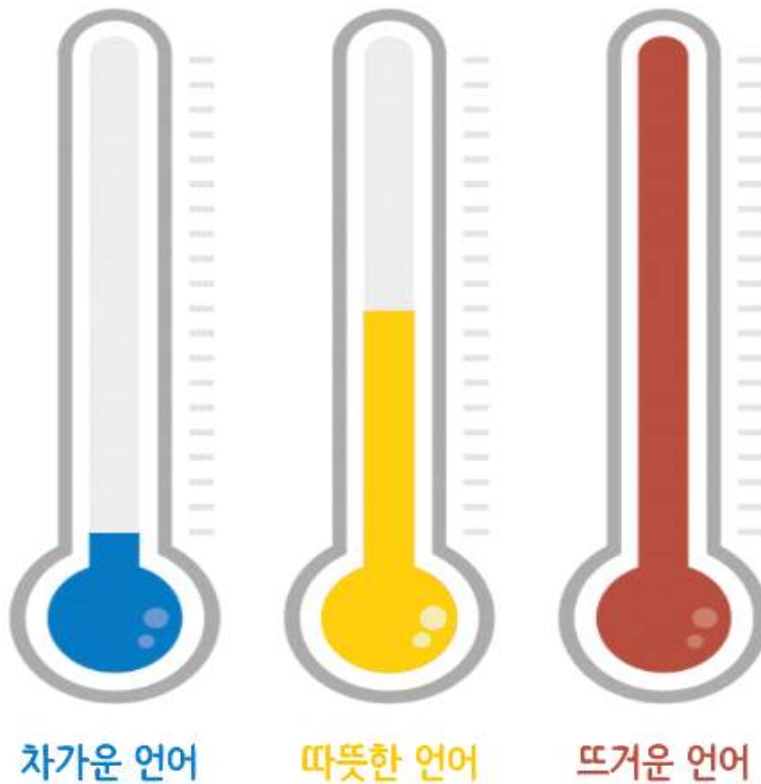
##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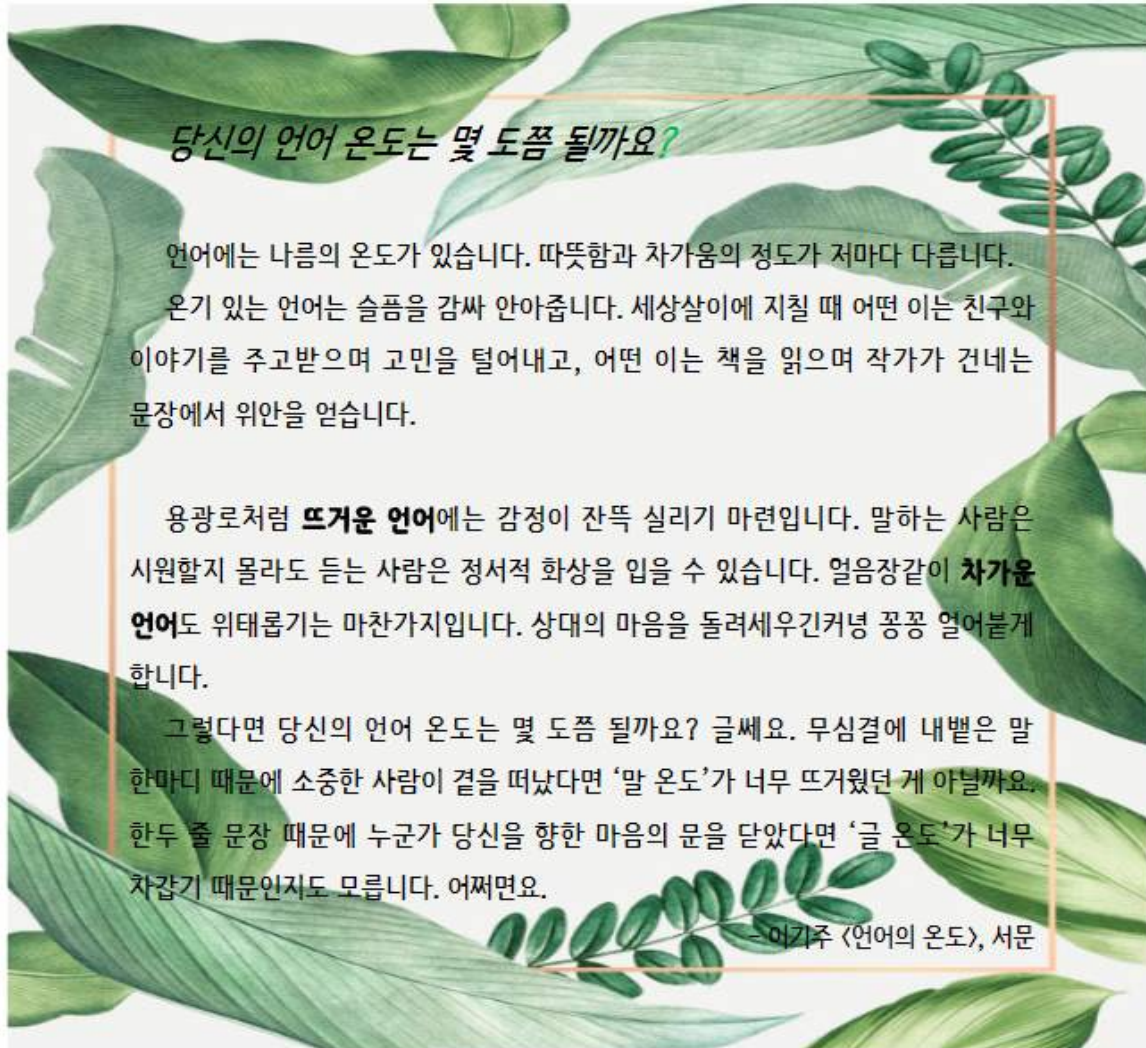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언어에 온도가 있다면 '차가운 언어', '따뜻한 언어', '뜨거운 언어'는 각각 어떤 언어를 의미하는 것일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1** 언어의 온도를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아래의 글을 읽어 봅시다.



(1) 글 속에서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의 의미를 찾아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

• **차가운 언어:** \_\_\_\_\_

• **뜨거운 언어:** \_\_\_\_\_

(2)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따뜻한 언어의 의미를 만들어 봅시다.

• **따뜻한 언어:** \_\_\_\_\_

\_\_\_\_\_

**활동 2** 아래의 순서에 따라, 언어의 온도에 대한 나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 사연지 가장 위쪽에 자신의 별칭을 쓴다. 자신의 사연인 게 공개되어도 좋다면 실명을 쓴다.
- (2) '차가운 언어', '뜨거운 언어', '따뜻한 언어'와 같이 말에서 온도를 경험했던 경험을 하나 떠올려 사연지(29쪽)의 줄이 그어진 공간에 쓴다. 줄이 없는 상자 공간은 비워 둔다.
- (3) 사연을 적을 때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적는다.
- (4) 사연지에 있는 온도계에 자신이 경험한 그 말의 온도가 몇 도쯤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한다.
- (5) 사연을 다 작성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사연함에 넣는다.
- (6) 모두가 사연지를 사연함에 넣은 후, 동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연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 (7) 사연함을 받은 사람은 사연함에서 하나의 사연을 뽑고 사연자는 누구인지, 사연 속 언어의 온도 몇 도인지 사연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 (8) 사연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 (9) 자신이 뽑은 사연지를 챙겨 두고 다음 사람에게 사연함을 넘긴다.
- (10) 이런 방식으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을 하나씩 뽑아 소개한다.

**활동 3** 아래의 순서에 따라 따뜻한 위로의 말, 공감의 답글을 적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답글을 사연지 아래쪽 상자 안에 적는다.
- (2) 다 적은 후,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답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3) 답글 발표가 끝나면 사연지는 다시 접어 사연함에 넣고 사연함을 옆 친구에게 넘긴다.
- (4)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에 대한 답글을 나눈다.
- (5) 수업 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연지를 찾아 간다.





사연자:

언어의 온도:   도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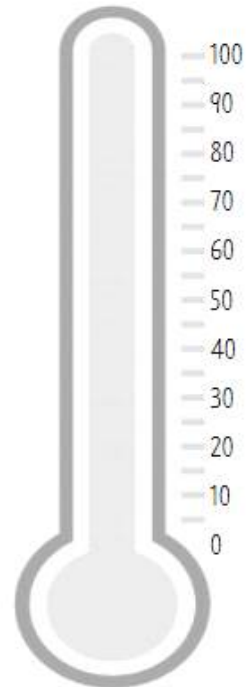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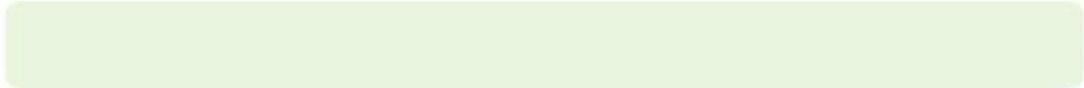


**정리 활동** 아래의 영상을 보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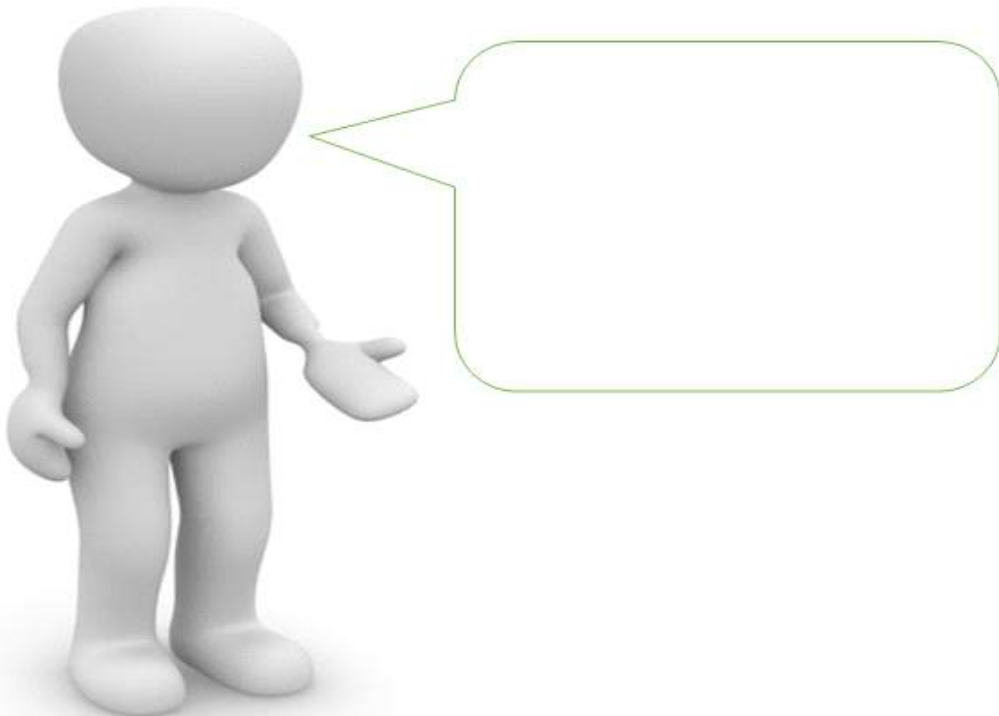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5~74살에게 물었다〉

- (1) 먼훗날 어른이 되어서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아래의 사람 그림 위에 덧그려 보세요.



- (2) 오늘 말에 대한 기억을 소개했던 것 처럼 친구가 내가 한 어떤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나요? 기억되길 원하는 말을 아래의 말풍선에 써 보세요.



# 바르게 곱게 함께

## 교사용 지도안



-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1
-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 5
- 엉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 9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14
-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 18

부록 수업 준비물



국립국어원

【핵심가치·덕목: 존중, 공감】

##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학생들의 폭력적 언어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친구를 알보는 생각을 개선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외모, 운동 능력, 덩치, 힘과 같은 기준에 따라 친구를 알보는 생각은 학교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열의식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 되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동의 기반이 된다.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폭력적 언어사용 개선의 첫걸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의식의 부당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화 속에 나타나는 서열의식을 찾고 그 기준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마땅히 강요되어야 할 삶의 방식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 ■ 학습 목표

- 자신이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차시
도입 [인식]	【학습 목표 확인】 【동기 유발】 서열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 찾아보기	1차시
전개 [실제]	【활동 1】 서열의식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서열의식 인식하기 【활동 2】 서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대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	
정리 [성찰]	【활동 3】 내가 가진 서열의식을 나에게 적용해 보기 【학습 내용 정리하기】	2차시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서열의식의 의미 이해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 찾아보기**

- ① 조선일보(2017년 7월 11일 자) 기사 “네 얼굴은 C급, 네 집안은 B급”의 삽화를 보고 수업의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시 답안)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은 얼굴이나 집안 같은 기준으로 누가 더 예쁘고, 못생겼는지,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는지를 구별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 같다.
- ② 삽화 중간에 있는 “서열 놀이”라는 말에 나타나 있는 “서열”의 사전 정의를 읽고 서열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본다.  
(예시 답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
- ③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예시 답안) 성적, 외모, 운동 능력, 세력, 힘, 덩치 등
- ④ 그러한 서열의식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은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 모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설명한다.

**교사 설명 예시** 여러분, 학교 안에는 ‘서열, 세력, 권력’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서열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열’은 흔히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흔히 ‘센 사람과 약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나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따위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열의식은 비단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더 나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나면, 자신보다 서열이 낮다고 판단한 상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 (2) 전개

❖ **【활동 1】 서열의식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서열의식 인식하기**

- ① 서열의식 점검표를 작성한다.
  - 서열의식 점검표의 1~10번 문항에 진술된 내용에 대하여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5점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4점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3점을,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점을, 정말 그렇지 않다면 1점을 문항 옆에 하얀색 칸에 적어 넣는다.

**활동 해설** 학습자들이 이런 형태의 설문지에 답하거나, 오각형 형태로 결과를 그리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각 문항에 대하여 1~5점까지 점수를 적어 넣도록 한 후에 점수를 합계하는 과정을 학급 전체 활동으로 교사의 설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 10개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다 주고 나면 동일한 세로 줄의 하얀색 칸에 적힌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세로 칸 합계 점수에 써넣는다.
- 세로 칸 합계 점수 아래에는 각각 A~E까지 기호가 적혀있다. 각 점수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오각형 그림에서 찾아 해당 알파벳 선 위에 점을 찍어 표시한 후, 다섯 개의 점을 연결하여 자신의 서열의식 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교사 설명 예시** 자, 다 함께 서열의식 점검표의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우선 세로 칸 합계 점수를 함께 계산해 보죠. 첫 번째 A칸입니다. 같은 세로 줄에 흰색 칸으로 점수를 준 문항은 1번과 7번입니다. 만약 1번에 2점을 7번에 3점을 주었다면, A 칸에 두 점수의 합인 “5”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B칸입니다. B칸 세로 줄에 흰색 칸으로 점수를 준 문항은 2번과 3번입니다. ... (중략) ...

다음으로 아래 오각형에 세로 칸 합계 점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A칸은 아까 5점이 나왔었죠? 그러면 오각형 그림에서 A칸

에 해당하는 분홍색 줄 위에 자신의 점수를 점을 찍습니다. 5점이거나 4점과 6점 가운데에 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B 칸입니다. ... (중략) ... 자 다섯 개의 선에 점을 다 찍었으면 점끼리 연결한 후 그 안에 색을 채워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어떤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둠원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서로 확인해 봅시다. 면적은 누가 가장 넓고, 누가 가장 좁은가요?

물론 이 점검표는 우리의 서열의식의 아주 일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질문의 수도 많지 않고요. 따라서 이 결과만 가지고 누군가는 서열의식이 아주 심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서열의식에는 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열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더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② 각자 자신의 점검 결과를 모둠원들과 비교하며 확인한다. 어떤 부분에 점수가 가장 높고 낮은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 면적이 얼마나 넓고 좁은지도 이야기해 본다.

- ③ A~D에 해당하는 각각의 질문들이 어떤 기준에 의한 서열의식인지 추측하여 이야기해 본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대표성이 있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정리해 준다.

(예시 답안) A: 외모, B: 인기, 세력, C: 운동, 힘, D: 성적, E: 권위, 계층

❖ **【활동 2】 서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대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

- ① 모둠별로 활동지에 제시된 [대화 상황 1~6]을 나누어 맡은 후,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여 보게 한다.

**활동 해설** 대화 상황 1~6에는 서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들이 담겨 있다. 1~6에는 각각 본 프로그램에서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식의 대표 기준으로 삼은 '외모', '인기/세력', '운동/힘', '성적', '권위/계층'에 대한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대화 상황 1] '인기/세력'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범수'와 '수현'이를 비교하는 서진은 자신의 기준을 수현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인기가 많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지와 서진은 '수현'에게 자신들의 기준(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을 수현이를 위한 것처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화 상황 2] '운동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운동 능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해석과 은호는 자신의 기준(운동을 잘하는 것이 좋다)에 따라 운동을 잘 못 하는 친구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대화 상황 3] '계층(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겨 있는 텍스트. 채린이와 성화는 의사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준하의 경험을 다윤이의 경험보다 더 좋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채린이는 다윤이의 경험을 무시하고 중간에 말을 끊는 행동도 보이고 있다.

[대화 상황 4] '외모'를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노을이는 얼굴이 예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분하고 얼굴이 예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심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원은 또 다른 친구와 정민이의 외모를 비교하며 정민이의 외모를 무시하고, 외모에 대해 더 노력하라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대화 상황 5] '성적'을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연우는 '왜 갑자기 수학에 관심을 보이냐'며 자신과 다른 답을 주장하는 우주를 무시하고 있으며, 여원이는 연우와 우주를 비교하며 우주를 무시하고 있다. 민지도 헛갈릴 때는 우선 성적이 높은 연우의 답을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화 상황 6] '권위'를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사원이는 영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준을 영주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원 역시 영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 (1)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세요.
- (2) 서열의식이 담겨 있는 표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3) 서열의식이 담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얕잡아 보고 있나요?
- (4) (3)에서 답한 '기준'을 아래 그림의 맨 위 칸에 적어 넣은 후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활동 해설** 서열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언어사용은 자신이 특정한 기준에 대해서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질문 (4)번의 그림 속 일련의 질문들은 이러한 우월 의식이 절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신이 조절할 수 없는 '타고 난' 것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는 학생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그것이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노력하지 않음'을 비판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성적이나 외모 관리'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일로 강요되는 것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노력해야 마땅한 것 혹은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만약 여러분에게 램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램도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램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면 어떨까요?'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 성적이나 외모도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은 개인에게 강요될 만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도록 한다.

- ② 모둠별로 학급 구성원들에게 모둠에서 담당했던 대화 상황을 소개하고, (1)~(4)에 대한 답을 학급 구성원에게 발표한다.
- ③ 교사는 조별로 제시한 답안을 칠판에 적고 어떤 표현이 가장 좋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 ⑥ 적당한 언어적 전략이 도출되지 못하면 교사는 아래의 예를 제안해 볼 수 있다.
  - 단순히 타고난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 나에게 그것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야.
  - 어떤 한 가지를 너보다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기준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 (3) 정리

#### ❖ [활동 3] 내가 가진 서열의식 나에게 적용해 보기

- ① 이 활동에서 다룬 서열의식 기준 5가지에 대하여 자신을 평가한 후 오각형에 결과를 그려 본다.
- ② 다른 사람들이 5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모두 결과가 같을지 생각해 본다.
- ③ 평소에 5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한 경험이 없었는지 떠올려 보고, 자신이 가진 서열의식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활동 해설** 질문 (1)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5가지 기준이 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2)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할지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는 질문으로,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억압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3)은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무시와 조롱, 혐오와 폭력성이 반드시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의식이 타인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서열의식을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자신이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서열의식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외모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한다. 따라서 교사는 마지막 질문을 통해 자신이 만든 기준에 의해 스스로가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게 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자신의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학습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존중, 배려】

## 성별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학습자들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일부 학습자들은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인 의도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도 없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편견이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성차별적 표현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학교급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해 직접 언급한 표현을 다룬다. 학습자들은 언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찾고, 그러한 편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해 보는 활동을 통해 남자다움 내지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의 고유 권리인 삶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대화 상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을 때 차별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자 하였다.

### ■ 학습 목표

- 성차별적인 말을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성차별적인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성차별적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차시
도입 [인식]	【동기 유발】 ‘~답게’, ‘~처럼’, ‘~같이’ 몸으로 말해요! 【학습 목표 확인】	1차시
전개 [실제]	【활동 1】 ‘여자다움/남자다움’에 대한 강요 및 비하가 담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 【활동 2】 칭찬·공정하는 방식으로 ‘여자다움/남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고쳐보기	
정리 [성찰]	【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학습 내용 정리하기】	2차시

## ■ 활동 세부 절차 ※주의: 학습 내용 소개, 학습지 배부, 학습 목표 소개 모두 동기 유발 활동 이후 진행

### (1) 도입

#### ❖ 【준비 활동】 ‘~답게’, ‘~처럼’, ‘~같이’ 몸으로 말해요!

- ① 모둠의 인원이 4~6명으로 구성된 4~6개의 모둠을 만든다.
- ② 교사는 놀이의 규칙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들은 후 모둠 대표로 앞에 나와 제시어를 설명할 친구를 뽑는다.

**교사 설명 예시** 이 놀이는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모듬의 대표가 앞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몸으로 표현하면, 나머지 모듬원들은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이지요. 몸으로 문제를 낼 모듬 대표를 뽑으면 각 모듬의 대표들은 앞으로 나와서 저(선생님)에게 역할 쪽지를 하나씩 받습니다. 쪽지에는 ‘무엇답게’, ‘무엇처럼’ 혹은 ‘무엇같이’와 같은 지령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처럼’, ‘학생답게’와 같은 식으로요. 모듬 대표는 역할 쪽지의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혼자 확인을 합니다. 모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듬원들은 바로 이 지령 쪽지의 내용을 맞히면 됩니다. 모듬 대표가 몸으로 무엇을 표현하는지 잘 보고 친구가 ‘무엇’처럼, ‘무엇’같이, ‘무엇’답게 행동하는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모듬 대표가 각자 역할을 확인하면 선생님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4개의 제시어를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듬 대표들은 교실 앞쪽에서 나머지 조원들이 쪽지의 내용을 맞힐 수 있도록 몸으로 제시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시어 ‘잠을 잔다’하고 외치면, ‘아기처럼’을 뽑은 모듬 대표는 ‘아기처럼 잠을 자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개의 제시어를 모두 몸으로 표현한 후에 나머지 모듬원들이 정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모듬 대표로 앞에 나와 문제를 설명할 친구를 뽑아 주시고요, 선정된 대표는 앞으로 나와 주세요.

- ③ 모듬 대표는 모두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에게 역할 쪽지를 하나씩 받는다. 역할 쪽지에는 ‘여자답게’, ‘남자답게’, ‘여자처럼’, ‘남자처럼’, ‘여자같이’, ‘남자같이’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 ④ 학생들이 쪽지를 뽑은 후 교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4개의 제시어를 외친다. 하나의 제시어를 외친 후 해당 행동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음 표현으로 넘어간다.  
(제시어 예) 뛰기, 던지기, 싸우기, 먹기, 울기 등
- ⑤ 네 개의 제시어에 대한 묘사가 끝난 후, 모듬원들은 자신의 모듬 대표가 뽑은 역할이 무엇일지 상의하여 정답을 말한다. 정답이 틀렸을 경우, 다른 답을 할 기회를 2~3회 정도 더 부여하여, ‘무엇’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이때 학습자들이 말한 다양한 답을 판서하여 학급 구성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해 준다.
- ⑥ 정답을 공개하고, 칠판에 판서한 다양한 오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자’ 혹은 ‘남자’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활동 해설** 이 활동은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여자가 싸우거나 달리는 모습은 소극적인 모습, 귀엽고 연약한 모습 등으로, 남자가 울거나 밥 먹는 모습은 눈물을 애써 참는 모습, 밥을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 등으로 표현할 것을 예상한 활동이다. 이 활동은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대해서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둔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제시한 정답과 오답을 성차별적 편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성찰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답을 쉽게 맞히면 ‘어떻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와 같은 추가 질문을 통해, 해당 성별에 대해 보편적으로 부여된 편견과 선입견을 스스로 인식하여 말할 기회를 주고,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여성을 혹은 남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오답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남자처럼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정답을 ‘동물’ 따위로 답을 했다면, ‘여째서 답이 동물이라고 생각했나요?’, ‘친구가 동물이라고 답을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남자를 표현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이 특정 성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인식하고 마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활동 해설** 준비 활동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제시어의 수를 2개 정도로 줄이거나, 준비 활동을 모듬별로 진행하지 않고 전체 학급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몸으로 문제를 낼 학생을 2~4명 선발하고, 학급 구성원 전체가 모듬 구별 없이 문제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이후 【활동 1】부터 다시 모듬 활동을 하므로, 준비 활동 운영 방식과 별개로 수업 시작 단계에서 모듬을 미리 구성해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2) 전개**❖ **【활동 1】 상대를 비하하거나 적의를 보이는 방식으로 '여자다움/남자다움'을 강요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

- ① 모둠별로 활동지에 제시된 [대화 상황 1~6]을 나누어 맡은 후,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여 보게 한다.

**활동 해설** 대화 상황 1~6에는 대화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여자다움' 혹은 '남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이 담겨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자답지 못하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여자 같다'와 같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여자답지 못하다'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남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해당한다.

[대화 상황 1] 여자를 '남자 같다'고 조롱하는 텍스트. 민주가 '남성성(남자는 밥을 허겁지겁 먹는다는 편견)'을 부정적으로 표현.  
 [대화 상황 2] 남자를 '여자 같다'고 비하하는 텍스트. 현경이가 '여성성(여자들은 겁이 많다는 편견)'을 부정적으로 표현.  
 [대화 상황 3]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다'고 비하하는 텍스트. 지은이가 '남성성(남자는 겁이 없다는 편견)'을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  
 [대화 상황 4] 여자를 '여자답지 못하다'고 비하하는 텍스트. 승훈이 '여성성(여자는 치장에 관심이 많다는 편견)'을 긍정적으로 표현.  
 [대화 상황 5] 남자를 '남자답지 못하다'고 조롱하는 텍스트. 혁수가 '여성성(여자 밥을 조금 먹는다는 편견)'을 부정적으로 표현.  
 [대화 상황 6] 여자를 '남자 같다'고 조롱하는 텍스트. 규태가 '남성성(남자는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긍정적으로 표현.

- (1)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말들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밑줄 그은 말 속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 (3) 편견이 담겨 있는 표현을 들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4)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 (5)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대화의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말”을 써 봅시다.

**활동 해설** [활동 1]의 1번과 2번 질문이 성차별적 표현을 찾고, 그것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라면 질문 3번과 4번은 성차별적 표현이 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며, 그래서 그러한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활동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여자다움 혹은 남자다움에 대한 강요가 가진 폭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3~4번 질문에 대한 답이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남잔데 여자라고 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놀림이 '바보, 멍청이'와 같은 놀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대화 속에 나타나는 비하와 조롱의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러한 강요는 '자기답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개인의 삶의 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폭력성을 지닌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② 모둠별로 학급 구성원들에게 모둠의 대화 상황을 소개하고, (1)~(5)에 대한 답을 학급 구성원에게 발표한다. 이때 (5)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이 제안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발표한다.

❖ **【활동 2】 칭찬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여자다움/남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고쳐보기**

- ① 학생들은 각자 대화를 읽고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 밑줄 그고 성차별적 생각을 하는 사람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해 본다.
- ② 각자 생각을 정리한 후, 모둠원들과 함께 답을 비교하며 대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이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 ③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의 모둠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견을 추가로 정리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인물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본다.

**활동 해설** 학생들이 모둠에서 토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때, 교사는 판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표를 그려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학급 구성원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지현	진우	서경	승훈	희진	건호	체육 선생님
1모듬	○	△	×	○	△	○	△
2모듬	○	○	○	○	○	○	×
3모듬	○	○	×	○	○	○	×
4모듬	×	○	○	×	○	×	△

특히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는 인물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좋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만들기

① 다 함께 아래 두 동영상 시청한다.

- <앞으로 저 같은 학생이 체육 시간에 모래만 보고 있는 일은 없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c9HHQD9les>

- <Always #LIKEAGIRL>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jJQBjWYDTs>

②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의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한 마디'를 빈칸을 채워 완성한다.

(예시 답안) “나는 그냥 나다울 뿐이야.” 혹은 “나는 그냥 이지현다울 뿐이야.”

**활동 해설** 영상의 2분 38초에 “이제 여자애같이 달려보라고 한다면 다르게 달릴 것 같나요?”라는 질문이 나온다. 영상 속 인물은 “네, 저답게 달릴 거예요.”라고 답을 한다. 학습자들이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한 마디를 채우기 어려웠다면 2분 38초에서 영상을 멈추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활동지의 빈칸에는 ‘나’라고 써넣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예의, 효】

## 영킨 대화를 푸는 사랑의 한마디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해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구안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언어문화가 담긴 실제 사례를 보여주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인식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고자 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대화를 두루 점검하면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잘못된 언어 문화를 형성하는 언어 표현이 무엇인지 검토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모님께 들은 감동적인 말을 살피고, 굳이 부모님에게 쓴 실제 초등학교생의 시를 감상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부모님께 사랑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 ■ 학습 목표

-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나의 마음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차시
도입 [인식]	【준비 활동】 엄마·아빠와의 소통, 잘 하고 있나요? 【학습 목표 확인하기】	1차시
전개 [실제]	【활동 1】 엄마, 아빠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활동 2】 엄마, 아빠 내 말에 상처 받았어요?	
	【활동 3】 엄마, 아빠 말에 감동 받았어요!	2차시
정리 [성찰]	【활동 4】 엄마·아빠에게 전하지 못한 말	
	【정리 활동】 엄마·아빠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	
	【학습 내용 정리하기】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 【준비 활동】 엄마-아빠와의 소통, 잘 하고 있나요?

- 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나타난 영상(2분 24초)을 함께 시청한다.
  - <유자식 상팔자> URL: <https://youtu.be/l7HRJQNfqUg>
- ② 부모와 자녀의 잘못된 대화 방식 또는 언어 사용의 문제를 찾고, 그러한 언어 문제가 나타난 이유와 각 인물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활동 해설** 이 영상은 대답 없이 휴대 전화 게임만 하는 아이가 못마땅한 엄마(갑경)와 자주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싫어서 침묵하는 딸(석희)의 모습을 보여준다. 엄마는 책임을 추궁하며 계속 잔소리를 하고, 딸은 엄마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때 교사는 부모의 태도나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휴대 전화에 몰두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부모님의 기분이 어땠을지 물어본 뒤 자녀의 잘못된 말과 태도를 찾아보게 하여 “석희가 대답을 안 하고 휴대 전화만 보네.”라고 잘못된 대화 방식을 분명히 전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가 무서워 대화를 회피하거나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침묵하기도 한다. 석희의 태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석희는 왜 대답을 안했을까?”라고 물으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그렇지만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무시당했다는 오해를 하게 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말과 태도에 상처받는 부모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녀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하면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인식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 【학습 목표 확인하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2) 전개

#### ❖ 【활동 1】 엄마, 아빠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 ① 4~5개의 모둠을 만든 뒤 불임쪽지를 나누어 갖는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주 듣는 말 또는 상처 받은 말을 불임쪽지에 적고, 부모님이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활동지에 적는다.
- ② 모둠별로 나와 불임쪽지를 칠판에 붙인다.
- ③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사연을 모아 분류한다.
- ④ 반 전체가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를 선정하고, 부모님이 그러한 말을 한 이유를 함께 논의한다.

**활동 해설** 예상되는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 상처받은 말의 예로는 “공부 좀 해라.”,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네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책 좀 읽어.”, “휴대 전화 없애버린다.”, “밥 좀 먹어.” 등 주로 공부와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 “그만 먹어. 살 쪼.”, “XX자식, 난 정말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와 같이 조롱이나 욕설 등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표현도 나올 수 있다.

이때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께 들은 공격적인 말이나 욕을 이야기할 수 있다. 교사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OO는 ~~한 경험을 했구나. XX는 어떤 경험을 했니?”와 같이 감정이 아닌 사실만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의 사례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자제시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자극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몇몇 학생은 자신이 잘못된 상황에서 듣게 되는 훈계, 조언 등을 단순히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발표할 수도 있다. 또는 친구의 사례를 듣고 친구가 아닌 부모님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기도 한다. 부모님이 그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하며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경험을 깊이 검토하게 하고, 가장 공감 가는 사례를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일어나게 한다. 또한 불임쪽지를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 경험한 내용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 【활동 2】 엄마, 아빠 제 말에 상처 받았어요?

- ① 교사는 모둠별로 붙임쪽지를 다시 나누어 준다.
- ②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주 하는 말 또는 상처 준 말을 붙임쪽지에 적고,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활동지에 적는다.
- ③ 모둠별로 나와 붙임쪽지를 칠판에 붙인다.
- ④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사연을 모아 분류한다.
- ⑤ 반 전체가 가장 공감이 가는 말 세 가지를 선정하고, 자녀가 그러한 말을 한 이유를 함께 논의한다.

**활동 해설** 부모님에게 자주 하는 말이나 상처준 말로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도 몰라? 귀찮게 물어보지 좀 마.”와 같이 폐쇄적인 의사소통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아, 짜증나.”, “내 건데 왜 마음대로 건드려?”, “용돈이나 줘.”처럼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거나 빈정대는 말이 나올 것이다. 또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나 진짜 성형할거야.”, “부끄러우니까 학교 오지 마.”와 같이 부모님에게 창피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엄마(아빠)가 뭔데, 나한테 해 준 거 있어?”, “난 엄마(아빠) 같은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누가 낳아 달랬어?”처럼 일부러 상처 준 말을 적기도 한다.

일부 학생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교사는 당황하지 않고 위의 활동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활동 3】 엄마, 아빠 말에 감동 받았어요!

- ① 딸에게 하지 못한 말을 붙임쪽지로 전달하는 아빠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1분 6초)을 시청한다.
  - <[지금, 포스트잇]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 URL: <https://youtu.be/1IGzvj-ujTA>
- ② 교사는 모둠별로 붙임쪽지를 다시 나누어 준다.
- ③ 부모님께 들었던 따뜻한 말, 위로가 되었던 말을 붙임쪽지에 적고 그러한 말을 듣게 된 배경을 활동지에 적는다.
- ④ 모둠별로 나와 붙임쪽지를 칠판에 붙인다.
- ⑤ 반 전체가 가장 감동 받은 말 세 가지를 선정하고, 감동 받은 이유를 함께 논의한다.

**활동 해설** 해당 영상은 아빠가 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10대 신조어를 찾아 배우고 붙임쪽지로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이 넉넉한 경우, 전체 영상(3분 26초)을 시청하도록 한다. ‘할머니께 전하는 손녀의 붙임쪽지’, ‘엄마의 사랑이 담긴 붙임쪽지’의 내용이 이어서 등장한다.

## (3) 정리

## ❖ 【활동 4】 엄마-아빠에게 전하지 못한 말

- ① 초등학생이 부모님에게 쓴 시를 함께 읽는다. 교사는 시의 창작 배경을 설명해 준다.
- ② ‘나’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적는다.
- ③ 다 함께 답안을 확인한다.
- ④ 교사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평소에도 표현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활동 해설** <가장 받고 싶은 상>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짜증 섞인 투정도/어김없이 차려지는/당연하게 생각되는/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받을 수 있는 상/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말 한마디 안 해도/되는 그런 상/그때는 왜 물렸을까?/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그 상을 내세던/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이제는 받지 못할 상/앞에 앉아 홀로/되뇌어봅니다//  
"엄마, 사랑해요./"엄마, 고마워요./"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엄마상/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상을 차려 드릴게요./엄마가 좋아했던/반찬들로만/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엄마의 밥상/이제 다시 못 받을/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을 엄마 얼굴 (상)

**활동 해설** 이 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17년 5월 4일 도교육청 블로그에 시를 소개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신문 인터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가 정성을 담아 차려주신 밥상과 엄마의 얼굴(상)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독자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작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을 ‘상’으로 표현하는 한자가 있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시를 보면 하루에 세 번 밥상을 차려주는 주체가 어머니로 그려져 온연중에 가사 노동을 어머니의 의무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시를 창작한 학생의 꿈이 요리사라는 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받아볼 수 없는 엄마의 밥상을 그리워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금 당장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한겨레, “가장 받고 싶은 상은 엄마밥상” 어느 초등생의 시 ‘화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5666.html>

#### ❖ 【정리 활동】 엄마-아빠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

- ①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말을 적는다.
- ② 사랑의 말과 함께 보낼 그림말(이모티콘)을 그린다.
- ③ 모둠원끼리 공유한 뒤, 한 가지 사례를 고른다. 각 모둠별로 대표 사례를 발표한다.

**활동 해설** 문구가 삽입된 그림말(이모티콘)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즐거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단, 재미 위주의 활동으로 빠져 장난으로 여기지 않게 유의한다.

(예시)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영상: JTBC 예능 <유자식 상팔자> 61회 '사춘기 고발 카메라' 대본**

자막: 사춘기 딸의 고발! 조강경 집에선 모녀 전쟁 중? 폭풍 잔소리 조강경 vs 엄마 말 무시하는 홍석희

네 컷으로 나뉜 화면에 집의 일부가 보인다. 석희와 석주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주일은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 석희, 석주 방

석희: (책상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뭘 소리야?

석희: (과자를 먹던 손을 툄다. 휴대폰을 집어서 게임을 한다.)

갑경: (간식을 들고 석희-석주방으로 향한다. 방문을 두드린다.) 석희야.

석희: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어?

갑경: (석희 방 문을 연다) 공부하니? (표정을 찡그리며) 뭐하니?

석희: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작은 목소리로) 게임.

갑경: (방 안으로 들어오며) 뭐라고?

석희: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게임.

갑경: 너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갑경: (탁자에 놓인 수건을 집어 들며)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너, 누가 이렇게 했어?

석주: (갑경을 바라본다)

석희: (핸드폰을 게임을 하며) 나. 아니야~

갑경: 당장 갖다놔.

석주: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갑경: 이게 고장나자나 어? 어후~ 제발 좀. 이게! (매니큐어 통을 집어 든다) 들리지도 않네.

석희: (엄마를 힐끔 쳐다본다)

갑경: (석희를 바라보며) 너 매니큐어 발랐어?

석희: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갑경: (석희의 휴대폰을 뺏으며) 엄마가 얘기하는데!

석희: (엄마를 뻔히 바라본다) 죽었.야. 일시정지 해봐! (과자를 집어 먹는다)

갑경: (화를 내며) 너 능준이 엄마 같았으면 전화비 벌써 몇 번 깎여! 너~

석희: (휴대폰을 다시 집어든다)

갑경: (큰 소리를 내며) 저 또 전화기! 꺼!

# 인터뷰 장면

갑경: 제가 얘기를 하는데, 게~속 들은 척도 안하고 핸드폰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석희는 대화가 하기 싫은 거 같아요. 저랑.

# 석희 방

갑경: (책상 위의 책들을 집으며) 내가 이따가 볼 건데, 여기서 정리해. 어? 싹 정리해. 너 방학 때 마음가짐 똑바로 하고, 지금 안 하면은 너 안 돼. 석희야~

㉠ 석희: (과자를 먹으며 침묵) ..

갑경: 이 이야기 하나까 듣기 싫지? (책을 집으며)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하라고! 알았지? (고개를 기울이며) 알았냐고?

석희: (갑경을 보지 않고 과자를 먹는다) ..

갑경: 대답 안한다. 또! (화를 내며) 아니, 알았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해!

석희: (갑경을 보지 않고 과자를 먹는다) ..

갑경: 어어~?

석희: (갑경을 보지 않고 과자를 먹던 손을 툄다) ..

갑경: 안 할 거라는 거야?

석희: (갑경을 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으며) 아니.

갑경: (벌컥 화를 내며) 그럼 왜 내답을 안 하냐고!

석희: (갑경을 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으며) 하야~

갑경: (방을 나가며) 아무튼 다 치워나!

㉡ 자막: 석희는 왜 대답을 안 할까..?

# 인터뷰 장면

석희: 방송에도 몇 번 나왔는데,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요. 제가 그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아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너무 대답하기도 싫고 할 말도 없어서. (뿔뿔하게 웃으며) 반항하는 거라면 반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핵심가치·덕목: 정직, 책임】

##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물리치기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언어폭력의 사례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속성을 지닌다. 영상을 통해 언어폭력이 온라인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후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그 특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심각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은 단순히 교사가 전달해 주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언어폭력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구하고 올바른 온라인 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 학습 목표

-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점검할 수 있다.
-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차시
도입 [인식]	<p>【준비 활동】 전염병 발생! 병의 정체를 밝혀라</p> <p>【학습 목표 확인하기】</p>	1차시
전개 [실제]	<p>【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p> <p>【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p>	
정리 [성찰]	<p>【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p> <p>【학습 내용 정리하기】</p>	2차시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 【준비 활동】 전염병 발생! 병의 정체를 밝혀라

- ① 온라인 언어폭력에 관한 공익 광고(34초)를 시청한다.

• <사이버 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URL: [https://youtu.be/jDhdm\\_5oi1w](https://youtu.be/jDhdm_5oi1w)

**활동 해설** 이 영상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죄의식 없이 욕설, 인신공격, 저주, 비방 같은 언어폭력을 하는 현상을 '전염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이메일, 개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한다.

공익 광고의 대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 다양한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항상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손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손 씻으세요. 당신의 깨끗한 손으로 사이버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 ② 교사는 영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전염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온라인 언어폭력을 표현한 것임을 알려준다.
- ③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 또는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④ 청소년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온라인 언어폭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피해 학생의 심정은 어떨지 간단히 의견을 나눈다.

**활동 해설** 이 활동에서는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언어 표현을 목격했는지, 내가 당한 적은 없는지, 반대로 내가 그러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했는지 등 학생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묻도록 한다. 이 활동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온라인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의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피해 유형 중 1위(34.5%)를 차지한 것이 '언어폭력'이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 비율이 더욱 증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초등학생들은 '재미있어서(장난으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싫어서)', '그냥 이유 없이' 사이버 폭력을 저지른다고 답하였다. 영상 속의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면서, 가해 학생들의 대수롭지 않은 행동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점을 깨닫고 온라인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만든다.

#### ❖ 【학습 목표 확인하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2) 전개

#### ❖ 【활동 1】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잡아라

- ① 교사는 미리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를 교실에 숨긴다.

- ② 4~6개의 모둠을 만든 후, 교실 속에 숨어 있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게 한다.

**활동 해설** 교실을 온라인 세상이라고 가정하고 교실 곳곳에 숨겨진 언어 바이러스를 찾는 활동이다. 수업 전 교사는 미리 모둠 수에 맞춰 언어 바이러스 카드를 복사하여 교실에 숨겨 놓는다.

교사는 "여러분, 영상 속에 나왔던 전염병을 일으키는 언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교실에 퍼져 있어요. 교실 곳곳에 숨겨진 언어 바이러스를 찾고 모둠별로 한 장씩 나눠 봅시다."라고 말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게 한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5개의 모둠이라면, 한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숨긴 장소에 5개 카드를 모두 두어 카드를 찾은 학생이 다른 모둠과 나누어 갖도록 만든다.

- ③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는지 활동지 ❶을 채운다.

**활동 해설** 네 개의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는 각각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을 의미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
- 사이버 모욕: 사이버 공간에서 남에게 모욕을 주는 말이나 욕설을 남기는 것
- 사이버 따돌림: 전자 매체를 통해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헐뜯, 괴롭힘을 가하는 것(따까, 방쑈, 카톡감옥, 카톡유령, 페따)
-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 ④ 교사는 모둠별로 각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피해자 카드를 나누어 준다.
- ⑤ 피해자 카드를 모두 받으면,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을지 활동지 ②번을 채우고,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의 이름을 의논하여 적는다.

**활동 해설**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 카드가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재미있어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 속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처럼, 언어폭력의 피해자들이 단순히 마음의 상처만 입을 것이라 쉽게 예상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전달한다. 예를 들어 학교 앞 핫도그 가게가 벌레가 들어간 핫도그를 만든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그 가게가 결국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 ⑥ 모둠 대표를 선정한 뒤,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 ❖ [활동 2]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퇴치하자

- ① 온라인 언어폭력을 방관했던 주인공이 용기를 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2분 25초)을 시청한다.
  -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URL: <https://youtu.be/InTtUuhDjrQ>
- ② 교사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한 뒤, 활동지 (1)의 내용을 큰 목소리로 읽게 한다.
- ③ 모둠 대표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다. 순서에 따라 교사는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를 두 개씩 나누어 배정하여 모둠끼리 겹치지 않게 한다. 한 모둠 당 총 두 개의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활동 해설**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바이러스'와 '백신'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병원'과 '치료약'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총 네 개이므로 수업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남을 경우 네 가지 백신을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한다.

[활동 2]에서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 온라인 언어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하여 적게 하는 것은 상황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동기 유발]과 [활동 1]을 통해 살펴보았던 본인 또는 친구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답변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배정 받은 바이러스 중 하나를 활동지에 표시한다.
- ⑤ 모둠원과 상의하여 단체 대화방, SNS,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등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정한다.
- ⑥ 바이러스에 걸려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각자 적는다.
- ⑦ ④~⑥의 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하여 총 두 개의 백신을 만든다.
- ⑧ 모둠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최고의 답변'을 고른다. '최고의 답변'으로 고른 이유와 함께 각 모둠별로 해당 내용을 발표한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사랑의 백신을 만들자

- ① 교사는 <사랑의 백신 판>을 칠판에 붙이고 학생들에게 붙임쪽지를 두 장씩 나누어 준다.
- ② [활동 2]에서 모둠별로 배정 받은 바이러스와 해당 바이러스가 나타난 장소를 다시 떠올린다.
- ③ 바이러스 때문에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붙임쪽지에 적고, 그러한 말을 전하고 싶은 이유를 활동지에 적는다.

[바르게, 곱게, 함께]

프로그램 지도안

- ④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언어 표현을 모아 분류한 뒤, 인상 깊은 것을 중심으로 읽어주고 해당 학생이 그러한 말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한다.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책임, 공감】

##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 ■ 차시 개관

무심코 하는 사소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혹은 차가움으로 남을 수 있다. 이 차시에서 이 기주의 책 〈언어의 온도〉의 서문의 일부를 읽고,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자신과 친구들의 언어의 온도를 느꼈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 마디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한다. 말의 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다.

### ■ 학습 목표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 학습 활동

단계	내용	차시
도입 [인식]	【학습 목표 확인】	1차시
	【동기 유발】 언어의 온도에 대해 상상해 보기	
전개 [실제]	【활동 1】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읽고 내용 파악하기	1차시
	【활동 2】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 나누기	
정리 [성찰]	【활동 3】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에 공감과 위로의 말 건네기	2차시
	【활동 3】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나요?	
	【학습 내용 정리하기】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언어의 온도에 대해 상상해 보기

① 우선 이 시간 활동을 위해 반 전체가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활동 해설** 【활동 1】까지는 둥그렇게 앉지 않은 상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활동 1】을 마친 이후에 둥그렇게 앉을 수도 있다. 다만 【활동 1】을 마치는 시점이 수업 중반부이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준비 활동 전에 해 두는 것이 좋다. 책상을 가운데로 모아 책상을 둘러싸고 앉거나 혹은 책상을 모두 치우고 바닥에 둥그렇게 앉아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평소 교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던 교실의 분위기를 대화적 공간으로 전환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둥그렇게 앉는 것이 불가능한 교실 구조가 아니라면 반드시 둥그렇게 둘러앉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이기주의 책 〈언어의 온도〉의 서문을 읽기 전에, 언어에 온도가 있다면 ‘차가운 언어’, ‘따뜻한 언어’, ‘뜨거운 언어’는 각각 어떤 언어를 의미하는 것일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어 본다.

### (2) 전개

❖ **【활동 1】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읽고 내용 파악하기**

① 언어의 온도를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기주의 책 〈언어의 온도〉의 서문의 일부를 읽는다.

② 글 속에서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의 의미를 찾아 정리한다.

(예상 답안 1) 뜨거운 언어: 감정이 잔뜩 실려 듣는 사람에게 정서적 화상을 입히는 말

(예상 답안 2) 차가운 언어: 상대의 마음을 공공 얼어붙게 만들어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말

③ 위에서 정리한 뜨거운 언어와 차가운 언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따뜻한 언어의 의미를 정해 본다.

**활동 해설** 이 수업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은 반드시 부정적인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뜻한 언어’의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어의 온도〉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차가운 언어와 뜨거운 언어만을 다루면 부정적인 언어에 대한 경험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뜻한 언어의 의미를 만들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언어’와 같은 피상적인 수준의 정의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예상 답안 1) 따뜻한 언어: 상대의 공공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칭찬과 격려의 말

(예상 답안 2) 따뜻한 언어: 마음의 화상을 치료해 주는 위로와 공감의 말

❖ **【활동 2】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경험 나누기**

**활동 해설** 학습자들이 사연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후 있을 학습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한다. 익명으로 작성하기는 하지만 사연지에 적을 사연이 학급 전체에 소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수업의 성공과 실패는 대화적 분위기 형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수필을 읽는 동안 차분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 두고, 사연을 나누는 동안에도 잔잔한 음악이 들리도록 하는 것도 분위기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다.

① 교재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사연지 가장 위쪽에 자신의 별칭을 쓴다. 이때 자신의 사연인 게 공개되어도 좋다면 실명을 쓸 수도 있다.

**활동 해설** 사연자의 이름을 별칭으로 적으면 사연을 소개하는 발표자도 사연자를 호칭하기 쉽고, 해당 사연을 적은 사연의 주인도 자신의 사연이 뽑혔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별칭을 지어 부르는 과정 자체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된다.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사연을 다시 찾아갈 때도 자신의 사연지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며, 학급 구성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며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차가운 언어’, ‘뜨거운 언어’, ‘따뜻한 언어’와 같이 말에서 온도를 경험했던 경험을 하나 떠올려 사연지(교재 가장 마지막 쪽에 있음)의 줄이 그어진 공간에 쓴다. 줄이 없는 상자 공간은 비워 둔다.
- ③ 사연을 적을 때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적는다.
- ④ 사연지에 있는 온도계에 자신이 경험한 그 말의 온도가 몇 도쯤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한다.

**활동 해설** 누구나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뿐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떠올려 사연을 적기는 막막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말에 대한 경험을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사연을 작성하게 한다.

- ⑤ 사연을 다 작성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사연함에 넣는다.
- ⑥ 사연이 다 모이면 둥그렇게 얹은 상태에서 사연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 ⑦ 사연함을 받은 사람은 사연함에서 하나의 사연을 뽑고 사연자는 누구인지,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지 사연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활동 해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의 입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은 경험을 나누는 대화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어 준다. 또한, 학습자는 타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신이 소개할 사연 주인공의 입장에 더 진지하게 공감할 수 있다.

사연을 직접 뽑고, 자신이 뽑은 사연은 주인공이 누구인 줄 모르는 상황은 평소라면 대화하지 않았을 반 친구들과의 소통을 시작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매번 사연을 뽑을 때마다 자기의 사연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자칫 피상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험 나누기에 재미를 더해 주고자 하였다.

- ⑧ 사연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 ⑨ 사연 소개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사연지를 챙겨 두고 다음 사람에게 사연함을 넘긴다.
- ⑩ 이런 방식으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하나씩 사연을 뽑아 소개한다.

### ❖ 【활동 3】

- ①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을 사연지 아래쪽 상자 안에 적는다.
- ② 다 적은 후에는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답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③ 답글 발표가 끝나면 사연지는 다시 접어 사연함에 넣고 사연함을 옆 친구에게 넘긴다.
- ④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에 대한 답글을 나눈다.
- ⑤ 수업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연지를 찾아간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만들기

- ① 다 함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영상을 시청한다.
  - 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ACrsYKfkpl>
- ②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 지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적은 후 학습지의 사람 모양 그림 위에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③ 오늘 말에 대한 기억을 소개했던 것처럼 친구가 내가 한 어떤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말풍선 속에 적어 넣는다.
- ④ (1)~(2)의 답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지 발표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③ [초등] 학습자 활동자료/워크북

## 1-2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1. 역할쪽지 (1장)

**남자처럼**

**여자처럼**

**남자답게**

**여자답게**

**남자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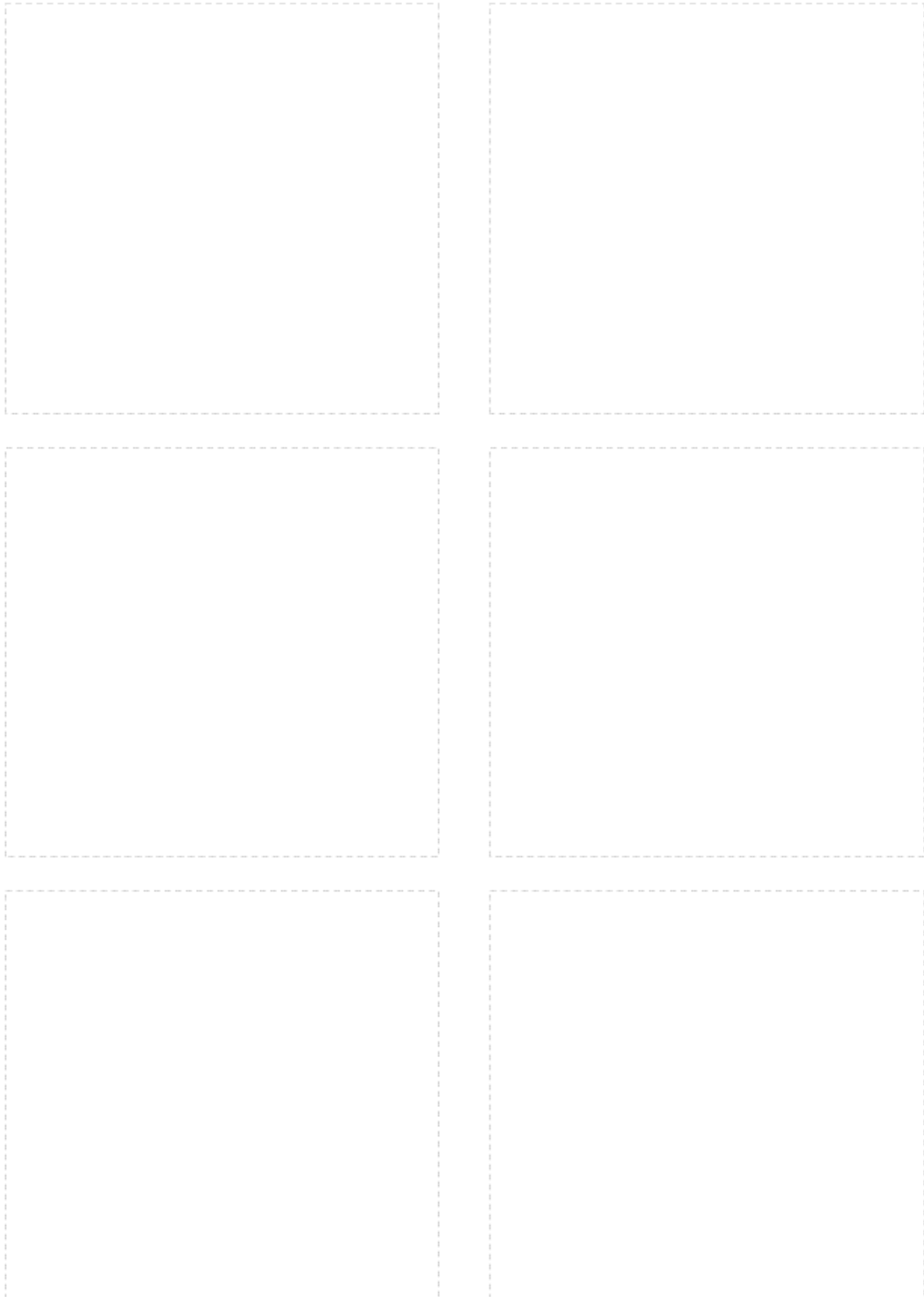
**여자 같이**

## 5-6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1. 붙임쪽지 (1인당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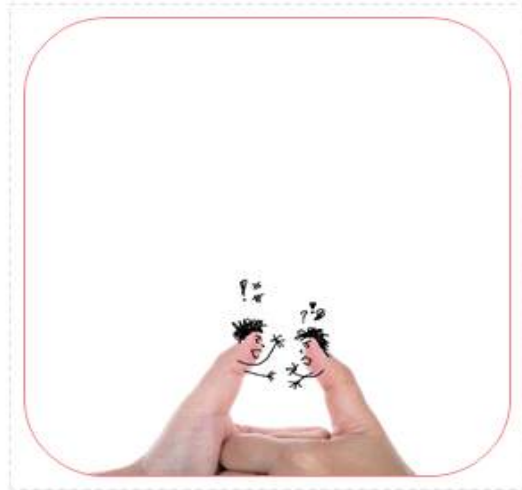
[1]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7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회색 점선 박스가 있는 [1]번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회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칸에 넣어 [2]번을 인쇄합니다.

[2]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7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회색 점선 박스가 있는 [1]번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회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칸에 넣어 [2]번을 인쇄합니다.

## 7-8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언어 바이러스 카드 (모둠 당 1장씩)
2. 피해자 카드 (모둠 당 1장씩)
3. 사랑의 백신 판 (1장)
4. 사랑의 백신 쪽지 (1인당 1장)



나는 거짓말을 좋아해.  
내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학교 앞 핫도그 가게가 벌레로 핫도그를 만든다고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된단다.  
물론 벌레가 아니고 검은깨였지만 알게 뭐야? 하하하!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이랑 여행가서  
샀던 캐릭터 볼펜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해.



나는 욕하는 게 재밌어.  
내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예인 SNS에 들어가서 욕설이나 막말을 쏟아붓지.  
익숙할 텐데 욕 좀 들었다고 힘들어하겠어?  
인터넷 게임을 할 때도 심한 욕설을 하지.  
요즘엔 브이로그에서 실시간으로 악플을 달기도 해.  
어차피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메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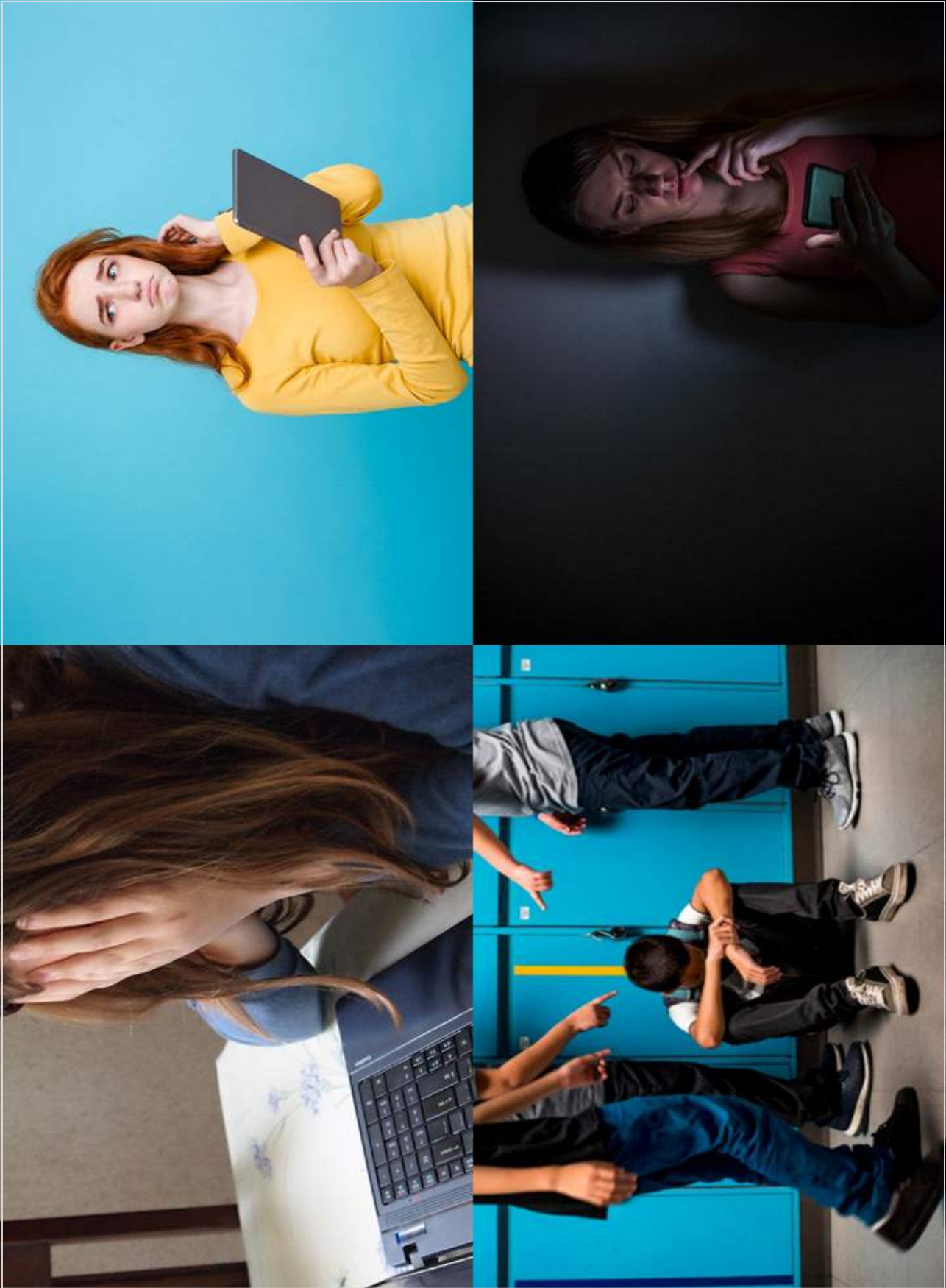
나는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내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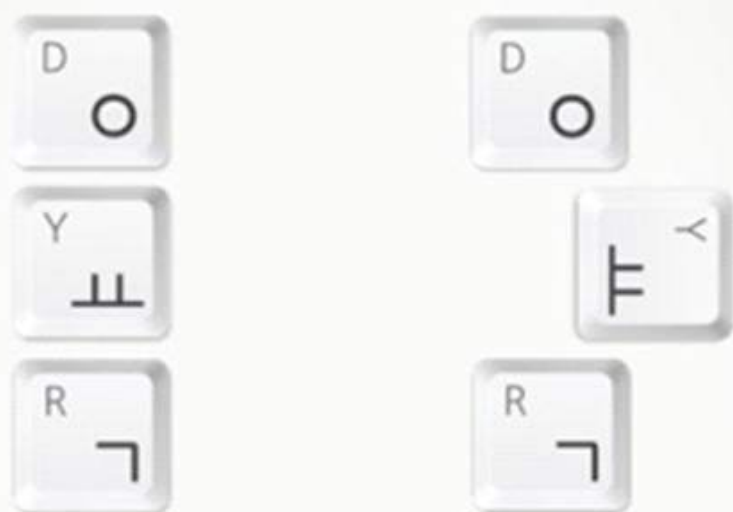
괴롭히고 싶은 친구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감옥을 만들고 한꺼번에 욕을 하지.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고 놀리기도 해.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면 괜히 우쭐해져서  
더 심한 말을 하게 되다니까? 해해해!



나는 무섭게 헐뜯는 걸 즐겨.  
내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연예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일반인 가리지 않고  
관심이 생기면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을 걸어.  
잡아 먹겠다고 하면서 무서운 사진도 보내.  
차단해도 소용없어. 계속해서 보낼 거니까.  
뭐 어때? 장난친 건데. 흐흐흐~





잘 쓰면 약이 됩니다

kobaco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욕이 아닌 악을 만들고 따뜻한 SNS 공간을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7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회색 점선 박스가 있는 [1]번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회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칸에 넣어 [2]번을 인쇄합니다.

[2]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7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회색 점선 박스가 있는 [1]번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회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칸에 넣어 [2]번을 인쇄합니다.

## 9-10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사연함(학생들 사연이 모두 들어 갈 수 있는 크기의 사연함)



④ [중등] 학습자용 교재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국립국어원

#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무엇을 배울까요?



## 차례

- 사람을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1
- 남자, 여자 혹은 나 ..... 8
-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 12
-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 16
-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 22
-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28

#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학습 목표

- 자신이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아래 그림을 보고, 이 수업의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 '서열'의 사전 의미를 토대로, 서열의식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 서열(序列)

차례 서, 별릴 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 또는 그 순서.



"서열의식"이란, \_\_\_\_\_

(2)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 2** 6가지 대화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모둠별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1. 이번 달에 자리를 바꾸면서 새로 짝이 된 주영이와 찬우는 최근에 부쩍 가까워졌다. 조용한 성격의 주영이와 달리 찬우는 활발하고 학교에서 친구가 많기로 유명한 아이이다.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만 되면 몇몇 친구들이 찬우 자리로 몰려 든다. 오늘도 쉬는 시간에 찬우 자리로 친구들이 몰려왔다.

진서: 찬우야~ 우리 여름 방학에 같이 계곡 놀러가자!

승준: 오~ 좋다! 진서랑 은호랑 우리 넷이서 계곡가자!

찬우: 좋지. 주영아, 너도 같이 갈래?

은호: 응? 주영이? 너희 엄청 친해졌나 보네.

찬우: 응. 주영이도 같이 가면 더 재밌을 거야.

주영: 나? 그...글쎄. 아마 부모님이 허락 안 해 주실걸?

승준: 에이~ 너 우리랑 같이 가기 어색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별로 없지.

진서: 맞아, 주영아. 맨날 노는 애들하고랑만 놀지 말고, 인맥 좀 넓혀봐!

찬우: 그래, 주영아. 다양한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한번 노력해 봐.

은호: 그래. 너랑 네 친구들은 맨날 재미있게 놀잖아. 우리랑 재미있게 놀자.

주영: \_\_\_\_\_

2. 체육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체육부장인 혜석이가 경기별로 출전 선수 명단을 꾸리고 있다.

혜석: 자, 이제 축구랑 농구만 남았다. 축구 경기 나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 후보까지 해서 12명 뽑으래.

혜석: 다 손 들었지? 14명이네. 2명은 빠져야겠다.

그때 반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유민이가 나섰다.

유민: 야, 정균호! 김준서! 너희 둘 빠져.

균호: 아, 싫어. 나 농구는 진짜 아예 못 한단 말야. 드리블하면서 세 걸음도 못 가.

영지: 하하하. 뭐야, 정균호. 자기가 무슨 축구는 잘하는 것처럼 말하네.

정훈: 야, 우리 맨 처음에 3반이랑 붙어야 돼. 개네 반 엄청 잘한다고.

유민: 그니까. 어쨌든 손 든 사람 중에 정균호랑 김준서 너희가 제일 축구 못하잖아. 빠져.

준서: 그래~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난 빠질게. 야, 나도 빠지는데 균호 너도 포기해라. 네가 나보다 못 뛰잖아.

균호: 아... 나 진짜 농구는 안 된다고. 정훈이 너 농구도 잘하잖아. 나랑 바꾸자.

정훈: 나는 축구도 잘하는데?

유민: 야, 아무렴 너를 넣고 신정훈을 빼냐? 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그냥 빠져. 체육부장, 그냥 재네 둘 빼고 12명 적어!

균호: \_\_\_\_\_

3. 올해 들어 가장 추운 겨울 날, 등갓길에 다운이는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났다.

채린: 다운아. 같이 가자. 오늘 진짜 엄청 춥다.

다운: 그러니까. 나 아침에 그냥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롱패딩 꺼내 달라고 해서 입고 왔잖아.

준하: 오~ 완전 따뜻하고 좋아보이는데? 어디 거야? 나도 올해는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다운: 이거? 몰라. 아마도 그냥 지하 상가에서 샀을걸? 엄마가 사다준 거라.

채린: 그래? 네 남자친구는 완전 비싼 브랜드입고 다니잖아.

다운: 아, 성훈이 거 비싼 거야? 몰랐어.

성화: 너 오늘은 성훈이 옆에 가면 안 되겠다. 그거 벗고 가던가. 하하하.

채린: 하하하. 완전 웃기다. 준하야, 성훈이 너네 아파트살지? 개 9동 살아, 10동 살아?

준하: 야, 성훈이는 당연히 10동이지. 10동은 다 70평 이상이야. 100평 넘는 데도 있고.

성화: 대박! 100평? 난 그런 집은 구경도 못 해봤다.

준하: 하... 나도 10동 살고 싶다.

채린: 하하하. 뭐야 너도 그 아파트 살잖아.

준하: 야, 난 3동이잖아. 1동부터 3동은 10동 사람들에 비하면 거지야, 거지. 다운이 너는 1동이지?

성화: 아, 다운이 너네 1동이야? 1동은 몇 평이야?

다운: \_\_\_\_\_

4.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식 날. 친구들끼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노을: 와! 대박, 대박. 너희 지원이 봤어?

정민: 이지원? 이지원, 왜?

노을: 완전 살 엄청 빠졌어. 나 못 알아볼 뻔 했잖아.

정민: 어, 지원이. 저기 온다. 지원아! 여기, 여기!!

지원: 안녕. 오랜만이다.

정민: 대박. 지원이 너 완전 살 많이 뺐네.

지원: 아, 응. 나 이번 방학 때 수영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맨날 갔더니 이렇게 됐어.

진수: 야, 진짜 잘했다. 훨씬 낫다.

노을: 원래는 지원이가 우리 중에 젤 덩치였는데, 이제 정민이가 젤 덩치됐네.

진수: 하하하. 그러게. 정민이 너는 더 찐 것 같은데?

노을: 야, 살 너무 찌면 키 안 큰대. 너 거기서 키 멈추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인생 망하는 거야.

지원: 정민이 너도 수영 배울래? 근데 확실히 살 빼고 나니까 몸도 가볍고 좋은 거 같아.

진수: 그래, 너도 수영 다녀라. 그나저나 지원이 너 이제 인기 완전 폭발하겠다.

지원: 정민아, 너도 나랑 같이 다니자. 너도 이목구비가 예뻐서 살 빼면 여신될 것 같아.

정민: \_\_\_\_\_

5. 기말고사 마지막 날, 사회 과목 가채점을 하고 있는 연우의 표정이 어둡다.

연우: 아... 망했다.

지수: 왜? 많이 틀렸어? 너 어제까지 한 개박에 안 틀렸다고 했었잖아.

연우: 아, 사회만 2개 더 틀렸어. 아까 과학도 하나 틀렸는데.

지수: 그럼 전부 4개 틀린 거잖아.

연우: 어, 아마도, 사회 이거 아는 문제였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

연우는 지난 시험에서 1등을 한 혜지가 신경이 쓰인다. 그때 혜지가 연우 쪽으로 다가왔다.

혜지: 이연우~ 너 오늘 몇 개 틀렸어? 다 맞았지? 그치? 난 망했어. 사회 이번에 너무 헛갈리지 않았나?

연우: 나도 사회만 2개 틀렸어. 15번 아는 거였는데. 너 맞혔어?

혜지: 어? 역시! 대박! 나도 15번 틀렸어. 이거 무조건 틀리라고 낸 거야. 6번은? 난 6번도 틀렸어. 이거 완전 3번 같았는데.

연우: 와, 역시 너랑은 말이 좀 통한다. 나도 6번 3번 썼는데. 아무튼 난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진짜.

혜지: 나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지수: 어우. 너흰 진짜 우리같은 애들이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구나. 맞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를 세다니.

혜지: 하하하. 완전 웃기다. 지수 너 오늘 무슨 과목 보는지는 알고 왔어?

연우: 맞아. 이지수 너는 공부를 아예 안 하잖아. 너도 이제 공부 좀 해. 우리 학원 다녀라.

지수: \_\_\_\_\_

6. 학급 회의 시간. 반장인 재원이 주도로 체육 대회에서 입을 반티 색깔을 정하고 있다.

재원: 애들아, 이제 회의 시간 10분 남았다. 우리 이제 반티 정해야 하는데. 내가 반티 사이트에서 몇 개 찾아 왔거든.

다들 앞에 화면 좀 봐봐. 여기 초록색이랑 하늘색 중에 투표하자.

영신: 어? 왜? 다른 색깔도 더 많은데?

태우: 난 검정색이 좋은데. 우리 검정색하자~ 초록색이랑 하늘색 둘 다 별로야.

재원: 검정색은 이미 1반이 주문했대. 안 겹치게 해야지. 우리도 빨리 정해서 다른 반한테 알려 줘야 돼.

영신: 보라색은? 보라색은 아직 다른 반도 안 했는데?

재원: 애들아. 내가 초록색이랑 하늘색 중에 고르라고 했잖아. 시간 없어. 빨리 투표하자.

태우: 보라색도 넣어서 투표하자!

해인: 야, 그냥 반장 말 들어. 세상 모든 색을 다 투표할 수는 없잖아. 반장이 그런 거 정하는 거지, 원래.

영신: 무슨 소리야. 그냥 다른 반이 안 한 색은 다 넣어서 투표해도 되잖아.

재원: 손영신, 김태우! 너네 진짜 이럴래? 한 명, 한 명 다 의견내고 결정하면 언제 주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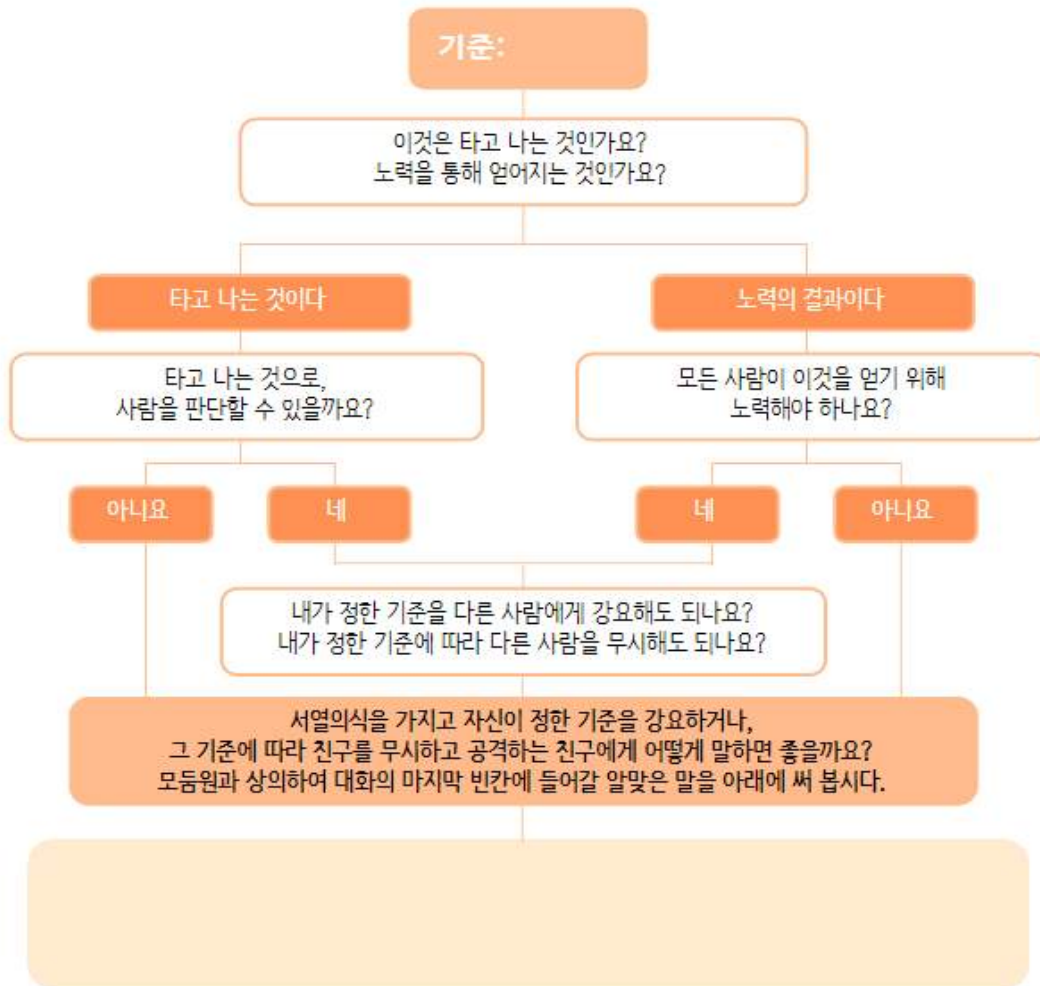
해인: 맞아. 그만 좀 따져. 반티에 목숨 걸었냐? 아무거나 입어.

성욱: 반장을 뽑았으면, 말을 좀 들어라. 이러다 체육대회 전에 반티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재원: 자! 다 조용히 해. 이제 진짜 시간 5분도 안 남았어. 투표 시작한다. 초록색이 좋은 사람 손들어! 다음 하늘색, 손!

영신: \_\_\_\_\_

- (1)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이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보세요.
- (2) 서열의식이 담겨 있는 말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3) 서열의식이 담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알잡아 보거나 무시하고 있나요?
- (4) (3)에서 답한 '기준'을 아래 그림의 맨 위 칸에 적어 넣은 후,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활동 3** 아래 5개의 기준에 따라 본인을 1~5점으로 평가하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기준	나의 점수				
A	1	2	3	4	5
B	1	2	3	4	5
C	1	2	3	4	5
D	1	2	3	4	5
E	1	2	3	4	5

- 5점: 아주 뛰어나다, 아주 많다, 아주 크다, 아주 잘한다, 아주 세다, 아주 높다 등
- 4점: 괜찮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큰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센 편이다, 높은 편이다 등
- 3점: 보통이다.
- 2점: 괜찮지 않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작은 편이다, 잘 못하는 편이다, 약한 편이다, 낮은 편이다 등
- 1점: 전혀 뛰어나지 않다, 매우 적다, 매우 작다, 매우 못한다, 매우 약하다, 매우 낮다 등

(1)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2) 평소에 위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평가한 적은 없었나요? 아래의 글을 읽고 내가 가진 서열의식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년 동안 짝사랑했던 남자아이가 있었다. 단 한 번도 좋아하는 내색은 하지 못했다. 그 남자아이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유명한, 나랑은 좀 다른 세계의 아이였다. 심지어 성격도 좋아서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나 같은 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다.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꽤 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아子和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내 친구들로부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도대체 어떤 애지?’

궁금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그 여자아이의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서 인스타그램에 들어 가 보았다. 그 아이는 너무 예뻐다. 키도 큰 것 같고, 말랐고, 피부도 하얗고, 설 연휴에 부모님과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잔뜩 있는 것을 보니 집도 잘 사는 모양이었다.

“하.... 나 같은 건 상대도 안 되겠네. 나라도 애를 좋아하겠다.”

내가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 사진 하나하나 모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서럽고 부러운 감정이 올라왔다. 거울을 쳐다보기 싫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만지, 마르지도 않았고, 키도 작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한테서는 빈티가 나는 것 같았다. 왜 부잣집 애들은 부티가 나고, 나 같은 가난한 집 애들은 빈티가 날까? 돈 냄새가 사람한테 배는 걸까?

그때부터였다. 사진도 찍기 싫었고, 사람들이 나를 뵈히 쳐다보는 것도 싫었다. 그 사람들이 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그 남자아이한테 연락이 왔다.

“잘 지내? 중학교 오고 한 번도 못 봤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자.”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니! 너무 기뻐다.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였다. 나는 그냥 메시지를 지워 버렸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여드름이 잔뜩 났었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을 들켜느니 차라리 예전 모습으로 기억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아이가 나를 잊어버렸으면 싶었다.

# 남자, 여자 혹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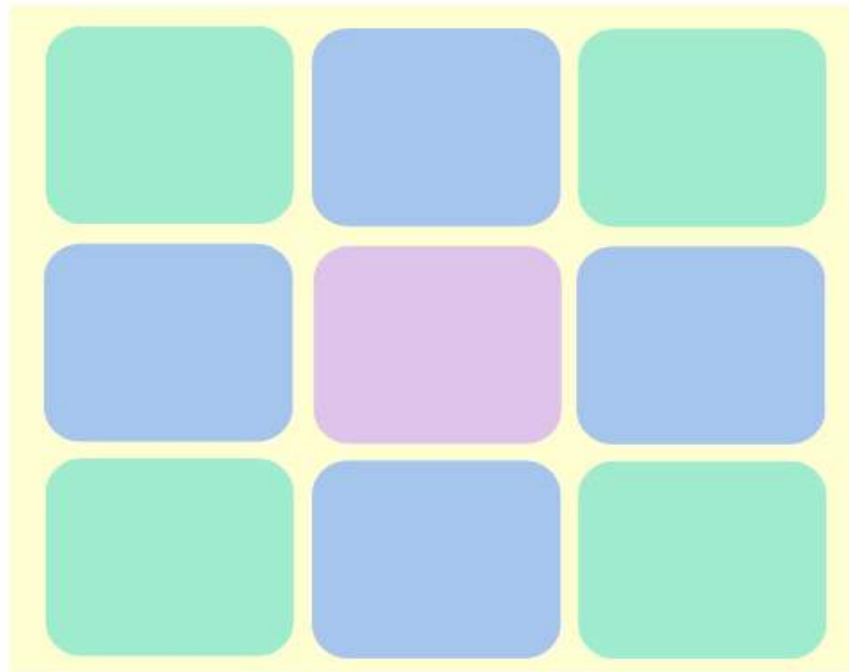
## 학습 목표

- 성차별적 표현을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성차별적 표현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상처 빙고 놀이! 내가 들어 본 성차별적 말들에는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 ① 모둠원과 자신이 직접 들었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② 초록색 칸에는 '남자'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을, 파란색 칸에는 '여자'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을 적습니다.
- ③ 가운데 보라색 칸에는 남자에 대한 표현이든, 여자에 대한 표현이든 가장 흔하게 들어 보았을 법한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 적습니다. 어떤 표현을 적어야 좋을지 모둠원과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적어 보세요.
- ④ 빙고판이 완성되면 모둠별로 순서대로 돌아가며 사례를 소개하며, 빙고 놀이를 합니다.
- ⑤ 먼저 3줄 빙고를 완성한 모둠이 놀이에서 승리합니다.



(1) 어떤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었나요?

(2)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3) 편견이 담겨 있는 표현을 들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4)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5)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우리 모둠의 대화 상황에서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말”을 써 봅시다.

모둠원 이름	제안한 표현

◆ 우리 모둠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말:

◆ 이 말을 선택한 이유:



(6) 학급 친구들에게 우리 모둠에서 활동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정리 활동

아래의 두 영상을 보고, 성차별적 표현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한 마디를 완성해 보자.



나는 그냥 \_\_\_\_\_ 다울 뿐이야!



#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 학습 목표

-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 내용과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엄마·아빠와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활동 1

영상을 보고, 다음의 표를 함께 채워 봅시다.



(1) 딸, 엄마, 아들, 남편의 잘못된 언어 사용 및 대화 태도는 무엇인가요?

등장 인물	밖에서	가정에서
김아영(딸)	상냥함	
이효진(엄마)	친절함	
김범진(아들)	쾌활함	
김기준(아빠)	자상함	



**활동 2** 다음의 질문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 지금까지 엄마·아빠께 들었던 말 중  
가장 상처받은 말은 무엇인가요?



(2) 엄마·아빠께서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지금까지 엄마·아빠께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4) 나는 왜 그러한 말을 했나요? 그때  
엄마·아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활동 3**

다음의 질문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1) 엄마·아빠께서 해 주셨던 따뜻한 말,  
엄마·아빠께 위로 받은 말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나요? 배경 상황을 적어 봅시다.

붙임쪽지에 적어 봅시다.



(3) 가장 감동 받은 말 세 가지를 고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감동 받은 말 세 가지, 감동 받은 이유

◆

◆

◆



정리 활동

엄마·아빠께 전하고 싶은 사랑의 한마디를 적어 봅시다.

지금, 마음을 담아



##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 학습 목표

-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대화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당신의 '대하다'에 배려를 더해 주세요.



(1) 영상 속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뽑은 '가장 기분 좋은 손님의 말'은 무엇인가요?

(2)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말을 하는지 떠올려 봅시다.



**활동 1** 낯선 사람과의 다양한 대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1) 그림에 맞는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찾아 각각 연결해 봅시다.



- A (학생-피자가게 고객):  
너무 늦게 와서 피자가 다 식어 버렸어.
- B (어른-피자가게 배달원):  
비도 오고 주문이 너무 밀렸어.



- A (학생-진로 체험 신청자):  
사정이 생겨서 체험을 취소해야 해.
- B (어른-진로 체험 담당자):  
당일 취소를 하면 활동 진행이 어려운데.



- A (학생-자원 봉사자):  
제출 마감일인데 봉사 시간이 아직 안 들어왔어.
- B (어른-봉사기관 직원):  
지금 당장 확인해서 입력해 줄 수 없는데.



- A (학생-인터넷 쇼핑몰 고객):  
생각했던 색깔이랑 너무 달라.
- B (어른-인터넷 쇼핑몰 직원):  
색상 차이는 환불 대상이 아닌데.

(2)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의를 갖춰 배려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서 나눠 주시는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함께 읽어 봅시다.



## 활동 2 소통 카드 게임 준비! 게임 방법을 알아 봅시다.

(1) 참여자는 총 세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각 참여자의 특징을 읽어 봅시다.

### 대화자 1



#### 대화를 나누는 역할

①~④의 인물 중 하나를 말한다.  
대화자 2와 대화를 나눌 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를 모두 말하여  
말은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 소통 카드의 주인 -

### 대화자 2



#### 대화를 나누는 역할

①~④의 인물 중 하나를 말한다.  
대화자 1과 대화를 나눌 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를 모두 말하여  
말은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 소통 카드의 주인 -

### 관찰자



#### 기록을 남기는 역할

갈등 예방법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대화자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의 주인 -

(2) ① ~ ④의 인물 카드 중 하나를 고르고 짝 모듬을 정합니다.

① 전체 인원을 4개의 모듬으로 나눈다.

\* 전체 인원이 30명이라면 7~8인으로 구성된 모듬을 만든다.

②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1, 2위 모듬이 먼저 ①~④의 8개 인물 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 1, 2위 모듬이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다: [1A], [1B], [2A], [2B], [3A], [3B], [4A], [4B]

③ 3위 모듬은 1, 2위 모듬이 고른 카드와 짝을 이루는 카드를 하나 고른다.

\* 1위 모듬이 각각 [1A]와 [3B]를 골랐다면, 3위 모듬이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다: [1B], [3A]

④ 4위 모듬은 남은 인물 카드를 고르고 역할을 부여 받는다.

\* 3위 모듬이 [1B]를 골랐다면, 4위 모듬은 자동적으로 [3A]를 맡게 된다.

⑤ 짝 모듬을 결정한다.

\* [1A]와 [1B]를 고른 1위 모듬과 3위 모듬이, [3A]와 [3B]를 고른 4위 모듬과 2위 모듬이 각각 짝이 된다.

(3) 소통 카드 게임의 순서를 정합니다.

- ❖ 게임은 총 두 번 진행된다. 짝 모듬 대표가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순서를 정한다.
- ❖ 1차 게임에서 첫 번째 짝 모듬이 대화를 나눌 동안 나머지 두 개의 모듬은 관찰자 역할을 맡는다.
- ❖ 2차 게임에서 두 번째 짝 모듬이 대화를 나눌 동안 나머지 두 개의 모듬은 관찰자 역할을 맡는다.



## 활동 2 소통 카드 게임 준비! 게임 방법을 알아 봅시다.

1차 게임:

1 모둠

2 모둠

3 모둠 + 4 모둠

대화자 1



대화자 2



관찰자



2차 게임:

3 모둠

4 모둠

1 모둠 + 2 모둠

(4) 준비물은 총 두 개입니다. <소통 카드>와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나누어 갖습니다.

❖ 대화자 1과 대화자 2는 <소통 카드>의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 ㉠ 대화 의도 / 선택 이유: 다음의 '대화 의도(임무)' 중 하나를 고르고 해당 임무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야 한다.
  - \* 대화 의도(임무): [요청하기], [거절하기], [항의하기], [양해 구하기]
  - \* 선택하고 싶은 대화 의도(임무)가 없다면, 모둠원과 상의하여 적는 것도 가능하다.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앞서 함께 읽었던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야 한다.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앞서 함께 읽었던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야 한다.

❖ 관찰자는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의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5) 다음의 순서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대화자 1, 2	준비	관찰자
<소통 카드> 채우기	(5분)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추가하기
- 모둠 대표 - <소통 카드>대로 전부 말하기, 답변 듣기 *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 "잠깐!"을 외치고 휴식을 취한다.	1차 대화 (2분)	대화를 관찰하며 활동 3 채우기
<소통 카드> 수정하기	휴식 (5분)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수정하기
- 모둠 대표 - <소통 카드>대로 전부 말하기, 답변 듣기	2차 대화 (2분)	대화를 관찰하며 활동 3 채우기



**활동 3&4** '1, 2차 소통 카드 게임'을 진행해 봅시다.

(1) 대화자 1과 대화자 2는 <소통 카드>를 채우고, 다음의 순서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2) 나머지는 관찰자가 되어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채우고, 각자 아래의 빈칸을 채웁니다.

대화자 1



- ❖ 역할:
- ❖ 인상 깊은 말:
- ❖ 인상 깊은 표정, 몸짓, 손짓, 억양 등:

대화자 2



- ❖ 역할:
- ❖ 인상 깊은 말:
- ❖ 인상 깊은 표정, 몸짓, 손짓, 억양 등:



**정리 활동** 모둠별로 '게임 분석 보고서'를 채워 봅시다.

(1)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통 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피고 다음을 채웁니다.

❖ <소통 카드>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 잘한 점

❖ 아쉬운 점



(2) 가장 인상 깊은 말과 표정몸짓손짓억양 등을 의논하여 다음을 채웁니다.

대화자 1



❖ 역할:

❖ 가장 인상 깊은 말:

❖ 가장 인상 깊은 표정, 몸짓, 손짓, 억양 등:

대화자 2



❖ 역할:

❖ 가장 인상 깊은 말:

❖ 가장 인상 깊은 표정, 몸짓, 손짓, 억양 등:

##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 학습 목표

- 온라인에서의 언어 활동이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짐을 안다.
- 댓글이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활동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좋아요' 눌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요?

- (1) 영상을 보고 사례 속 행위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생각해 봅시다.

무죄이다 😊



유죄이다 😞

- (2) 스위스 법원은 왜 '좋아요'를 누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나요?

- (3) 평소에 나는 '좋아요'와 '싫어요'를 얼마나 자주 누르나요? 댓글을 읽거나 써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께서 보여 주시는 영상을 함께 시청해 봅시다.





**활동 1** 최고의 댓글을 찾아라

(1) 다음 온라인 기사를 함께 읽어 봅시다.



✓ PICK ①

## '대프리카' 뛰어넘은 '서프리카'...서울 38도 신기록(종합)

기사입력 2018-07-22 16:29 최종수정 2018-07-22 18:0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1,035



2,050

요약본

가



22일 오후 3시27분 서울 38.0도 대구 34.0도  
1995년 이후 최고...1907년 관측 이래 5위



© News1 유승관 기자

무더위의 상징 '대프리카' 대구는 같은 시각 34.0도를 기록해 서울보다 기온이 낮았으나 습도가 46%에 달해 불쾌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기상청은 "해가 질 때까지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ace@news1.kr

(2) 온라인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읽고, 최고의 댓글을 맞춰 봅시다.

- ❶ 모둠원과 상의하여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의 순서를 정하고, '좋아요' 그림 옆에 순위(1위~7위)를 기록한다.
- ❷ 1·2·3위 댓글 맨 앞에 V 표시를 하여 최고의 댓글을 선정하고, 최고의 댓글로 고른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 ❸ 정답을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 받는다.

\* [추가 점수 얻기] 실제 최고의 댓글을 확인한 뒤, 각 댓글의 '좋아요' 개수를 추측하여(범위: 10,000개~500개) 주황색 칸에 적는다.  
가장 비슷하게 맞춘 모둠이 점수를 부여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p>link****</p> <p>우리집 파주다 ... 파프리카냐???</p> <p>2018-07-22 16:54:14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p>dngo****</p> <p>대구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히터 들었다</p> <p>2018-07-22 16:55:08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p>cjsd****</p> <p>서울호들갑 ㅇㅇ대구가봐 어디가더더운가ㅋ</p> <p>2018-07-22 16:55:51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p>gwan****</p> <p>전기 누진세 좀 폐지해라 에어컨 좀 뽕뽕 하게 들고살자</p> <p>2018-07-22 16:51:01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p>nose**** 댓글모음&gt;</p> <p>아니 근데 머져 94년은 얼마나 더웠길래 ㅋㅋㅋㅋ 작년에도 94년 이후 최고 어제도 94년 이후 최고 어쨌든 94년을 못넘는거 자나</p> <p>2018-07-22 16:50:56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p>ulli****</p> <p>이제 대구 촛농새리를 더워 부실 못부리겠네</p> <p>2018-07-22 16:56:08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p>sopl****</p> <p>원지 뒤통 것 같더라... ㅠㅠ</p> <p>2018-07-22 16:49:32 신고</p> <p>답글</p>	<input type="text"/>





## 활동 2 왜 '좋아요'? 왜 '싫어요'?

(1) 최고의 댓글에 달린 답글을 읽고, '최고의 댓글'과 '최악의 댓글'을 맞춰 봅시다.

- ❶ 개인별로 '좋은 댓글(마음에 드는 댓글)'과 '싫은 댓글(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하나씩 고른다.
- ❷ 모둠원과 공유하여 '좋아요/싫어요'의 개수를 합산한 뒤 그림 안에 적고, 순위를 확인한다.
- ❸ '최고/최악의 댓글'을 세 개씩 각각 선정하고(동그라미 표시), '최고/최악의 댓글'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 모듬원의 숫자가 적어 '좋아요/싫어요'의 개수만으로 정하기 힘든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댓글을 선정한다.
- ❹ 정답을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 받는다.

aspu\*\*\*\*

병원에 누워있고 일단 깨어나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책임질일은 병역히 책임져야

알못

2017-06-07 16:38 신고

답글 45

10253 593

ziz1\*\*\*\*

저는 캔맥이요

2017-06-07 17:14 신고

m yco\*\*\*\* 댓글모음>

살다가 병역히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 기본적인 한글부터 배우고 오시죠, 놀아  
주기 수준 벌어지니까

2017-06-07 17:54 신고

chun\*\*\*\*

너무 그러지 마라.. 누가봐도 b, m 단순 오타인걸 너무 심하게 놀려대네 ㅋㅋ

2017-06-07 17:56 신고

88m e\*\*\*\*

병역히는 참 들어보네 ㅋㅋ

2017-06-07 17:14 신고

key3\*\*\*\* 댓글모음>

틀린맞춤법도 아니구만 트집잡네 여기사람들은 병역히+병역히의 준말입니다 ㅜ

2017-06-07 17:38 신고

lim 2\*\*\*\* 댓글모음>

항글이랑 통바로 저어랑,깨웃딩아,

2017-06-07 18:14 신고



(2) 최고의 댓글과 최악의 댓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해 봅시다.



### 활동 3 댓글왕 선발 대회: 우리가 만드는 최고의 댓글, 최악의 댓글



(1) 웹툰 한 편을 감상한 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다음의 내용을 순서대로 진행해 봅시다.

- ❶ **활동 1~2** 에서 퀴즈를 많이 맞힌 모둠 순서대로 <댓글 도전 판>을 돌린다.
- ❷ <댓글 도전 판>을 받으면 댓글을 쓰거나, 이미 적힌 댓글에 '좋아요/싫어요'를 스티커로 표시한다.
- ❸ 총 두 번에 걸쳐 <댓글 도전 판>을 돌린다.  
\* (유의할 점) 개인별로 받은 3~5개의 스티커를 모두 사용한다. 같은 모둠에서 쓴 댓글에는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할 수 없다.
- ❹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 세 개와 '싫어요'가 가장 많은 댓글 세 개를 칠판에 적는다.
- ❺ '좋아요'와 '싫어요'를 표시한 이유를 각자 발표한다.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 세 개

- 1.
- 2.
- 3.



'싫어요'가 가장 많은 댓글 세 개

- 1.
- 2.
- 3.



정리 활동

내가 정하는 온라인 언어 사용법

- (1) 댓글을 쓸 때 유의하면 좋을 지침을 모듬별로 만들어 봅시다.

바람직한 온라인 언어문화를 위한  
댓글 달기 지침서

\* 예시: 건전하게 비판하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기



- (2) 모듬별로 댓글 달기 지침서를 발표하고, '최고의 지침서'를 선정해 봅시다.

##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학습 목표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준비 활동

모두 둥그렇게 둘러 앉아,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 활동 1 앞서 추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며 아래의 글을 감상해 봅시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 문장 정도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버릇이 있다. “뜨거운 물 좀 떠와라”는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때 만났던 청요릿집에서 보세”는 평소 좋아하던 원로 소설가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죄송스럽게도 두 분의 임종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들은 두 분이 내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

먼저 죽은 이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기억해두고 있는 말이 많다. “다음 만날 때에는 네가 좋아하는 종로에서 보자”라는 말은 분당의 어느 거리에서 헤어진 오래전 애인의 말이었고 “요즘 충무로에는 영화가 없어”는 이제는 연이 다해 자연스레 멀어진 전 직장 동료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 거리에서 스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짧은 눈빛으로 인사 정도를 하며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들 역시 그들의 유언이 된 셈이다.

역으로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날 하더라도 아침 업무회의 시간에 ‘전략’ ‘전멸’ 같이 알고 보면 끔찍한 뜻의 전쟁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검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인 유서처럼 그 수많은 유언들을 가득 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 박준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과 관련된 자신의 사연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 (1) 사연지 위 왼쪽에 자신의 별칭을 쓴다. 자신의 사연인 게 공개되어도 좋다면 실명을 쓴다.
- (2) 사연지 위 오른쪽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이 아래 중에서 “어떤”말인지 적는다.
 

❶ 어떤 말은 두렵고: 두려운 말	❷ 어떤 말은 반갑고: 반가운 말
❸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아픈 말	❹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 있을 것: 설레는 말
❺ 기타: _____	
- (3)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자신의 사연을 적는다. 그 아래 상자는 비워 둔다.
- (4) 사연을 적을 때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적는다.
- (5) 사연을 다 작성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 사연함에 넣는다.
- (6) 모두가 사연지를 사연함에 넣은 후, 동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연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 (7) 사연함을 받은 사람은 사연함에서 하나의 사연을 뽑고 사연자는 누구인지, 사연은 어떤 말에 대한 것인지, 사연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 (8) 사연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 (9) 자신이 뽑은 사연지를 챙겨 두고 다음 사람에게 사연함을 넘긴다.
- (10) 이런 방식으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을 하나씩 뽑아 소개한다.



## 활동 3

사연의 주인공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을 적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답글을 사연지 아래쪽 상자 안에 적는다.
- (2) 다 적은 후에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답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3) 답글 발표가 끝나면 사연지는 다시 접어 사연함에 넣고 사연함을 옆 친구에게 넘긴다.
- (4)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에 대한 답글을 나눈다.
- (5) 수업 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연지를 찾아 간다.





사연자:

‘어떤’ 말: \_\_\_\_\_ 말

---

---

---

---

---

---

---

---

---

---





**정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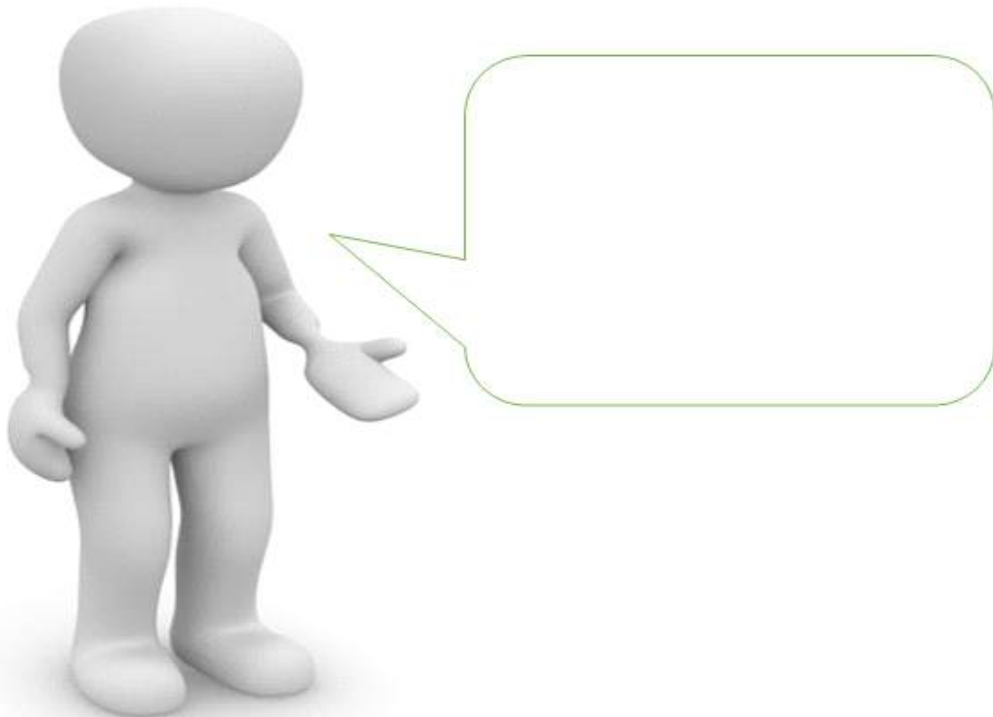
아래의 영상을 보고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5~74살에게 물었다〉

- (1) 먼 훗날 어른이 되어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적은 후, 아래 사람 모양 그림 위에 덧그려 표현해 봅시다.

- (2) 오늘 말에 대한 기억을 소개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내가 한 어떤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나요? 아래 말풍선 속에 적어 봅시다.



#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

## 교사용 지도안



- 사람을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1
- 남자, 여자 혹은 나 ..... 6
-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 9
-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 13
-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 17
-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22

**부록** 수업 준비물

【핵심가치·덕목: 존중, 공감】

##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생각이 담긴 말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학생들의 폭력적 언어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서열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외모, 운동 능력, 덩치, 힘과 같은 기준에 따른 서열의식은 학교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열의식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 되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동의 기반이 된다.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폭력적 언어 사용 개선의 첫걸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의식의 부당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화 속에 나타나는 서열의식을 찾고 그 기준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서열의식을 진단하는 서열의식 점검표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마땅히 강요되어야 할 삶의 방식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 ■ 학습 목표

- 자신이 어떤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서열의식이 담긴 말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10분)	<b>【학습 목표 확인】</b>  <b>【준비 활동】 서열의식의 의미 이해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 찾아보기</b> ① 수업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 추측해 보기 ② '서열'의 사전 의미를 토대로 서열의식의 의미 정리하기 ③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다양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체 활동	1차시
	<b>【활동 1】 서열의식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서열의식 인식하기</b> ① 서열의식 점검표 1~10번 문항에 답하기 ② 서열의식 점검표 A~E에 해당하는 서열의식의 기준 확인하기 ③ 서열의식 점검 결과 시각화하기 ④ 서열의식 점검 결과 비교하기(최고 점수, 최하 점수, 전체 면적 등)	<b>모둠 활동</b> ① 모둠 내 개인 ② 전체 활동 ③ 모둠 내 개인 ④ 모둠 내 함께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b>【활동 2】 서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대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b> ① (1)~(4)번: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열의식이 담긴 말을 찾고, 그 말에 담긴 서열의식을 찾아 서열의식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기 ② 모둠에서 맡은 대화 상황 및 (1)~(4)번 활동에 대한 답을 전체 학급에 발표하기	<b>모둠 활동</b> ① 모둠 내 함께	1-2차시
<b>[성찰]</b> <b>정리</b> (15분)	<b>【정리 활동】 내가 가진 서열의식을 나에게 적용해 보기</b> ① 5개의 기준으로 자기 평가해 보기 ② 내가 가진 서열의식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었던 경험 나누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③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④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전체 활동</b> ① 개인 활동 ②-④ 전체 활동	2차시

☞ 학습자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작 활동



모둠 내 활동



모둠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서열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 기준 찾아보기**

- 주어진 삽화를 보고 수업의 제목에 담긴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시 답안) 사람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은 성적 같은 기준으로 누가 더 성적이 좋고 나쁜지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편을 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 “서열”의 사전 정의를 읽고 서열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 본다.  
(예시 답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높고 낮게 구별하는 생각
- 학교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예시 답안) 성적, 외모, 운동 능력, 세력, 힘, 덩치 등
- 그러한 서열의식을 바탕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이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설명한다.

**교사 설명 예시** 여러분 학교 안에는 ‘서열, 세력, 권력’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서열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열’은 흔히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흔히 ‘센 사람과 약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나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따위를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열의식은 비단 ‘생각’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더 나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나면, 자신보다 못하다고 판단한 상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2) 전개****❖ 【활동 1】 서열의식 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서열의식 인식하기****① 서열의식 점검표를 작성한다.**

- 서열의식 점검표의 1~10번 문항에 진술된 내용에 대하여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5점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4점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3점을,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2점을,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을 문항 옆에 하얀색 칸에 적어 넣는다.
- 10개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다 주고 나면 동일한 세로줄의 하얀색 칸에 적힌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세로 칸 합계 점수에 써넣는다.

**활동 해설** 학습자들이 이런 형태의 설문지에 답하거나, 오각형 형태로 결과를 그리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각 문항에 대하여 1~5점까지 점수를 적어 넣도록 한 후에 점수를 합계하는 과정을 학급 전체 활동으로 교사의 설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교사 설명 예시** 자, 다 함께 서열의식 점검표의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우선 세로 칸 합계 점수를 함께 계산해 보죠. 첫 번째 A칸입니다. 같은 세로 줄에 흰색 칸으로 점수를 준 문항은 1번과 7번입니다. 만약 1번에 2점을 7번에 3점을 주었다면, A 칸에 두 점수의 합인 "5"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B칸입니다. B칸 세로 줄에 흰색 칸으로 점수를 준 문항은 2번과 3번입니다.

**② A~D에 해당하는 각각의 질문들이 어떤 기준에 의한 서열의식인지 추측하여 이야기해 본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대표성이 있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정리해 준다.**

(예시 답안) A: 외모, B: 인기, 세력, C: 운동, 힘, D: 성격, E: 권위, 계층

**③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서열의식 점검 결과를 오각형 그림 안에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 세로 칸 합계 점수에 아래에 쓰인 A~E까지 점수를 오각형의 해당 알파벳 선 위에 점을 찍어 표시한 후, 다섯 개의 점을 연결하여 자신의 서열의식 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교사 설명 예시** 자, 다 함께 서열의식 점검표의 결과를 분석해 봅시다. 우선 세로 칸 합계 점수를 함께 계산해 보죠. 첫 번째 A칸입니다. 같은 세로 줄에 흰색 칸으로 점수를 준 문항은 1번과 7번입니다. 만약 1번에 2점을 7번에 3점을 주었다면, A 칸에 두 점수의 합인 "5"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B칸입니다. B칸 세로 줄에 흰색 칸으로 점수를 준 문항은 2번과 3번입니다. ... (중략) ...

다음으로 아래 오각형에 세로 칸 합계 점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A칸은 아까 5점이 나왔었죠? 그러면 오각형 그림에서 A칸에 해당하는 분홍색 줄 위에 자신의 점수를 점으로 찍어 봅시다. 5점이니까 4점과 6점 가운데에 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B 칸입니다. ... (중략) ... 자 다섯 개의 선에 점을 다 찍었으면 점끼리 연결한 후 그 안에 색을 채워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어떤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둠원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서로 확인해 봅시다. 면적은 누가 가장 넓고, 누가 가장 좁은가요? 면적이 넓을수록 평균적으로 각 서열의식의 기준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겠죠?

물론 이 점검표는 우리의 서열의식의 아주 일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질문의 수도 많지 않고요. 따라서 이 결과만 가지고 누군가는 서열의식이 아주 심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서열의식에는 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열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더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④ 각자 자신의 점검 결과를 모둠원들과 비교하며 확인한다. 어떤 부분에 점수가 가장 높고 낮은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 면적이 얼마나 넓고 좁은지도 이야기해 본다.****❖ 【활동 2】 서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대화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① 모둠별로 활동지에 제시된 [대화 상황 1~6]을 나누어 맡은 후,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여 보게 한다.**

**활동 해설** 대화 상황 1~6은 서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말들이 담겨 있다. 1~6은 각각 이 수업에서 학교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식의 대표 기준으로 삼은 '외모', '인기/세력', '운동/힘', '성격', '권위/계층'에 대한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대화 상황 1] '인기/세력'을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승준, 진서, 찬우, 은호 모두

-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 승준은 친구가 적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별로 없지'와 같은 말로 주영이를 공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은호도 주영이와 주영이의 친구들이 재미있게 논다며 친구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진서와 찬우는 상대를 위하는 듯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둘 역시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기준(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을 주영이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 [대화 상황 2] '운동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운동 능력이 높지 않은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영지, 유민, 준서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다. 영지의 경우 군호가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군호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유민이는 직접적으로 축구를 못한다고 군호와 준서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군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유민이와 영지, 준서, 정훈이 모두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은호를 무시하는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다. 유민이와 정훈이의 경우는 축구를 잘하는 편에 속하는 친구들이지만, 준서는 본인보다 축구를 잘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보다 축구를 못하는 은호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 [대화 상황 3] '계층(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이 담겨 있는 텍스트. 준하와 채린이 성하 모두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이나 아파트의 평수 등으로 표상되는 계층을 기준으로 부자인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별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채린이는 다운이와 다운이의 남자친구인 성훈이의 옷을 비교하며 다운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성하도 남자친구와 다운이의 옷을 비교하며 다운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준하의 경우는 부자인 친구를 매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더 부자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는 '거지'라며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도 보인다.
- [대화 상황 4] '외모'를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진수와 노을이, 지원이 모두 외모가 멋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외모가 멋진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 노을이의 경우는 외모를 기준으로 마른 체형이 아닌 정민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다. 노을이는 살이 많이 찌면 키가 안 큰다며 정민이를 걱정하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염려조차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외모에 대한 염려를 말하고 있다. 진수는 지원이를 칭찬하고 있지만, 이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평가하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원이도 상대를 위하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기준(날씬한 체형을 가지는 것이 좋다)을 강요하고 있다.
- [대화 상황 5] '성적'을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연우와 헤지, 지수 모두 성적이 좋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별하는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수는 이러한 서열의식을 바탕으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우와 헤지는 그런 지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헤지는 지수가 오늘 무슨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고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지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연우는 직접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학원에 나오라며 자신의 기준(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다)을 지수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 [대화 상황 6] '권위'를 기준으로 친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말이 담긴 텍스트. 재원이와 해인이, 성욱이 모두 학교에서 특정한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 재원은 학급 반장인 자신과 나머지 친구들을 구분하고 친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해인과 재원이, 성욱이는 자신들의 기준(반장의 결정을 잘 따라야 한다)을 친구들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 (1)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 이름에 등그라미 표시를 해 보세요.
- (2) 서열의식이 담겨 있는 표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3) 서열의식이 담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얕잡아 보고 있나요?
- (4) (3)에서 답한 '기준'을 아래 그림의 맨 위 칸에 적어 넣은 후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활동 해설** 서열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자신이 특정한 기준에 대해서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도덕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서 비롯된다. 질문 (4)번 그림 속 일련의 질문들은 이러한 우월 의식이나 도덕적 당위성이 절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타고 난' 것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는 학생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그것이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노력하지 않음'을 비판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성적'이나 '외모 관리'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일로 강요되는 것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노력해야 마땅한 것 혹은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만약 여러분에게 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랩도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랩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은 무시한다면 어떨까요?'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 성적이나 외모도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은 개인에게 강요될 만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도록 한다.

- ② 모둠별로 학급 구성원들에게 모둠에서 담당했던 대화 상황을 소개하고, (1)~(4)에 대한 답을 학급 구성원에게 발표한다.
- ③ 교사는 조별로 제시한 답안을 칠판에 적고 어떤 표현이 가장 좋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 ⑥ 적당한 언어적 전략이 도출되지 못하거나, 아래의 예에 해당하는 표현이 제안되지 않으면 교사는 아래의 예를 제시해 볼 수 있다.
  - 단순히 타고난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
  - 나에게 그것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야.
  - 어떤 한 가지를 너보다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기준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 (3) 정리

#### ❖ 【활동 3】 내가 가진 서열의식 나에게 적용해 보기

- ① 이 활동에서 다룬 서열의식 기준 5가지에 대하여 자신을 평가한 후 오각형에 결과를 그려 본다.
- ② 평소에 5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한 경험이 없었는지 떠올려 보고 주어진 글의 내용처럼 자신이 가진 서열의식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활동 해설** 질문 (1)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5가지 기준이 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 (2)은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할지라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는 질문으로,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억압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 (3)은 서열의식에 기반을 둔 무시와 조롱, 혐오와 폭력성이 반드시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찰하기 위해 고안된 질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열의식이 가진 폭력성이 타인이 아니라 나를 향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서열의식을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 자신이 타인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서열의식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외모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한다. 따라서 교사는 마지막 질문을 통해 자신이 만든 기준에 의해 스스로가 고통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게 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자신의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학습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존중, 배려】

## 남자, 여자 혹은 나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학습자들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구안되었다. 일부 학습자들은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인 의도로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도 없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편견이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학습자들도 있다. 따라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성차별적 표현인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성차별적이며, 어떤 것이 더 심한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자신이 직접 들었던 성차별적인 말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학급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기준을 공유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찾고, 그러한 편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해 보는 활동을 통해 남자다움 내지는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의 고유 권리인 삶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 ■ 학습 목표

- 성차별적인 표현을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성차별적인 표현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 성차별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10분)	<b>【학습 목표 확인】</b> <b>【동기 유발】 상처 빙고! 내게 상처를 준 성차별적 표현들</b> ① 마음에 상처를 준 성차별적 표현을 빙고판 위에 적는다. ② 모둠별로 빙고 놀이를 진행하며, 성차별적 표현에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b>모둠 활동</b> ① 모둠 내 활동 ② 모둠 간 활동	1차시
[실제] 전개 (25분)	<b>【활동 1】 성차별적 표현에 맞설 수 있는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b> ① 빙고 놀이에서 소개하지 못한 성차별적 표현 중 하나를 골라, 그 표현을 들었던 상황을 대본으로 구성해 본다. ② 구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표현 및 성차별적 표현에 담겨 있는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편견을 찾고, 해당 표현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③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언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④ 모둠의 대화 상황과 해당 상황에서의 언어적 대응 전략 발표하기	<b>모둠 활동</b> ①-③: 모둠 내 활동 ④: 모둠 간 활동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성찰] 정리 (10분)	<b>【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b> ① 동영상 시청 후,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쓰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②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③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전체 활동</b> ① 개인 활동 ②-③ 전체 활동	

☞ 학습자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작 활동



모듬 내 활동



모듬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상처 빙고! 내게 상처를 준 성차별적 표현들**

- ① 모듬의 인원이 4~6명으로 구성된 4개 혹은 6개의 모듬을 만든다.
- ② 모듬별로 상의하여, 모듬별로 3×3 빙고 판을 받고, 빙고 판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성차별적 표현들을 적는다.

**활동 해설** 이때 학습자들이 성차별적 '상황'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은 '말'을 적도록 한다.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이 이야기한 경험을 칠판에 기록하고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학습자들에게 상기시키며 성차별적인 표현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도록 한다.

- ③ 이후 모듬 순서대로 돌아가며 빙고 판에 적힌 경험을 하나씩 소개하며 빙고 놀이를 진행한다.
- ④ 가장 먼저 3줄을 완성한 팀이 승리한다.
- ⑤ 놀이를 종료한 후에 놀이 중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자' 혹은 '남자'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 (2) 전개

❖ **【활동 1】 성차별적 표현에 맞설 수 있는 언어적 대응 전략 마련하기**

- ① 모듬별로 논의하여 빙고 게임에서 소개하지 못한 남아 있는 성차별적 표현 중에 소개하고 싶은 사례를 하나 선택한다.
- ② 해당 사례를 제시한 모듬원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간단한 대본을 구성한다.
- ③ 구성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모듬원들과 상의하여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여 본다.
  - (1)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말들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위에서 찾은 말 속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담겨 있나요?
  - (3) 편견이 담겨 있는 표현을 들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4)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 (5) 위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듬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대화의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성차별적인 말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말"을 써 봅시다.

**활동 해설** 【활동 1】의 1번과 2번 질문이 성차별적 표현을 찾고, 그것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라면 질문 3번과 4번은 성차별적 표현이 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며, 어째서 그러한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성차별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활동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여자다움 혹은 남자다움에 대한 강요가 가진 폭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3~4번 질문에 대한 답이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남잔데 여자라고 했기 때문이다'와 같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놀림이 '바보, 멍청이'와 같은 놀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대화 속에 나타나는 비하와 조롱의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러한 강요는 '자기답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개인의 삶의 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폭력성을 지닌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② 모둠별로 학급 구성원들에게 모둠의 대화 상황을 소개하고, (1)~(5)에 대한 답을 학급 구성원에게 발표한다. 이때 (5)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이 제안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발표한다.

**활동 해설** 학습자들이 직접 작성한 대본을 역할극 형식으로 발표시킬 수도 있다. 앞선 활동이 빠르게 끝나 수업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할극으로 발표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모둠 대표가 발표하게 한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만들기

- ① 다 함께 아래 두 동영상상을 시청한다.
- <앞으로 저 같은 학생이 체육 시간에 모래만 보고 있는 일은 없길>  
URL: <https://www.youtube.com/watch?v=nc9HHQD9les>
  - <Always #LIKEAGIRL>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jJQBjWYDTs>
- ②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의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한 마디'를 빈칸을 채워 완성한다.  
(예시 답안) "나는 그냥 나다울 뿐이야." 혹은 "나는 그냥 이진현다울 뿐이야."

**활동 해설** 영상의 2분 38초에 "이제 여자애같이 달려보라고 한다면 다르게 달릴 것 같나요?"라는 질문이 나온다. 영상 속 인물은 "네, 저답게 달릴 거예요."라고 답을 한다. 학습자들이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한 마디를 채우기 어려워하면 2분 38초에서 영상을 멈추고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활동지의 빈칸에는 '나'라고 써넣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예의, 효】

## 지금, 마음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 ■ 차시 개관

이 차시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 내용과 태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더 나아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도록 하였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경험을 흔히 마주한다. 영상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함부로 말을 건네지 않았는지, 가족 간 대화 방식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후 부모님에게 들었던 가장 상처받은 말, 부모님에게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 부모님에게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말을 함께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 사용과 태도를 성찰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를 적게 하여 간접적으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 ■ 학습 목표

- 부모님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화 내용과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붙임쪽지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7분)	<b>【학습 목표 확인하기】</b>  <b>【준비 활동】 엄마·아빠와의 영진 대화</b> 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일어난 경험 떠올리기  <b>【활동 1】 안과 밖이 다른 가족</b> ① 딸, 엄마, 아들, 아빠의 잘못된 대화 방식 또는 언어 사용의 문제 찾기	전체 활동	1 차시
[실제] 전개 (30분)	<b>【활동 2】 가장 상처받은 말, 가장 후회되는 말</b> ① 부모님께서 했던 말 중 가장 상처받았던 말을 붙임쪽지에 적기 ② 붙임쪽지를 칠판에 붙이고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기 ③ 가장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붙임쪽지의 내용을 읽고, 부모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④ 부모님께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을 붙임쪽지에 적기 ⑤ 붙임쪽지를 칠판에 붙이고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기 ⑥ 가장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붙임쪽지의 내용을 읽고, 자녀가 그러한 말을 한 이유와 부모님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체 활동 ① 개인 활동 ②~③ 전체 활동 ④ 개인 활동 ⑤~⑥ 전체 활동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b>【활동 3】 가장 감동적인 말</b> ① 부모님께 들었던 따뜻한 말 또는 위로가 되었던 말을 붙임쪽지에 적기 ② 붙임쪽지를 칠판에 붙이고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기 ③ 가장 감동적인 말을 세 가지 선정한 뒤, 감동받은 이유를 함께 논의하기 ④ 가장 감동적인 말, 감동받은 이유에 대해 발표하기	<b>모둠 활동</b>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③ 모둠 내 함께 ④ 모둠 간 활동	
<b>[성찰]</b> <b>정리</b> <b>(8분)</b>	<b>【정리 활동】 엄마-아빠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b> ①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의 한마디를 활동지에 적기 ②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의 한마디 발표하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③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④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전체 활동</b>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③-④ 전체 활동	

☞ 학습지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작 활동



모둠 내 활동



모둠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하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엄마-아빠와의 영킹 대화**

-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나타난 영상(2분 24초)을 함께 시청한다.
- 엄마-아빠와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일어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잠시 생각하게 한다.
  - 〈유자식 삼팔자〉 URL: <https://youtu.be/l7HRJQNfqUg>

**활동 해설** 수업 상황에 따라 일부 학생들의 경험을 듣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

학습자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아래의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우리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8분 14초부터 10분 2초까지) URL: <https://youtube.be/xXdZyVo0qy8>
- 〈응답하라 1997〉(3분 6초) URL: <https://youtube.be/dtPF8VDR7YU>

❖ **【활동 1】 안과 밖이 다른 가족**

- 가족 간의 대화 문제를 다룬 공익광고(30초)를 함께 시청한다.
  - 〈안과 밖이 다른 가족〉 URL: <https://youtu.be/9zxNQcUhp7Q>
- 딸, 엄마, 아들, 아빠의 잘못된 대화 방식 또는 언어 사용의 문제를 찾고, 답안을 함께 확인한다.

**활동 해설** 이 영상은 가족끼리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무심코 상처줬던 말과 행동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는 영상 속의 딸과 아들의 사례를 더욱 집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평소 언어 습관을 인식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도록 한다.

**【활동 1】의 정답은 다음과 같다.**

- 딸 김아영은 엄마가 묻는 말에 “올라도 돼”라며 통명스럽게 대꾸한다.
- 엄마 이효진은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의 발을 청소기로 건들며 “이것 좀 치워봐”라고 짜증을 낸다.
- 아들 김범진은 과일 한 쪽 먹어보라는 아버지에게 말도 귀찮은지 손만 내젓는다.
- 아빠 김기준은 양손에 짐을 든 엄마를 향해 “아, 빨리 와!”라고 짜증을 낸다.

**(2) 전개****❖ 【활동 2】 가장 상처받은 말, 가장 후회되는 말**

- ① 부모님께 상처를 준 사연을 담은 영상(2분 9초: 3분 33초부터 5분 42초까지)을 시청한다.
  - <내가 가족에게 했던 심한 말> URL: <https://youtu.be/VZeQwwO3s7k>
- ② 불임쪽지를 개인별로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부모님께서 했던 말 중 가장 상처받았던 말을 불임쪽지에 적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활동지에 적는다.
- ③ 모둠별로 나와 불임쪽지를 칠판에 붙인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사연을 모아 분류한다.

**활동 해설** 학생들이 칠판에 나와 불임쪽지를 적을 때, 모듬별로 혹은 구역별로 나누어 나오게 하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막고 혼란을 최소화한다.

- ④ 교사는 가장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불임쪽지의 내용을 읽어준다. 부모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다.
- ⑤ 불임쪽지를 개인별로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부모님께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을 불임쪽지에 적고,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활동지에 적는다.
- ⑥ 모듬별로 나와 불임쪽지를 칠판에 붙인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사연을 모아 분류한다.
- ⑦ 교사는 가장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불임쪽지의 내용을 읽어준다. 나는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일부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다.

**활동 해설** (1) 상처받은 말의 예: “공부 좀 해라.”,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네 친구는 공부는 잘하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책 좀 읽어.”, “후대 전화 없애버린다.”, “밥 좀 먹어.” 등 주로 공부와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 “그만 먹어. 살 찌.”, “XX자식, 난 정말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와 같이 조롱이나 욕설 등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표현도 나올 수 있다.

(2) 후회되는 말의 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도 몰라? 귀찮게 물어보지 좀 마.”와 같이 폐쇄적인 의사소통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아, 짜증나.”, “내 건데 왜 마음대로 건드려?”, “용돈이나 줘.”처럼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빈정대는 말을 한 경우가 나올 것이다. 또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나 진짜 성형할거야.”, “부끄러우니까 학교 오지 마.”와 같이 창피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엄마(아빠)가 원데, 나한테 해 준 거 있어?”, “난 엄마(아빠) 같은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누가 낳아 달랬어?”처럼 일부러 상처 준 말을 적기도 한다.

일부 학생은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께 들은 공격적인 말이나 욕을 이야기할 수 있다. 혹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교사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00는 ~한 경험을 했구나. XX는 어떤 경험을 했니?’와 같이 감정이 아닌 사실만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의 사례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자체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자극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나는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경험을 깊이 검토하게 하거나 가장 공감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일어나게 한다. 또한 불임쪽지를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 경험한 내용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3】 가장 감동적인 말**

- ① 부모님의 따뜻한 말을 담은 영상(1분 45초: 27초부터 2분 12초까지)을 시청한다.
  - <부모님께 들었던 따뜻한 말 시리즈> URL: <https://youtu.be/1yVMMlwYA9A>
- ② 불임쪽지를 개인별로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부모님께 들었던 따뜻한 말 또는 위로가 되었던 말을 불임쪽지에 적고, 그런 말을 듣게 된 배경을 활동지에 적는다.
- ③ 모듬별로 나와 불임쪽지를 칠판에 붙인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사연을 모아 분류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비슷한 사연을 모아 분류한다.
- ⑤ 모듬원끼리 논의하여 가장 감동이 되는 말 세 가지를 선정한 뒤, 감동받은 이유를 함께 논의한다. 논의한 내용을 활동지에 적는다.
- ⑥ 모듬 대표를 한 명 선정한다. 각 모듬별로 돌아가며 활동지의 내용을 발표한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엄마-아빠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

- ① 평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붙임쪽지로 전달하는 가족의 사례를 담은 영상(3분 26초)을 시청한다.
  - <[지금, 포스트잇]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 URL: <https://youtu.be/1IGzvj-uJTA>

**활동 해설** 활동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아래의 공익광고 영상(34초)을 시청한다. 이 영상은 직장·연인·친구를 대하는 태도와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시켜 진정한 효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URL: <https://youtu.be/cx8CoegDfIU>

- ②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사랑의 한마디를 활동지에 적는다.
- ③ 돌아가며 적은 내용을 발표한다.
- ④ 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오려서 부모님에게 직접 전달해 보자고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예의, 배려】

##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 ■ 차시 개관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은 학교나 가정의 범위 밖에서도 이루어진다.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언어 사용 능력은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차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할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뤄짐을 인식하도록 구안되었다. 특히 구체적인 맥락에서 타인은 물론 자신의 언어 표현과 태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갈등 상황에 놓인 두 인물이 반드시 대립되거나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언어 또는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담긴 언어를 모색하고 사용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언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 학습 목표

-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대화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소통 카드>(수정용 포함),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이름표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15분)	<b>【학습 목표 확인하기】</b>  <b>【준비 활동】</b> 당신의 '대하다'에 배려를 더해 주세요. ① 영상 속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뽑은 '가장 기분 좋은 손님의 말' 적기 ② 영상을 보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 경험 떠올리기	전체 활동	1차시
	<b>【활동 1】</b> 낯선 사람과의 다양한 대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①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그린 그림을 보고 각 인물들의 관계와 상황을 추측하여 연결하기 ②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읽기	전체 활동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실제] 전개 (30분) (5+25+25)	<b>【활동 2】</b> 소통 카드 게임 준비! 게임 방법 파악하기 ① 소통 카드 게임의 순서와 규칙을 읽고 게임 방법 이해하기 ②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고 짝 모둠 및 순서 정하기	모둠 활동 ① 전체 활동 ② 모둠 간 활동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b>【활동 3】 1차 소통 카드 게임 진행하기</b> ① 첫 번째 짝 모둠은 <소통 카드>를 채우고, 수정하고, 대화를 나누기 ② 나머지는 관찰자가 되어 모둠별로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인상 깊은 말과 표정·몸짓·손짓·억양 등을 적기  <b>【활동 4】 2차 소통 카드 게임 진행하기</b> ① 두 번째 짝 모둠은 <소통 카드>를 채우고, 수정하고, 대화를 나누기 ② 나머지는 관찰자가 되어 모둠별로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인상 깊은 말과 표정·몸짓·손짓·억양 등을 적기	<b>모둠 활동</b> ① 모둠 내 활동, 모둠 간 활동 ② 모둠 내 활동, 개인 활동	
[성찰] 정리 (20분)	<b>【정리 활동】 게임 분석 보고서 만들기</b> ① <소통 카드>를 보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 보고서 채우기 ② 대화자로서 작성한 게임 분석 보고서 발표하기 ③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보고 각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골라 보고서 채우기 ④ 관찰자로서 작성한 게임 분석 보고서 발표하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⑥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모둠 활동</b> ① 모둠 내 함께 ② 모둠 간 활동 ③ 모둠 내 함께 ④ 모둠 간 활동 ⑤~⑥ 전체 활동	2차시

☞ 학습지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짝 활동



모둠 내 활동



모둠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하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 **【준비 활동】** 당신의 '대하다'에 배려를 더해 주세요.

-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3분 8초)을 본다.  
 • <알바천국 착한손님, 마음을 더하다> URL: <https://youtu.be/53g9rqJ9tL0>
- 영상 속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뽑은 '가장 기분 좋은 손님의 말'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교사는 영상의 49초로 다시 돌아가서 정답을 보여준다.
- 평소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

**활동 해설** 아르바이트 직원이 뽑은 가장 기분 좋은 손님의 말은 "인사에 대한 대답(42%), 나를 기억해 주는 말(18%), 칭찬의 말(11%), 고맙다는 말(10%), 걱정해주는 말(10%), 괜찮다며 다독여 주는 말(9%)"이다.

교사는 이처럼 사소하고 당연한 말을 평소에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며, 평소 학교 밖에서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말을 하는지 떠올리게 한다. 공부하기도 바빠서, 돈을 내니까, 쑥스러워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을 대할 때 존중과 배려를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간다.

❖ **【활동 1】 낯선 사람과의 다양한 대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그린 그림을 보고 각 인물들의 관계와 상황을 추측하여 연결한다.

**활동 해설** 아래의 표는 각 인물의 상황 맥락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A	B
①	(학생-인터넷 쇼핑물 고객) 쇼핑물에서 아이보리 티셔츠를 보고 구매를 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색깔이 너무 달라 당혹스러운 상황	(어른-인터넷 쇼핑물 직원) 색상 차이의 경우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아서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상황
②	(학생-자원 봉사자) 담임 선생님이 공지한 봉사활동 생활기록부 마감일인데 봉사 시간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인 상황	(어른-봉사기관 직원) 담당자는 휴가를 갖고 마침 시스템 점검 일이라 다음날까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
③	(학생-피자가게 고객) 저녁으로 먹을 피자를 주문했으나 예상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도착한 상황	(어른-피자가게 배달원)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빗길을 달려 온 상황
④	(학생-진로 체험 신청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미리 신청했던 진로 체험을 당일 취소해야 하는 상황	(어른-진로 체험 담당자) 식사와 숙박 예약은 물론 교육 자체도 인원 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일 취소를 하면 난감한 상황

- ② 교사는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모둠별로 한 장씩 나누어 주고, 해당 내용을 함께 읽는다.

**활동 해설**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말하기,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자르지 않기, 책임을 추궁하거나 다그치지 않기, 빈정대거나 조롱하지 않기, 충고하지 않기, 원망하지 않기,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기, 객관적인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자신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기, 적당한 어조로 감정을 표현하기, 상대방과 시선 맞추기(면대면 상황)'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 (2) 전개

### ❖ 【활동 2】 소통 카드 게임 준비! 게임 방법 파악하기

※ 게임 순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학생용 교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① 게임의 참여자인 대화자 1, 대화자 2, 관찰자를 소개한다.
  - 대화자 1과 대화자 2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 관찰자는 대화를 관찰하면서 인상 깊은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는다.
- ② 가위바위보를 통해 소통 카드를 고르게 하고 짝 모둠을 선택한 뒤 게임 순서를 정한다.
  - 전체 인원을 4개의 모둠으로 나눈다.
  -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1, 2위 모둠이 먼저 ①~④의 8개 인물 카드 중 하나를 고른다.
  - 3위 모둠은 1, 2위 모둠이 고른 카드와 짝을 이루는 카드를 하나 고른다.
  - 4위 모둠은 남은 인물 카드를 고르고 역할을 부여 받는다.
- ③ 게임의 준비물인 <소통 카드>와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를 채우는 방법을 설명한다.
  - 대화자를 맡은 모둠은 <소통 카드>의 ㉠~㉥을 채우게 된다.
  - 관찰자를 맡은 모둠은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의 항목을 추가하게 된다.
- ④ 교사는 다음의 순서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 준비(5분) → 1차 대화(2분) → 휴식(5분) → 2차 대화(2분)
  - 대화자를 맡은 모둠은 “<소통 카드> 채우기 → <소통 카드>대로 전부 말하고 답변 듣기 → <소통 카드> 수정하기 → <소통카드>대로 전부 말하고 답변 듣기”의 순서로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모둠 대표를 선정하여 <소통 카드>를 읽게 한다.
  - 관찰자를 맡은 모둠은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추가하기(평가 기준 생성) → 대화를 관찰하며 인상 깊은 말과 표정·몸짓·손жат·역양 등을 적기 →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수정하기(평가 기준 보완) → 다시 대화를 관찰하며 인상 깊은 말과 표정·몸짓·손жат·역양 등을 적기

### ❖ 【활동 3】 1차 소통 카드 게임 진행하기

- ① 첫 번째 짝 모둠이 앞으로 나와 1차 소통 카드 게임을 진행한다.
  - 모둠원끼리 상의하여 5분 간 <소통 카드>의 “㉠ 대화 의도(임무) / 선정 이유,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를 채운다. 이때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토대로 적는다. 다시 말해 항의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좋으나 <갈등의 예방하는 대화법>을 지켜야 한다.

**활동 해설** 소통 카드에 적힐 내용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A]를 고른 모듬은 ㉠의 대화 의도로 '요청하기'를 적고, 선정 이유를 '실제 제품의 색상과 너무 다른 사진을 올린 것은 쇼핑몰의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적을 수 있다. 또한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로 '니트 색깔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환불하고 싶어요', '색상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실제 색깔이랑 너무 다른 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등을 적을 수 있다.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으로는 '모니터에 따라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색상이 실제 상품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너무 작게 적어서 죄송합니다.' 등이 있다.

- <소통 카드>의 내용을 읽을 모듬 대표를 선정한다. 교사는 모듬 대표에게 이름표를 나누어 준다.
- 모듬 대표는 이름표를 달고 앞으로 나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2분 간 1차 대화를 나눈다.
- 교사는 수정용 <소통 카드>를 준다. 5분 동안 휴식을 가지고 <소통 카드>의 "㉠ 대화 의도(임무) / 선정 이유,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를 수정한다.
- 모듬 대표는 다시 나와서 2분 간 2차 대화를 나눈다.

**활동 해설** 소통 카드 게임의 목적은 승패를 나누는 것에 있지 않다. 이 활동의 목표는 대화 참여자의 의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언어 표현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고민하고 수정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면서 예의를 지키며 나의 의도를 함께 전달하기 위한 표현을 모색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내가 예상했던 대답과 달리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때, <소통 카드>는 일종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듬 대표는 모듬원과 함께 정한 대본을 읽는 사람이다. 만약 (1) 상대 대화자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서 모듬 대표가 대답할 수 없는 경우, (2)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긴 경우 등이 생기면 '잠깐!'을 외치고 휴식을 앞당길 수 있다.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발생할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그 즉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수업 상황에 따라 시간이 남는 경우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과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의 수를 조절한다.

- ② 나머지 두 개의 모듬(두 번째 짝 모듬)은 관찰자가 되어 대화를 지켜보고 교재의 빈칸을 채운다.
- 각 모듬원끼리 상의하여 5분 간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의 항목을 추가한다.
  - 2분 간 대화가 이뤄질 때,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토대로 대화 내용을 평가한다. 인상 깊은 말(언어 표현), 표정·몸짓·손짓·억양(반·비언어적 표현)을 각자 교재에 적는다.
  - 5분 간 휴식이 이뤄질 때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의 항목을 수정 또는 보완한다.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듬원과 상의하여 함께 적는다.
  - 2분 간 다시 대화가 이뤄질 때 수정·보완된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토대로 인상 깊은 말(언어 표현), 표정·몸짓·손짓·억양(반·비언어적 표현)을 각자 교재에 적는다.

#### ❖ 【활동 4】 2차 소통 카드 게임 진행하기

- ① 두 번째 짝 모듬이 앞으로 나와 2차 소통 카드 게임을 진행한다.
- ② 나머지 두 개의 모듬(첫 번째 짝 모듬)은 관찰자 모듬이 되어 【활동 3】 ②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게임 분석 보고서 만들기

- ① 다시 모듬별로 모인다.
- ② <소통 카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피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모듬원과 함께 공유한 뒤 교재의 빈칸을 채운다.
- ③ 모듬 대표를 선정하여 정리한 내용을 돌아가며 발표한다.
- ④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의 수정·보완된 내용을 살피고, 인상 깊었던 말과 표정·몸짓·손짓·억양 등을 모듬원과 함께 공유한 뒤 교재의 빈칸을 채운다.
- ⑤ 모듬 대표를 선정하여 정리한 내용을 돌아가며 발표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정직, 책임】

## 내 거친 댓글과 ‘좋아요’ 누르는 너

### ■ 차시 개관

매체의 발전으로 언어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차시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언어 활동을 주체적으로 인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언어 활동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언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댓글’의 수용과 생산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온라인 언어 활동의 지침을 스스로 마련해 보도록 하였다.

댓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언어 활동 중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기-표현 및 소통의 창구이다. 청소년들은 댓글뿐만 아니라 ‘좋아요/싫어요’의 기능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능동적 독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독자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댓글과 부정적으로 수용되는 댓글의 차이를 살핌으로써 수용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댓글의 언어적 특징을 알아본다. 더 나아가 온라인에서의 언어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돌이켜보고, 인터넷 댓글을 통한 언어 사용의 원칙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게끔 하였다.

### ■ 학습 목표

- 온라인에서의 언어 활동이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짐을 안다.
- 댓글이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온라인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활동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댓글 도전 판>, 스티커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개요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15분)	<b>【학습 목표 확인하기】</b>  <b>【준비 활동】 ‘좋아요’ 눌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요?</b> ① 영상 속 사례(‘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유죄일지 무죄일지 생각해 보고 손들어 보기 ② 스위스 법원이 왜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본 것인지 근거를 적고 답안 확인하기 ③ ‘좋아요/싫어요’를 얼마나 자주 누르는지, 댓글을 읽거나 써본 경험이 있는지 잠시 생각하고 댓글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영상 시청하기	전체 활동	1차시
	<b>【활동 1】 최고의 댓글을 찾아라</b> ① 여름철 폭염을 다룬 온라인 기사 읽기 ②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읽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의 순서를 예측하여 순위를 정하고 최고의 댓글(1위~3위) 선정하기	<b>모둠 활동</b> ① 전체 활동 ② 모둠 내 함께	
[실제] 전개 (60분) (15+15+30)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③ 최고의 댓글이 무엇인지 정답 확인하기 ④ 최고의 댓글이라고 예측한 이유를 발표하기 ⑤ 최고의 댓글의 '좋아요' 개수 맞추기 ⑥ 총점을 구하여 퀴즈 결과 발표하기	③ 전체 활동 ④ 모둠 간 활동 ⑤ 모둠 내 함께 ⑥ 전체 활동	
	<b>【활동 2】 왜 '좋아요'? 왜 '싫어요'?</b> ① 댓글에 대한 답글 읽기 ② '좋은 댓글(마음에 드는 것)'과 '싫은 댓글(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씩 고르기 ③ '좋아요/싫어요'의 개수를 합산하여 '최고/최악의 댓글' 선정하기 ④ 실제 '최고의 댓글', '최악의 댓글'이 무엇인지 정답 확인하기 ⑤ 총점을 구하여 퀴즈 결과를 발표하고 순위 정하기	<b>모둠 활동</b> ① 전체 활동 ② 개인 활동 ③ 모둠 내 함께 ④~⑤ 전체 활동	
	<b>【활동 3】 댓글왕 선발 대화: 우리가 만드는 최고의 댓글, 최악의 댓글</b> ① 단편 웹툰 한 편 감상하기 ② 퀴즈를 많이 맞힌 모둠 순서대로 <댓글 도전 판>을 돌리며 댓글을 쓰거나 이미 적힌 댓글에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하기 ③ '좋아요'와 '싫어요'가 가장 많은 댓글을 세 개씩 고르고 확인하기 ④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한 이유를 발표하기 ⑤ '좋아요/싫어요'를 가장 많이 모은 모둠 선정하기	<b>모둠 활동</b> ① 전체 활동 ② 모둠 내 함께 ③ 전체 활동 ④ 개인 활동 ⑤ 전체 활동	
<b>[성찰]</b> <b>정리</b> (15분)	<b>【정리 활동】 내가 정하는 온라인 언어 사용법</b> ① 댓글을 쓸 때 유의하면 좋을 사용 지침 만들기 ② 댓글 달기 지침서 발표하기 ③ 지침서에 대한 '좋아요' 투표를 진행하고 최고의 지침서 선정하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②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모둠 활동</b> ① 모둠 내 함께 ② 모둠 간 활동 ③ 전체 활동	2차시

☞ 학습지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작 활동



모둠 내 활동



모둠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하기】**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좋아요' 눌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요?**

① '좋아요'의 기능 및 영향력을 다룬 뉴스 보도(1분)를 본다.

- <스위스 법원 "페이스북 비방 글 '좋아요'도 명예훼손">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cid=052&aid=0001016708&sid1=001>

② 뉴스를 보고 사례 속 행위가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손들어 본다.

③ 스위스 법원이 왜 '좋아요'를 누른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는지 근거를 적고 답안을 확인한다.

**활동 해설** 해당 영상은 2015년 스위스에서 SNS에 올랐던 특정인에 대한 비방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람이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에서의 언어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위스 법원의 판례는 법적 해석 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찬반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는 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례 속 행위를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는 행위는 법적 책임의 유무보다도 온라인에서의 언어 활동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활동의 목표는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 하더라도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교사는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와 같이 질문하며 스위스 법원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답안을 적도록 시간을 준다.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근거: 스위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 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허위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으며,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해당 내용을 몇백만 명이 볼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부적절한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생들이 쉽게 답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다시 재생하여 함께 답안을 적도록 한다.

- ④ 평소에 '좋아요/싫어요'를 얼마나 자주 누르는지, 댓글을 읽거나 써본 경험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본 뒤, 댓글의 영향력을 다룬 뉴스 보도(1분 57초)를 본다.

• <“근거 없는 댓글도 심리에 영향”…해결책 없나?> URL: <https://youtu.be/N9lt92b7CB4>

**활동 해설** 해당 영상은 댓글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뉴스로, 댓글이 정치인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댓글이 여론 물이에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댓글을 읽거나 쓰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킨다.

**교사 설명 예시** 앞서 본 영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언어 활동들을 생각해 볼까요?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게시물들이 생산됩니다. 동영상도 있고, 웹툰도 있으며 SNS의 사진이나 글 등도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각자 나름의 게시물들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동영상상을 생산하는 것은 다소 어렵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댓글'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죠. 댓글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게시물에서 작성될 수 있으며, 또 상당수의 게시물에는 이미 많은 댓글들이 있어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은 이러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얼마나 자주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나요? 댓글을 읽거나 써본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영향력이 있을까요?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영상 시청 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무 근거가 없는 댓글조차도 우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 (2) 전개

### ❖ 【활동 1】 최고의 댓글을 찾아라

- ① 4~5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만든다.
- ② 여름철 폭염을 다룬 온라인 기사를 함께 읽는다.
  - <‘대프리카’ 뛰어넘은 ‘서프리카’...서울 38도 신기록(종합)>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495600>
- ③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읽고, 최고의 댓글('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3개)을 맞추는 퀴즈를 진행한다.
  - 일곱 개의 댓글을 순서대로 함께 읽는다.
  - 모둠원과 의논하여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의 순위를 정한 뒤, 활동지의 '좋아요' 그림 옆에 순위를 적고 예상되는 '좋아요' 개수를 상의하여 적는다.
  - 최고의 댓글을 활동지에 표시하고, 최고의 댓글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둠원과 함께 논의한다.
  - 교사는 순서대로 댓글을 하나씩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댓글(3위 안에 드는 댓글)이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지시한다. 교사는 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최고의 댓글을 맞춘 모둠에게 3점을 부여한다(1번 O, 2번 X, 3번 O, 4번 X, 5번 X, 6번 X, 7번 O).
- ④ 최고의 댓글을 맞춘 모둠은 왜 최고의 댓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발표한다.

**활동 해설** 아래의 표는 각 댓글의 실제 '좋아요/싫어요' 개수와 답글 수를 적은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싫어요'를 받는 댓글보다도 '좋아요'를 받는 댓글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댓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웃겨서/재밌어서'(1번), '공감이 되어서'(7번), '기사 내용과 관련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서'(4번) 등 다양한 이유로 '좋아요'를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서 창의적인 언어 사용이나 비판적인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순서	'좋아요' 개수	'좋아요' 순위	'싫어요' 개수	답글 수	답글 순위
1번	좋아요: 9198	1위 - 최고의 댓글 1	싫어요: 114	답글: 293	1위
2번	좋아요: 492	4위	싫어요: 44	답글: 56	4위
3번	좋아요: 0	7위	싫어요: 2	답글: 0	공동 6위 - 무반응 1
4번	좋아요: 2234	2위 - 최고의 댓글 2	싫어요: 232	답글: 93	2위
5번	좋아요: 240	5위	싫어요: 5	답글: 59	3위
6번	좋아요: 1	6위	싫어요: 2	답글: 0	공동 6위 - 무반응 1
7번	좋아요: 986	3위 - 최고의 댓글 3	싫어요: 40	답글: 35	5위

자칫 퀴즈에 너무 몰입하여 분위기가 산만해지거나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수업 상황에 따라 시간이 남는 경우, 사람들이 가장 반응을 보이지 않은 댓글, 즉 답글 수가 가장 적은 댓글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활동을 추가로 진행해 본다. 실제 댓글에서 '비꼬는 듯한 말투를 쓰거나(3번)' 혹은 '비속어를 쓴(6번)' 경우, 답글이 없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이유를 몰으며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도록 한다. 반대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정답을 확인하기보다 모둠별로 한꺼번에 정답을 맞춘 개수를 보고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간을 절약하도록 한다.

⑤ '좋아요' 개수에 대한 추가 퀴즈를 진행한다.

- 모둠원과 의논하여 실제 최고의 댓글이 '좋아요'를 얼마나 받았는지 개수를 정한다. '좋아요' 그림 옆 네 모 칸에 '좋아요' 개수를 적는다.
- 교사는 가장 비슷하게 개수를 맞춘 모듬에게 3점을 부여한다.

⑥ 총점을 구하여 퀴즈 결과를 발표한다.

❖ [활동 2] 왜 '좋아요'? 왜 '싫어요'?

① 댓글에 대한 답글을 함께 읽는다.

② '최고의 댓글(1위~3위)'과 '최악의 댓글(1~3위)'을 맞추는 퀴즈를 진행한다.

- 개인별로 '좋은 댓글(마음에 드는 댓글)'과 '싫은 댓글(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하나씩 고른다.
- 모듬원과 공유하여 '좋아요/싫어요'의 개수를 합산한 뒤 그림 안에 적고, 개수에 따른 순위를 확인한다. 모듬원의 숫자가 적어 '좋아요/싫어요'의 개수만으로 정하기 힘든 경우, 추가로 논의하여 '최고/최악의 댓글'을 예측해 선정한다. 혹은 다른 모듬과 연합 모듬을 구성하여 개수를 합산한다.
- '최고/최악의 댓글'을 세 개씩 선정하고, '최고/최악의 댓글'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 교사는 정답을 불러준다.(최고의 댓글: 1번, 3번, 4번 / 최악의 댓글: 5번, 2번, 6번)
- 각 모듬별로 정답을 맞춘 개수를 보고하고, 맞춘 개수에 따라 각각 3점씩 부여 받는다.

③ '최고/최악의 댓글'을 맞춘 모듬은 '최고/최악의 댓글'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④ 총점을 구하여 퀴즈 결과를 발표하고 모듬 간 순위를 정한다.

**활동 해설** 아래의 표는 댓글에 대한 답글의 '좋아요/싫어요' 개수를 적은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최고의 댓글이 된 댓글에 틀린 표현(혹은 오타)이 있자, 이에 대한 반응이 답글(댓글에 대한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 오타 지적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쓰더라도(4번 '병맥하는 처음 본다'는 최고의 댓글에 해당), 공격적인 언어를 쓰거나(2번 '수준 떨어지니까') 혹은 아예 잘못된 정보(5번 '병맥하=명맥하의 준말')를 담고 있는 경우 독자들이 '싫어요'를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3번 '너무 그러지 마라'), 재밌고 기발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1번 '저는 킨맥이요')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순서	'좋아요' 개수	'좋아요' 순위	'싫어요' 개수	'싫어요' 순위
1번	좋아요: 230	1위 - 최고의 댓글 1	싫어요: 8	4위
2번	좋아요: 5	5위	싫어요: 24	2위 - 최악의 댓글 2
3번	좋아요: 37	3위 - 최고의 댓글 3	싫어요: 4	6위
4번	좋아요: 124	2위 - 최고의 댓글 2	싫어요: 5	5위
5번	좋아요: 7	4위	싫어요: 66	1위 - 최악의 댓글 1
6번	좋아요: 0	6위	싫어요: 17	3위 - 최악의 댓글 3

인터넷 댓글에서 '좋아요/싫어요'의 수는 댓글을 언제 달았는지 댓글을 단 시각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나중에 달린 댓글일수록 '좋아요'의 절대적 수치가 적을 수 있으므로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살펴보는 것도 댓글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 【활동 3】 댓글왕 선발 대회: 우리가 만드는 최고의 댓글, 최악의 댓글

① 단편 웹툰 한 편을 함께 감상한다.

- <나는 귀머거리다, 제35화>

URL: <https://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59934&no=35&weekday=wed>

**활동 해설** 웹툰은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나는 귀머거리다>라는 작품의 한 회 분량이다. 해당 작품은 작가가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일상에서 겪는 일화들을 담고 있다.

제시되는 <제35화>에서는 친구와 식당에 간 주인공이 음식은 맛있으나 시끄러워서 별로라는 친구의 말에 본인은 그런 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음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 실제 웹툰의 댓글에서는 작가에게 “청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여러 독자들이 이러한 댓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들은 오히려 동정하는 느낌이 나니 차별에 가깝다는 입장과 좋은 의도를 너무 꼬아서 생각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었다.

이러한 논쟁의 내용은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적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댓글을 다는 콘텐츠는 꼭 제시된 웹툰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면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 예컨대, “인 미디어의 언어가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니 이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식의 뉴스나 신문 보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교사는 &lt;댓글 도전 판&gt;을 꺼낸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모은 모둠과 ‘싫어요’를 가장 많이 모은 모둠이 공동 우승하는 것이라고 미리 설명한다.

③ 【활동 1~2】에서 퀴즈를 많이 맞힌 모둠 순서대로 &lt;댓글 도전 판&gt;을 돌려 완성한다.

- <댓글 도전 판>을 받으면 댓글을 쓰거나 이미 적힌 댓글에 ‘좋아요/싫어요’를 스티커로 표시한다.
- 총 두 번에 걸쳐 <댓글 도전 판>을 돌린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모두 써야 한다.

**활동 해설** 최악의 댓글을 뽑도록 하는 것은 어떤 언어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때 학생들이 최악의 댓글에 선정될 목적으로 과도하게 폭력적인 언어 사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도한다.

<댓글 도전 판>을 돌릴 때 ‘좋아요/싫어요’는 스티커로 표시하며, 스티커의 개수는 3~5개 정도로 제한하되 모두 소모하도록 한다. 같은 모둠에서 작성한 댓글에는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교사는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 세 개와 ‘싫어요’가 가장 많은 댓글 세 개를 칠판에 적는다.

⑤ 해당 댓글에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한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⑥ ‘좋아요’를 가장 많이 모은 모둠과 ‘싫어요’를 가장 많이 모은 모둠이 공동 우승한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내가 정하는 온라인 언어 사용법

① 모둠원과 상의하여 【활동 1~3】을 바탕으로 댓글을 쓸 때 유의하면 좋을 사용 지침을 작성한다.

**활동 해설** 학생들이 댓글 달기 지침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할 경우, 교사는 앞서 살핀 실제 댓글을 바탕으로 일부 예를 들어준다. 【활동 1】에서 폭염과 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댓글(전기 누진세 폐지)이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는 점을 전달하며 댓글 달기 지침으로 “건전한 비판하기”등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음의 내용을 댓글 달기 지침으로 적을 수 있다.

- (1) 건전하게 비판하기, 창의적이고 기발한 표현 사용하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하기, 칭찬과 격려하는 말하기 등
- (2)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않기, 지나치게 언어를 파괴하지 않기, 욕설이나 비방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지 않기, 성차별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기, 인종 차별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기 등

② 모둠별로 댓글 달기 지침서를 발표한다.

③ 댓글 달기 지침서에 대한 ‘좋아요’ 투표를 진행하고 최고의 지침서를 선정한다.

## ❖ 【학습 내용 정리하기】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핵심가치·덕목: 공감, 책임】

##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 ■ 차시 개관

무심코 하는 사소한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 이 차시에서 박준의의 책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에 수록된 글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를 읽고,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말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자신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 마디 말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한다. 말의 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며, 말에 대한 책임감은 언어적 주체성 형성의 기반이다.

### ■ 학습 목표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
-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 ■ 준비물

- 교사: 교재, 사연함(학년 전체 인원의 사연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학생: 교재, 필기구

### ■ 학습 활동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인식] 도입 (10분)	【학습 목표 확인】  【준비 활동】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해 보기 ① 말이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하기 ② ‘어떤’ 말이 죽지 않는지 추측하기	전체 활동	1차시
[실제] 전개 (60분)	【활동 1】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감상하기	개인 활동	
	【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 나누기 ①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사연 작성하여 사연함에 넣기 ② 동그렇게 둘러앉아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사연함에서 한 가지 사연을 뽑아 소개하고 사연에 대한 느낌 이야기하기	전체 활동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활동 3】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말 건네기 ①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 쓰기 ② 동그렇게 둘러앉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자신이 적은 답글을 발표하고 사연함에 사연지 다시 넣기	전체 활동 ① 개인 활동 ② 전체 활동	2차시

단계	내용	활동 형태	차시
[성찰] 정리 (20분)	<b>【정리 활동】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나요?</b> 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영상 보고,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쓰기 ②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b>【학습 내용 정리하기】</b> ③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④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나누기	<b>전체 활동</b> ① 개인 활동 ②-④: 전체 활동	

☞ 학습지의 활동 유형 표시



개인 활동



작 활동



모듬 내 활동



모듬 간 활동



전체 활동

## ■ 활동 세부 절차

### (1) 도입

❖ **【학습 목표 확인】**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한다.

❖ **【준비 활동】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 추측해 보기**

① 우선 이 시간 활동을 위해 반 전체가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활동 해설** 【활동 1】까지는 둥그렇게 앉지 않은 상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활동 1】을 마친 이후에 둥그렇게 앉을 수도 있다. 다만 【활동 1】을 마치는 시점이 수업 중반부이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준비 활동 전에 해 두는 것이 좋다. 책상을 가운데로 모아 책상을 둘러싸고 앉거나 혹은 책상을 모두 치우고 바닥에 둥그렇게 앉아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평소 교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던 교실의 분위기를 대화적 공간으로 전환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둥그렇게 앉는 것이 불가능한 교실 구조가 아니라면 반드시 둥그렇게 둘러앉아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박준의 책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에 수록된 글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를 읽기 전에, 언어에 생명이 있다면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해 본다.

(1) 말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상 답안 1) 잊을 수 없다, 감동적이다, 상처이다 등

(2) '어떤'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 답안 2) 감동적인, 충격적인, 뜻밖의 등

### (2) 전개

❖ **【활동 1】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읽고 내용 파악하기**

❖ **【활동 2】 자신의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말에 대한 경험 나누기**

**활동 해설** 학습자들이 사연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후 있을 학습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한다. 익명으로 작성하기는 하지만 사연지에 적을 사연이 학급 전체에 소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수업의 성공과 실패는 대화적 분위기 형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수필을 읽는 동안 차분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 두고, 사연을 나누는 동안에도 잔잔한 음악이 들리도록 하는 것도 분위기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다.

① 교재 4쪽의 사연지를 나누어 갖고 사연지 가장 위쪽에 자신의 별칭을 쓴다. 이때 자신의 사연인 게

공개되어도 좋다면 실명을 쓸 수도 있다.

**활동 해설** 사연자의 이름을 별칭으로 적으면 사연을 소개하는 발표자도 사연자를 호칭하기 쉽고, 해당 사연을 적은 사연의 주인공도 자신의 사연이 뽑혔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별칭을 지어 부르는 과정 자체가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된다.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사연을 다시 찾아갈 때도 자신의 사연지를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며, 학급 구성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을 가지며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사연지 위 오른쪽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이 아래 중에서 “어떤” 말인지 적는다.

- ❶ 어떤 말은 두렵고: 두려운 말
- ❷ 어떤 말은 반갑고: 반가운 말
- ❸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아픈 말
- ❹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 있을 것
- ❺ 기타: \_\_\_\_\_

- ③ 줄이 그어져 있는 공간에 자신의 사연을 적는다. 그 아래의 상자는 비워 둔다.

- ④ 사연을 적을 때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적는다.

**활동 해설** 누구나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뿐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떠올리기는 막막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말에 대한 경험을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사연을 작성하게 한다.

- ⑤ 사연을 다 작성하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겹쳐 사연함에 넣는다.
- ⑥ 사연이 다 모이면 둥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사연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 ⑦ 사연함을 받은 사람은 사연함에서 하나의 사연을 뽑고 사연자는 누구인지, 사연은 어떤 말에 대한 것인지, 사연의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활동 해설**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의 입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은 통해 경험을 나누는 대화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어 준다. 또한, 학습자는 타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신이 소개할 사연 주인공의 입장에 더 진지하게 공감할 수 있다.

사연을 직접 뽑는 활동을 자신이 뽑은 사연은 주인공이 누구인 줄 모르는 상황은 평소라면 대화하지 않았을 반 친구들과의 소통을 시작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매번 사연을 뽑을 때마다 자기의 사연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자칫 피상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험 나누기에 재미를 더해 주고자 하였다.

- ⑧ 사연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 ⑨ 사연 소개가 끝나면, 자신이 뽑은 사연지를 챙겨 두고 다음 사람에게 사연함을 넘긴다.
- ⑩ 이런 방식으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하나씩 사연을 뽑아 소개한다

#### ❖ 【활동 3】

- ① 자신이 뽑은 사연지의 사연자에게 위로와 공감의 답글을 사연지 아래쪽 상자 안에 적는다.
- ② 적은 후에는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적은 답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③ 답글 발표가 끝나면 사연지는 다시 겹쳐 사연함에 넣고 사연함을 옆 친구에게 넘긴다.
- ④ 이런 방식으로 다시 모든 반 친구들이 돌아가며 사연에 대한 답글을 나눈다.
- ⑤ 수업시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연지를 찾아간다.

### (3) 정리

#### ❖ 【정리 활동】 차별적 표현에 맞서는 마지막 한 마디 만들기

- ① 다 함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영상을 시청한다.
  - 영상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ACrsYKfkpl>

- ②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 지금을 떠올려 보았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적은 후 학습지의 사람 모양 그림 위에 기억되고 싶은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본다.
- ③ 오늘 말에 대한 기억을 소개했던 것처럼 친구가 내가 한 어떤 말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말풍선 속에 적어 넣는다.
- ④ (1)~(2)의 답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지 발표한다.

**활동 해설** 【활동 2】, 【활동 3】이 본 차시의 중심 활동이므로, 앞선 두 활동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정리활동】의 내용을 발표하는 단계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다만 앞선 활동이 비교적 빨리 끝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활동】에서 작성한 내용도 돌아가며 한 사람씩 발표해 보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책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학생들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②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는지 또는 무엇을 느꼈는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⑥ [중등] 학습자 활동자료/워크북

## 4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1. 붙임쪽지 (1인당 3장)

[1]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7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회색 점선 박스가 있는 [1]번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회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칸에 넣어 [2]번을 인쇄합니다.

[2]



❖ 붙임쪽지 사용하는 방법

1. 76\*76mm 크기의 붙임쪽지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
2. 회색 점선 박스가 있는 [1]번을 A4 용지로 인쇄합니다.
3. 회색 점선에 맞춰 붙임쪽지를 붙이고, 프린터 용지 칸에 넣어 [2]번을 인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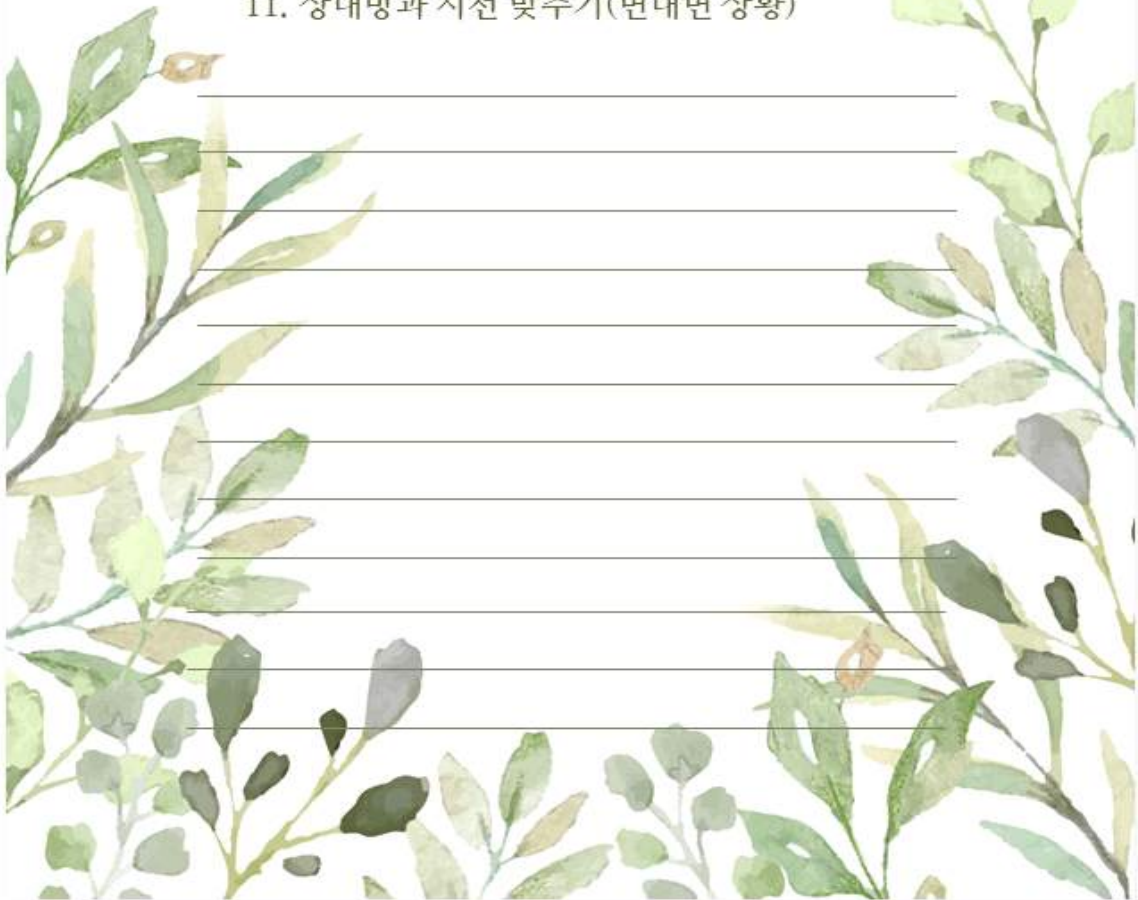
## 5-6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모둠 당 1장)
2. 소통 카드 (8개) + 수정용 소통 카드 (4개)
3. 이름표 (8개)

##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

1.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말하기
2.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자르지 않기
3. 책임을 추궁하거나 다그치지 않기
4. 빈정대거나 조롱하지 않기
5. 충고하지 않기
6. 원망하지 않기
7.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기
8. 객관적인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9. 자신의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기
10. 적당한 어조로 감정을 표현하기
11. 상대방과 시선 맞추기(면대면 상황)



# 1A



##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 1B



##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 2A



##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 2B



##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3A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3가지

---

---

---

3B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 4A



##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3가지

---



---



---

# 4B

〇〇 진로 체험



## 소통 카드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소통 카드(수정용)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3가지

---

---

---

소통 카드(수정용)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3가지

---

---

---

소통 카드(수정용)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소통 카드(수정용)

㉠ 대화 의도 및 선정 이유

---

---

㉡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 세 가지

---

---

---

㉢ 예상되는 상대방의 답변 세 가지

---

---

---

1A

인터넷쇼핑몰  
고객

1B

인터넷쇼핑몰  
직원

2A

자원  
봉사자

2B

봉사기관  
직원

3A

피자가게  
고객

3B

피자가게  
배달원

4A

진로 체험  
신청자

4B

진로 체험  
담당자

## 7-8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댓글 도전 판(1장)
2. 스티커 (1인당 3~5개)



## 댓글 도전 판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싫어요'를 표시해 봅시다.

해바라기(shss\*\*\*\*)

작가는 청각장애인인데도 참 긍정적으로 사는 듯, 보기 좋다~

2018-07-18 08:25 신고

👍 0 👎 0

젤몸(asdf\*\*\*\*)

해바라기// 근데 그냥 긍정적인 게 보기 좋더라고 하면 안 됨?? '청각장애인인데'는 왜 붙이는 거임? 그게 오히려 편견 아님???

2018-07-18 08:25 신고

👍 0 👎 0

바킷(todo\*\*\*\*)

어휴 위에 또 전지송 등판한다. 감기 걸린 사람이 몸 아픈데도 웃고 있으면 "아픈데도 씩씩하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018-07-18 08:25 신고

👍 0 👎 0

고무고무(loop\*\*\*\*)

ㅋㅋㅋㅋㅋ 뽀들 참 활젓도 없네, 싸운 일들이 그리도 없나???ㅋㅋㅋㅋ

2018-07-18 08:25 신고

👍 0 👎 0

2018-07-18 08:25 신고

👍 0 👎 0

2018-07-18 08:25 신고

👍 0 👎 0

2018-07-18 08:25 신고

👍 0 👎 0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2018-07-18 08:25 신고

👍 0 🗨️ 0



## 9-10차시 준비물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1. 사연함(학생들 사연이 모두 들어 갈 수 있는 크기의 사연함)



## The power of a word

### Learning Objectives

- Sharing other people's feelings, listening to them, and saying words of sympathy and consolation.
-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you say and leading a language life that cares about others.

#### Activity 1

Guess the meaning of the title of the article 'Some words do not die' that we're going to study today.



**Activity 2** Read the following article in taking note of the underlined part.

I have a habit of trying to remember a sentence when I talk to someone. "Get some hot water" was the last speech my grandfather said to me, and "See you at the Chinese restaurant we met" was the last word of my favorite senior novelist. I am sorry that I have not seen their death, and those words have become the will they have left.

I have a lot of words to remember, even if it's not the words of those who died first. "Let's meet in Jongno where you like next time" was the last word of an ex-girlfriend who broke up on a street in Bundang, and "There are no movies in Chungmu-ro in these days" was the last word from a former co-worker who no longer meets.

Now I won't meet them and even if I skimp on the street, I'll probably go away with a short look of greeting. So these words have become their will, too.

On the contrary, I believe that what I give to others thoughtlessly can be my will to them. So I try to say something warm and pretty even if it's the same.

But it's not an easy job. Even today, I used horrible words like 'strategies' and 'annihilation' during the business meeting in the morning, and said a staled word "Let's have a meal someday" to an acquaintance who met by accident at a restaurant at noon. I had no chance to speak to anyone because I was alone in the evening.

Words are born in a man's mouth and die in a man's ear. However, some words do not die, but enter a person's heart and survive.

Even if someone doesn't have the habit of remembering other people's words like me, most people have quite lots of words in their minds. Some words will be afraid, some will be glad, some will still make someone sick, and others will make someone excited.

It's a night of thinking about your mind, which will fill you with countless wills, like a willful will of black letters.

- Jun Park, <Some words do not die>

**Activity 3**

Choose one of the living words in your heart, and write down your story and put it in a story box. You can write anonymously on the postcard on the next page.

- ☐ A word that made me afraid
- ☐ A word that made me glad
- ☐ A word that made me sick
- ☐ A word that made me excited
- ☐ Others: \_\_\_\_\_

\*\* Write the story around when, where (or under what circumstances), who, what you heard, and what you felt at the time.

**Activity 4**

Write words of consolation or sympathy to the main character of the story in the box below your selected postcard.

**Activity 5**

Watch the video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1) What kind of 'person'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people?

(2) What 'word'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by people?



## \* 부록 2 - 수업 후 인터뷰를 위한 질문(반구조화): 학생용, 교사용

### [학생용 질문]

#### 1) 프로그램의 효과

- 가장 재미있었던 학습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학습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수업을 다른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프로그램 실행의 어려운 점

- 가장 어려웠던 학습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재미없었다고 생각했던 학습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나의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꼭 배웠으면 하는 내용

-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우고 싶은 학습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수업을 통해 나의 언어생활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이 수업을 통해 나의 언어생활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 4) 인성 교육과 프로그램

- 이 수업이 내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 이 수업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수업을 듣고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5)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이 수업에서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수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사용 질문]

### 1) 프로그램의 효과

-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차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학습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이 배우기 어려워하지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학습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향후 해당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수업을 다른 학급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프로그램 실행 과정의 어려운 점과 해결 방안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왜 그 점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업 준비도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업시간 배분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업 방법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업 매체의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

-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프로그램 구성

- 해당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학습 요소 또는 학습 활동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의 언어발달 및 언어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학생들의 반응

-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 프로그램의 인성 교육적 측면

- 인성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차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인성의 함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언어문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언어문화와 인성 교육 간의 연계성은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7)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이밖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3 - 만족도 조사지**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조사**

- \* 이 조사는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해 주세요.
1.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2. 각 질문은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면 됩니다.
  3. 각 질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도 됩니다.

**I. 다음은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수업은 우리의 실제 언어생활을 다루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이 수업은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이 수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이 수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이 수업을 통해 현재의 나와 친구들의 언어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이 수업의 내용을 나의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이 수업을 통해 앞으로 더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이 수업은 내가 바른 마음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이 수업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다른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수업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나 의견을 가장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써 주세요.**



연구 책임자 조재운(목원대학교)  
공동 연구원 김대희(원광대학교)  
서수현(광주교육대학교)  
방상호(고려대학교)  
류보라(목원대학교)  
보조 연구원 정혜현(고려대학교)  
노하늘(고려대학교)  
조은영(한국교육방송)  
보조원 김아영(목원대학교)  
담당 연구원 이윤미(국립국어원)

---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9년 12월 11일

발행일: 2019년 12월 13일

인 쇄: 씨애플(C&P)

---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